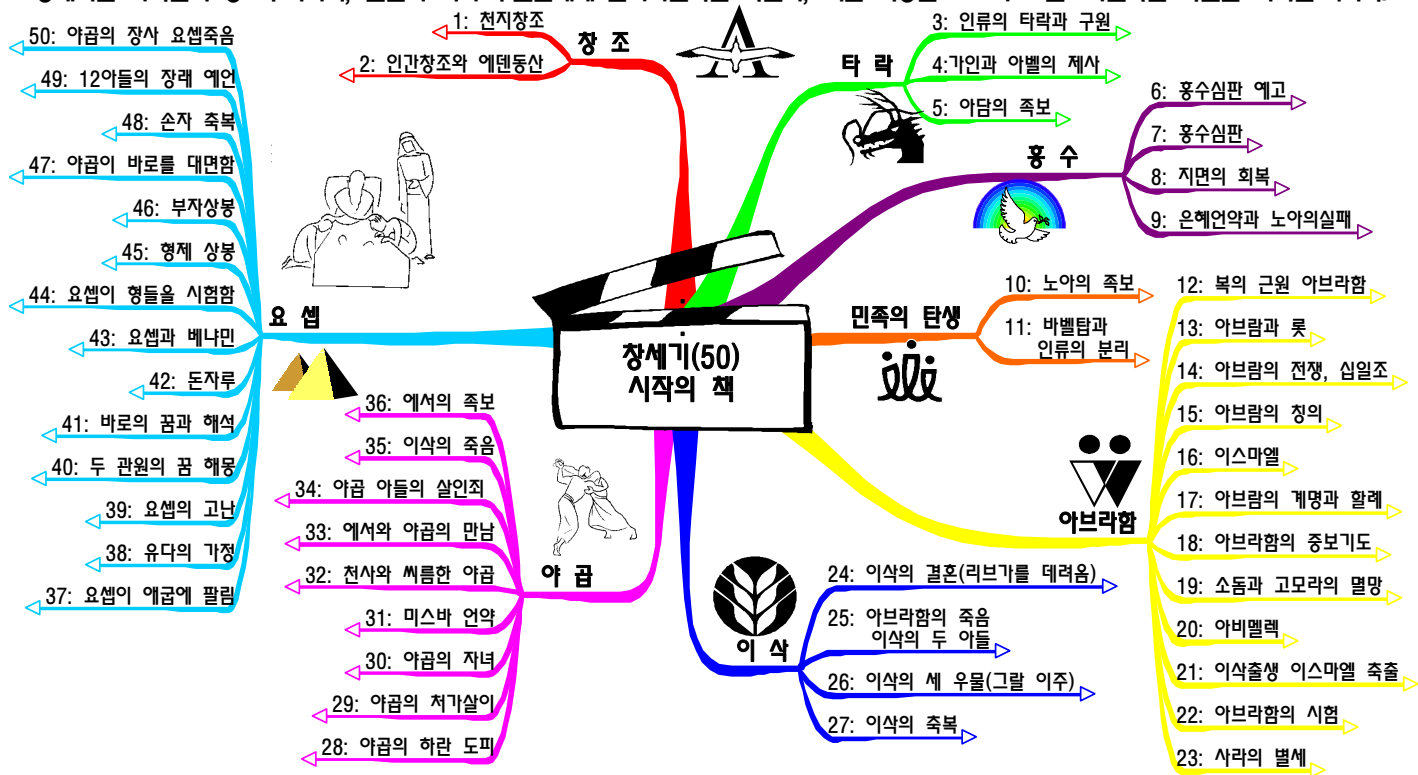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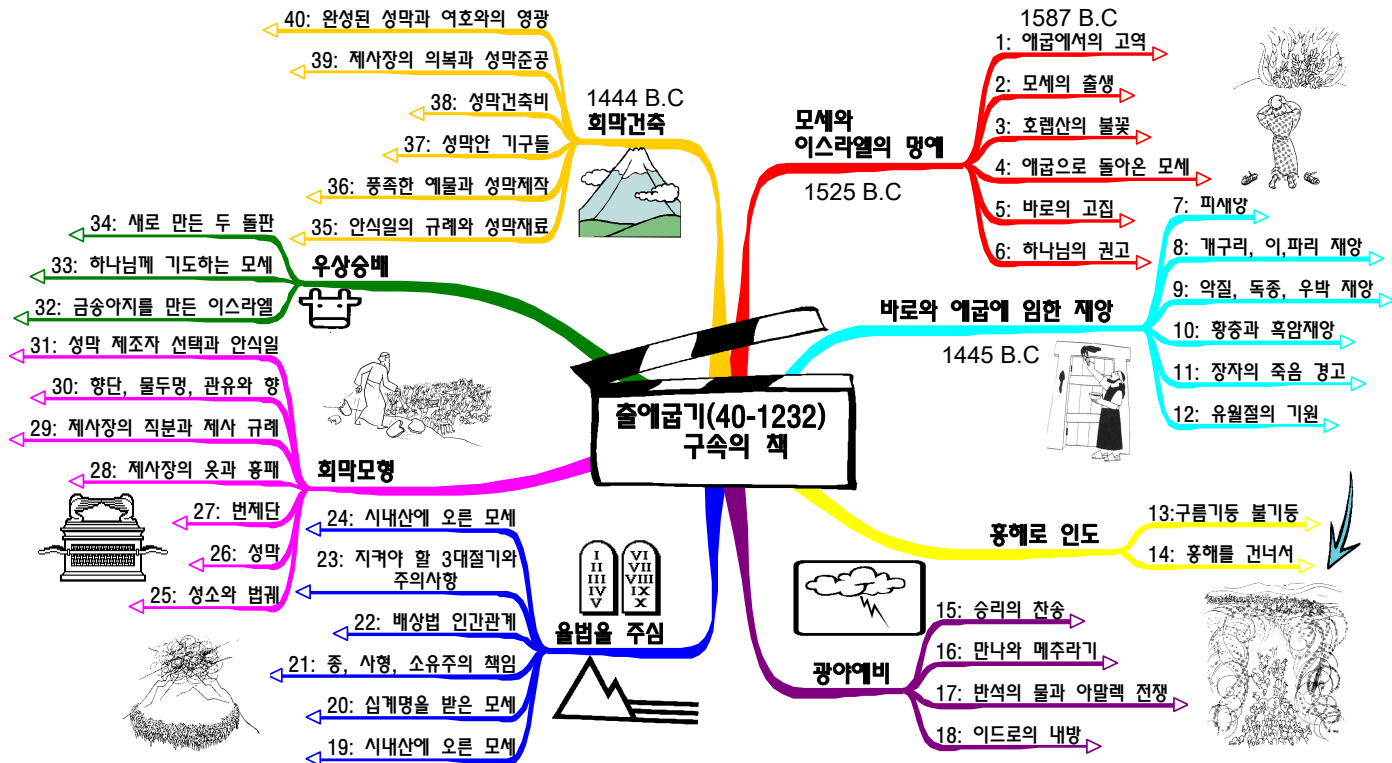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죄와 구원문제에 관여하신다는 사실과,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창세기는 창조, 타락, 홍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죄와 구원문제에 관여하신다는 사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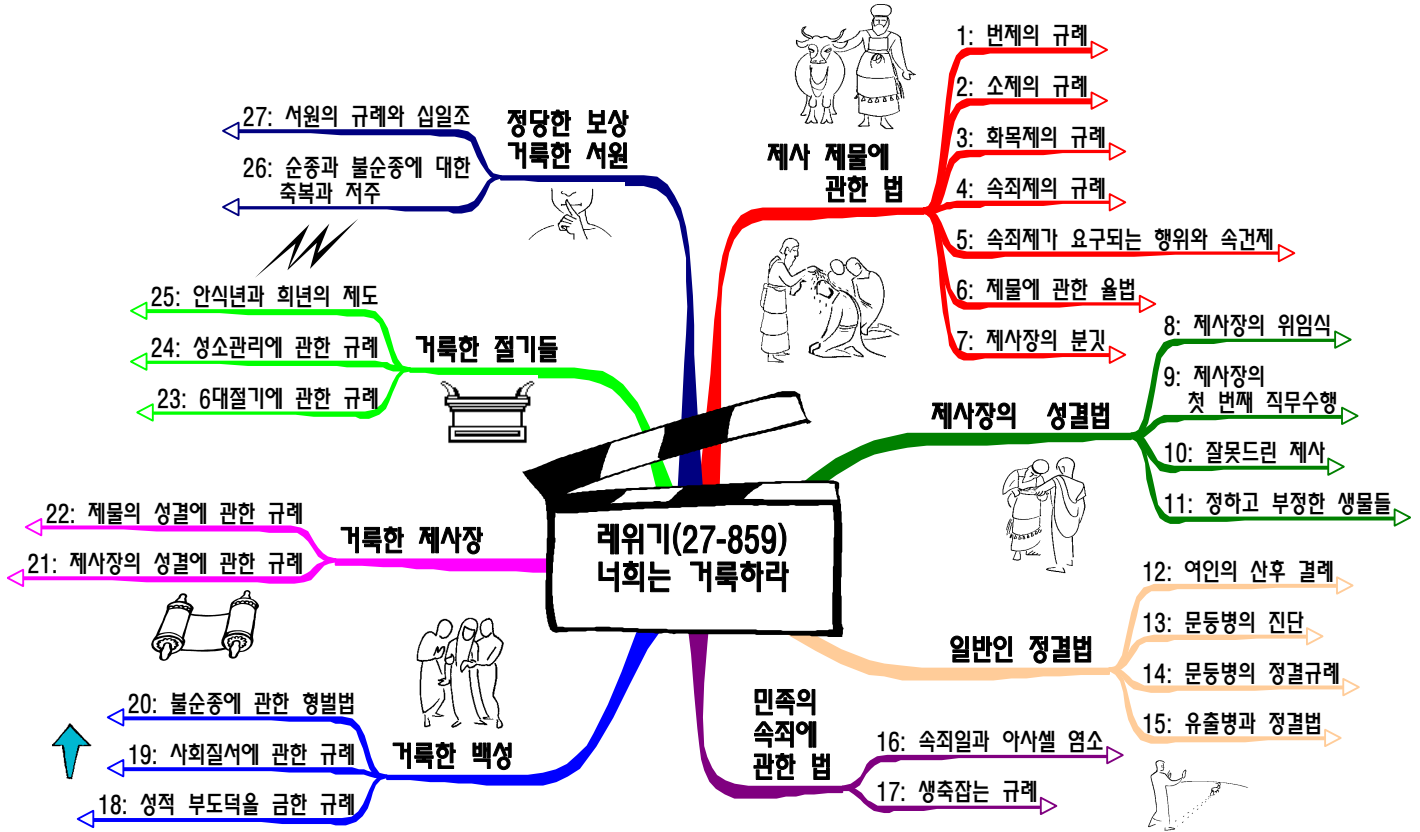
시작의 책 : (Genesis)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후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케 한 책이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 홍해 건너 광야에서 구원찬송 부르게 한 후, 율법과 성막을 주어 거룩한 생활과 성막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케 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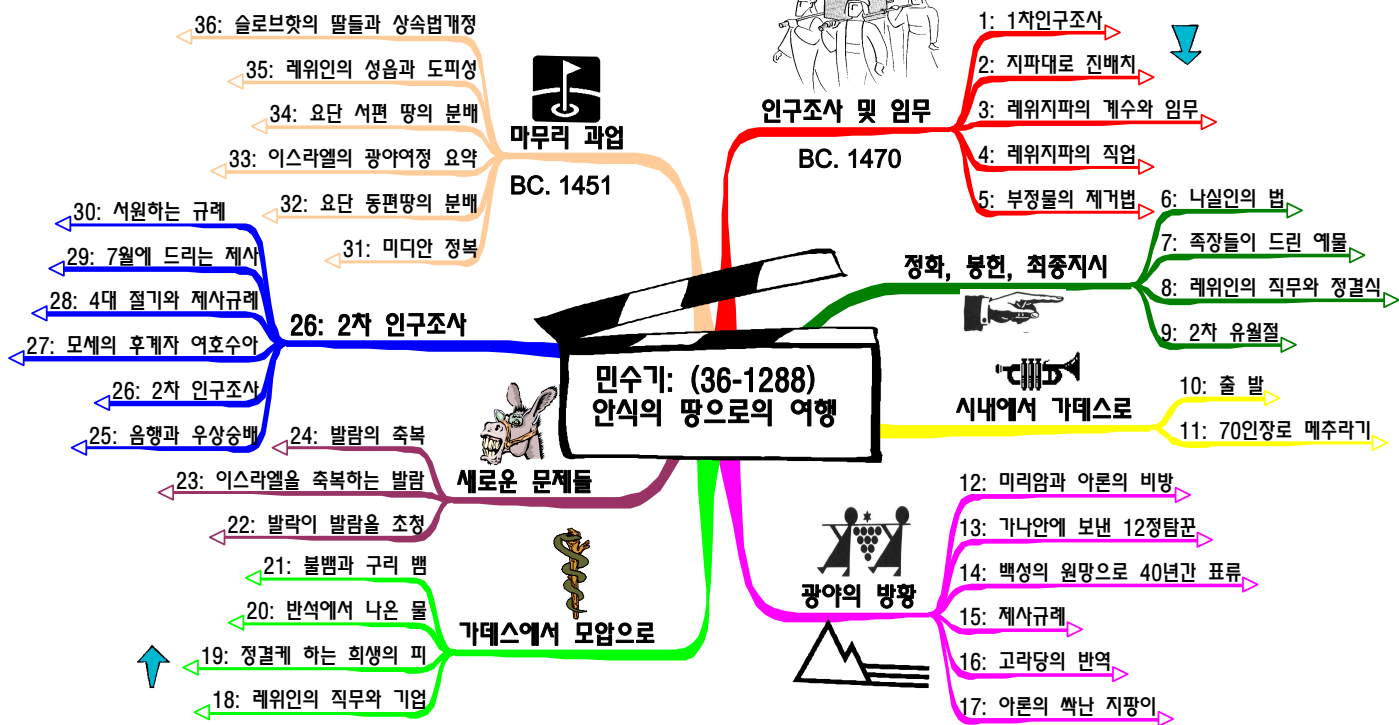
레위기는 제사로 기록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생활규례로 기록하게 사는 법을 가르친 책이다.



레위기는 희생제사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기록한 생활규례를 통해 기록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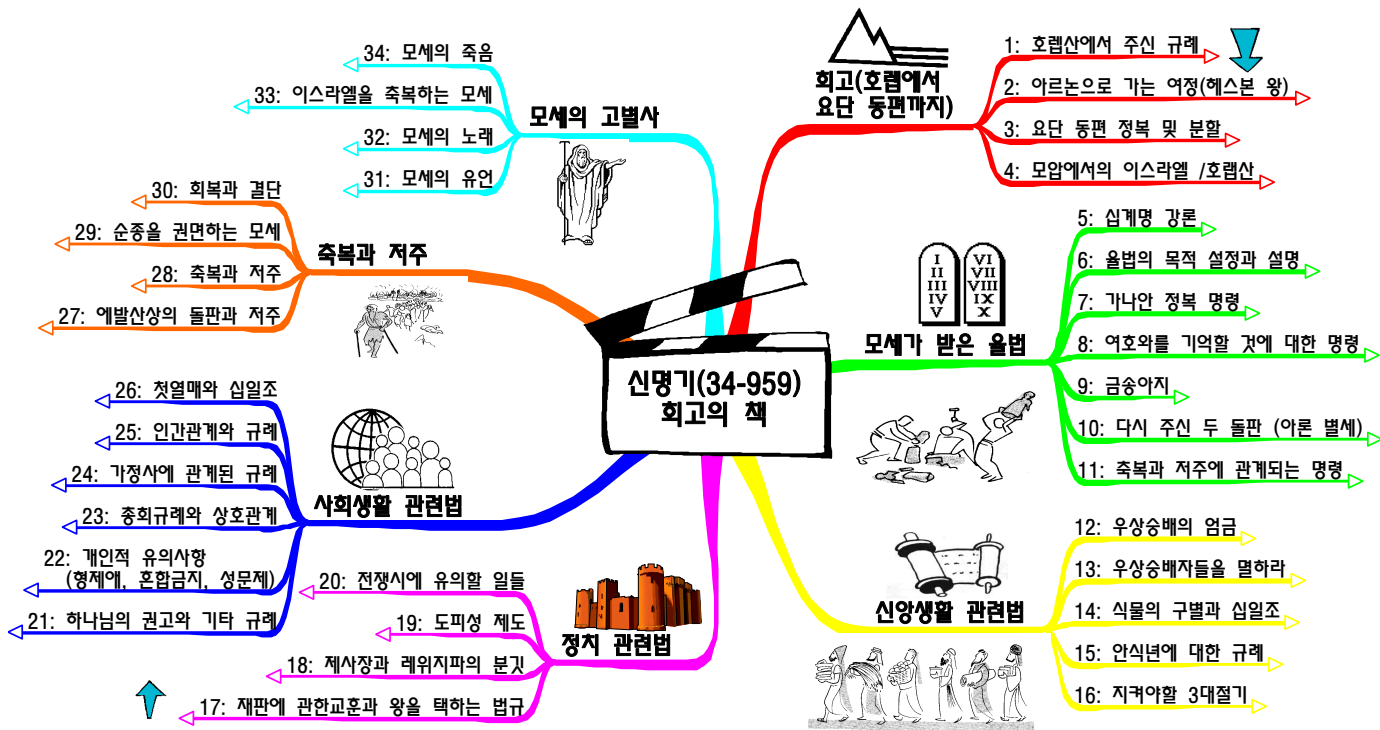
너희는 기록 하라 : (Leviticus)

민수기는 시내산 인구조사이후 37년 11개월간의 광야여정과 , 2차 인구조사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9개월 10일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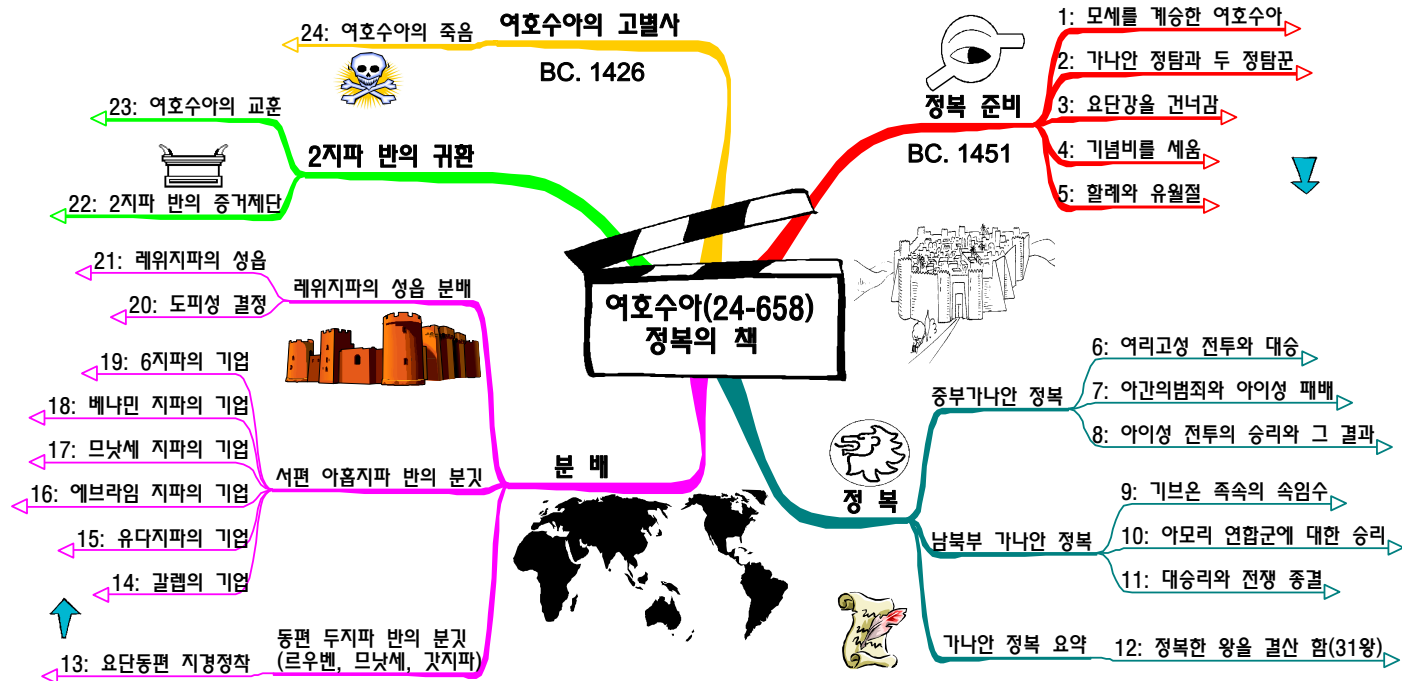
민수기는 인구조사 후 유월절 지내고, 가데스로 가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압에서 발람이 끼어든 후, 2차 인구조사하고 과업을 마무리한 책이다.

신명기는 39년 전 시나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재해석하며 적용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기 한 달 전 모압땅에서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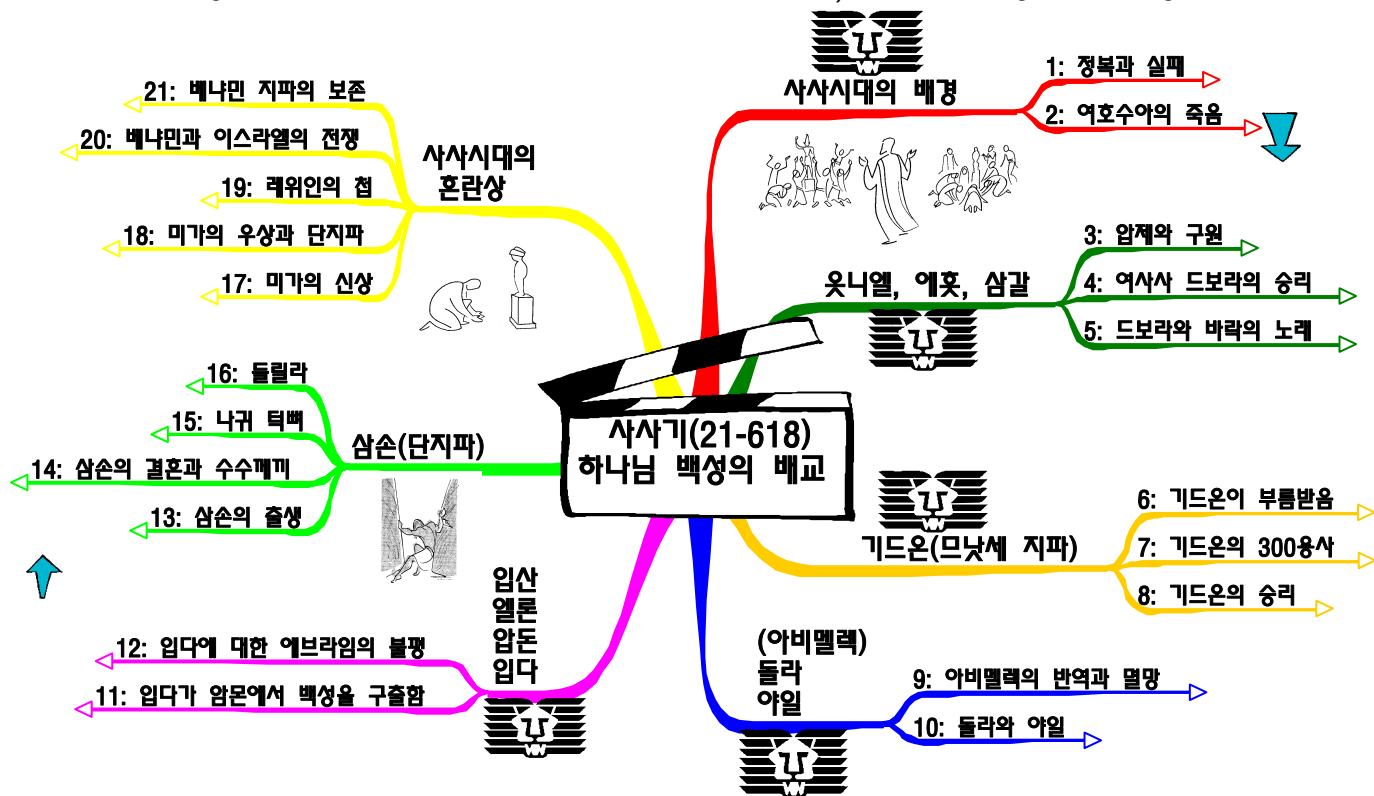
신명기는 호렘에서 요단동편 정복까지를 회고하고, 십계명과 관련법을 강론한 후, 순종하여 복 받을 것을 권면한 다음,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책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로 얻게 된 지파들간의 실제적인 기업을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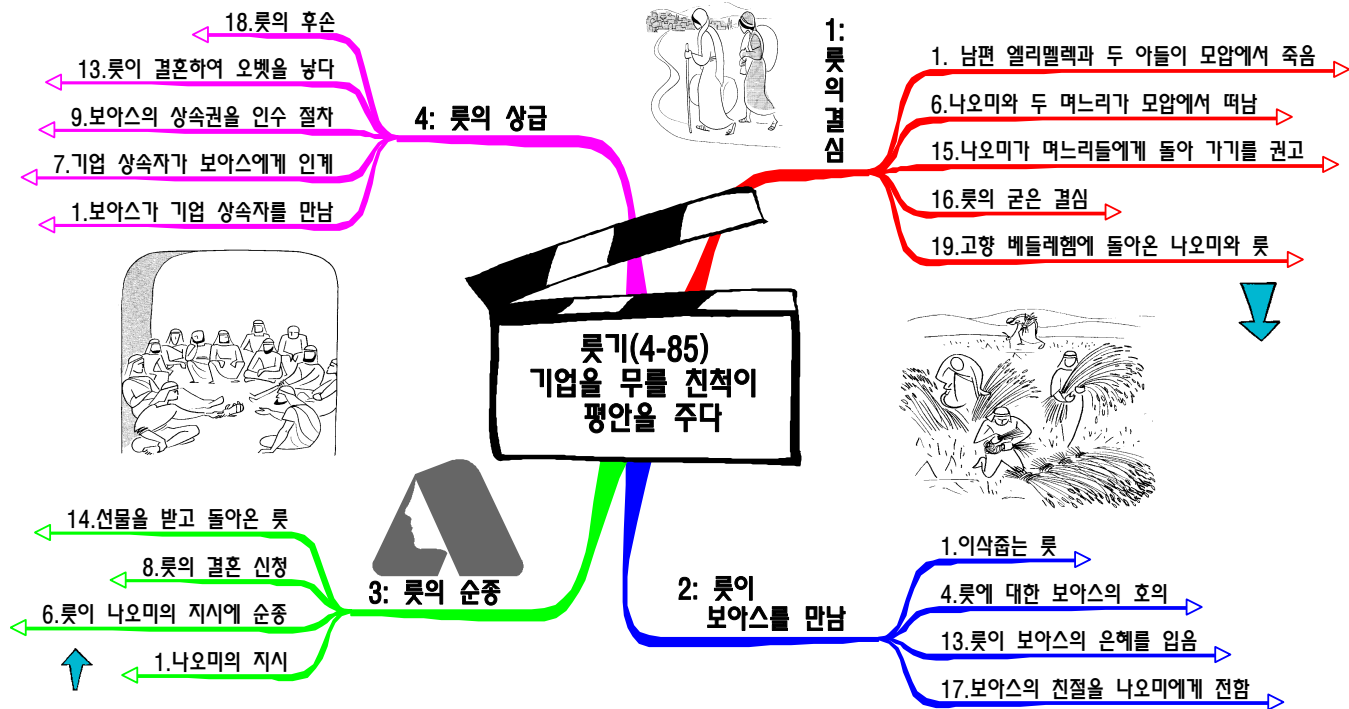
가나안 정탐 후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한 후 31왕을 결산하고 각 지파의 기업과 레위지파의 성읍을 분배하고 동쪽지파 귀환 후 고별사를 한 책이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저버렸을 때 그 대적들 아래서의 비참한 패배와, 부르짖을 때 14명의 사사들을 통해 구원한 역사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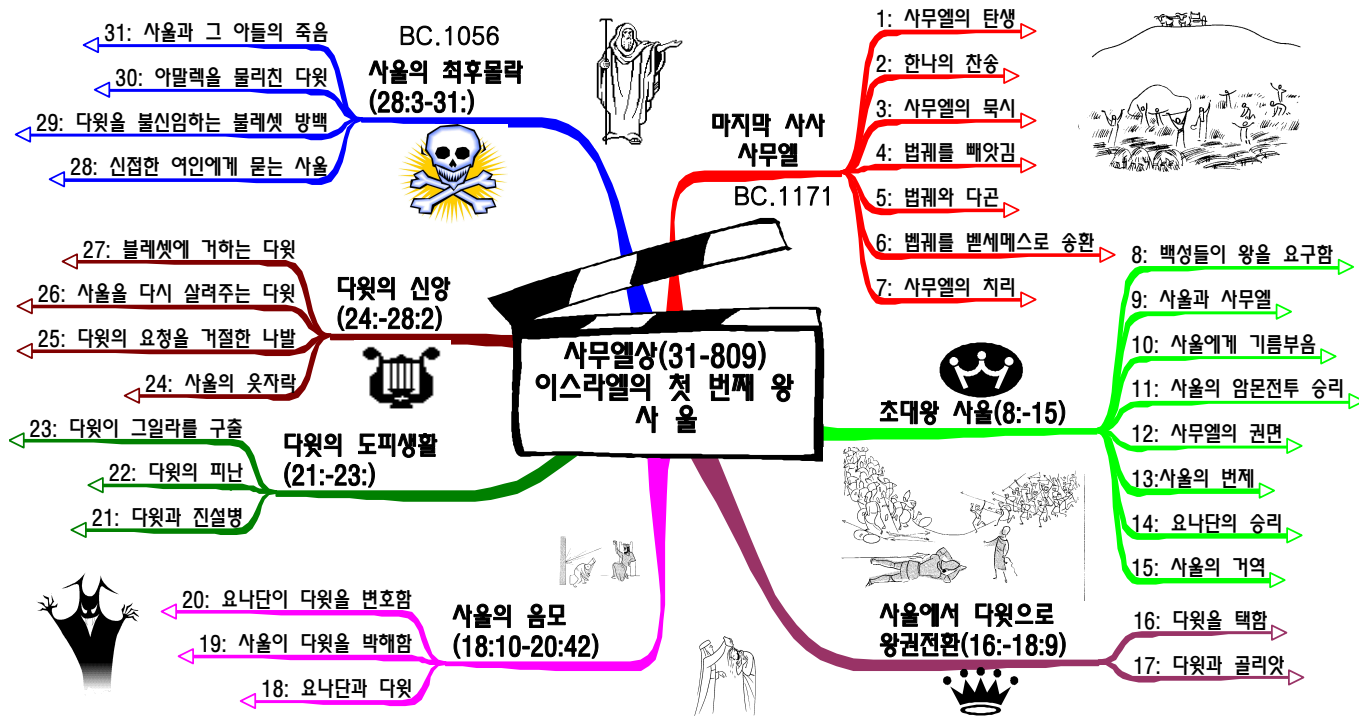
사사기 기억법: 옷나가 예쁜 여자를 삼가 바라보라. 기도의 아비 돌라가 아이 입싼 놈아 열린 입에 있는 돈을 입다물고 손으로 주워라! (옷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아일, 입산, 엘론, 압돈, 입다, 삼손)+알리, 사무엘(14)

룻기 (Ruth)
 기업을 무를 친척이 평안을 주다
 룻기는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이방어인 룻이 그녀를 구해준 보아스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되었으며, 거룩한 기업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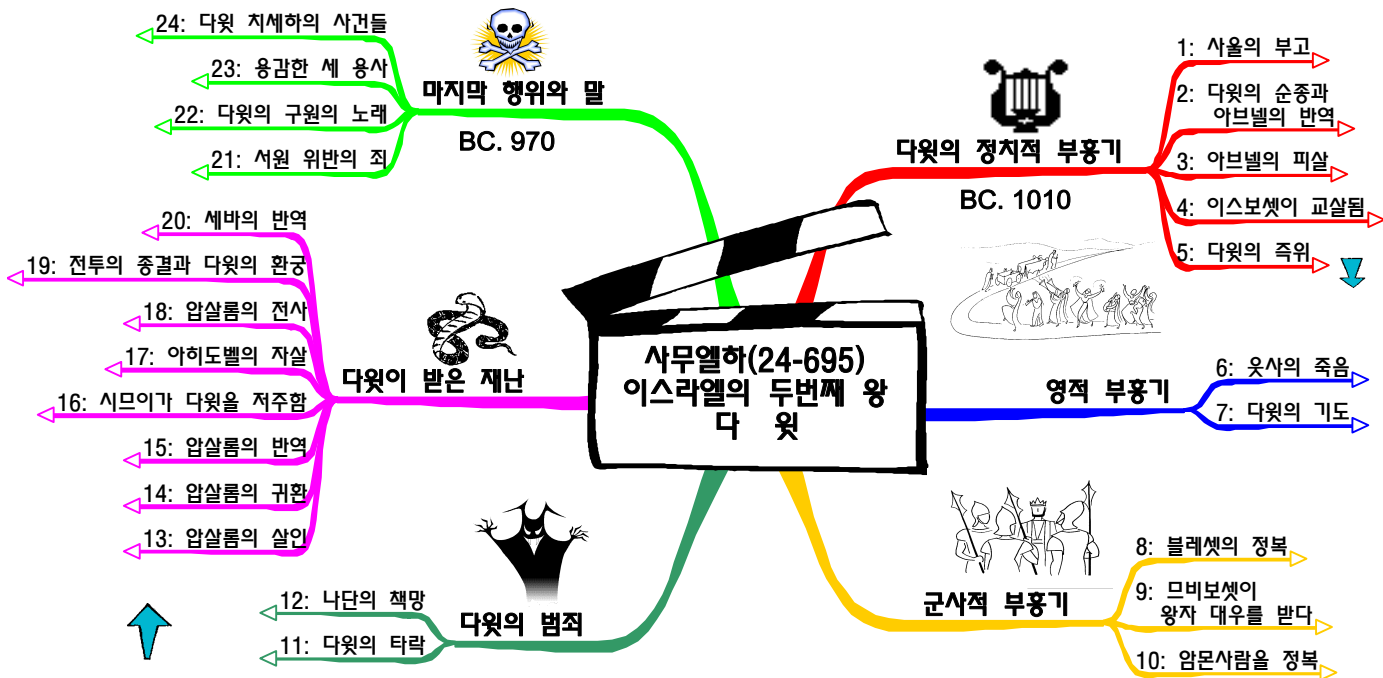
룻기는 룻이 나옴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와 시어머니를 봉양하려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된다.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는데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

사무엘상은 엘리에서부터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의 이스라엘왕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초기 왕정의 역사를 도덕적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하여 부패한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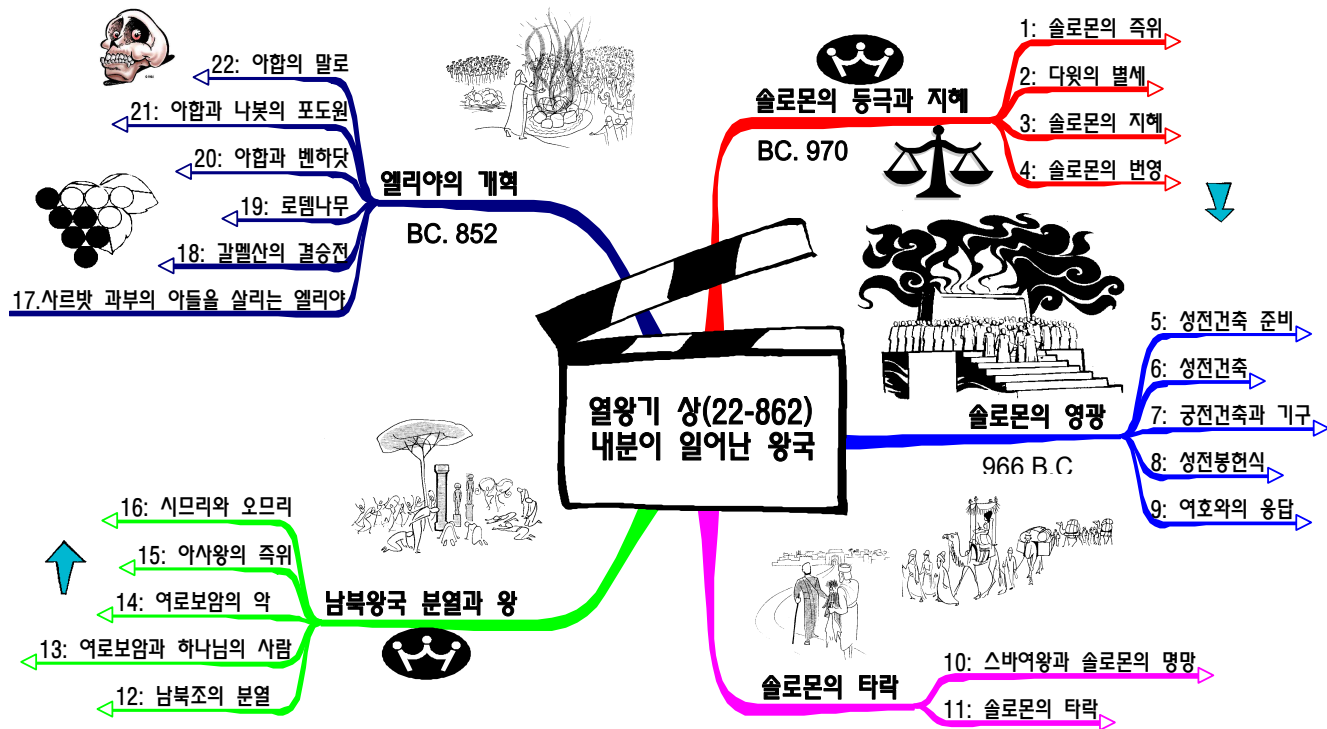
사무엘 탄생이후 왕이 된 사울은 말씀에 거역하여 버림받았으나, 다윗은 기름부음 받은 후 사울의 음모로 도피생활 하였으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 요나단과 함께 죽은 것을 기록하였다.

사무엘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윗에게로 왕권이 옮기는 과정과, 다윗의 즉위에서 말년에 이르는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였는데,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케 하실 약속과,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의 모델로서 묘사하며,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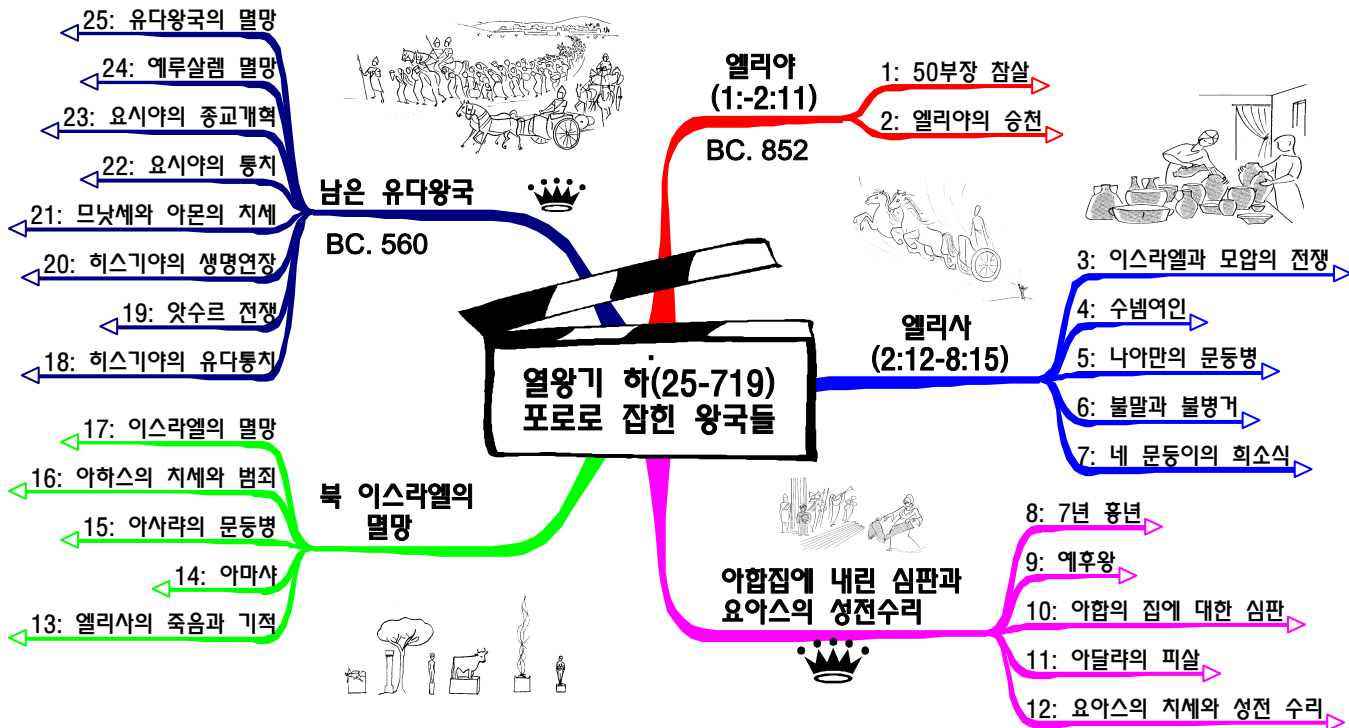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법궤 옮겨오다 웃사가 죽고 성전건축하려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한 후 밋세비를 취하여 책망 받고, 압살롬과 세바가 반역한 후 기브온 핏값 치르고, 인구조사 후 온역을 겪고 회개했다.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친히 이루어 가는 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하여 언약을 지키는 왕과 민족은 축복하시지만은 율법에 불순종 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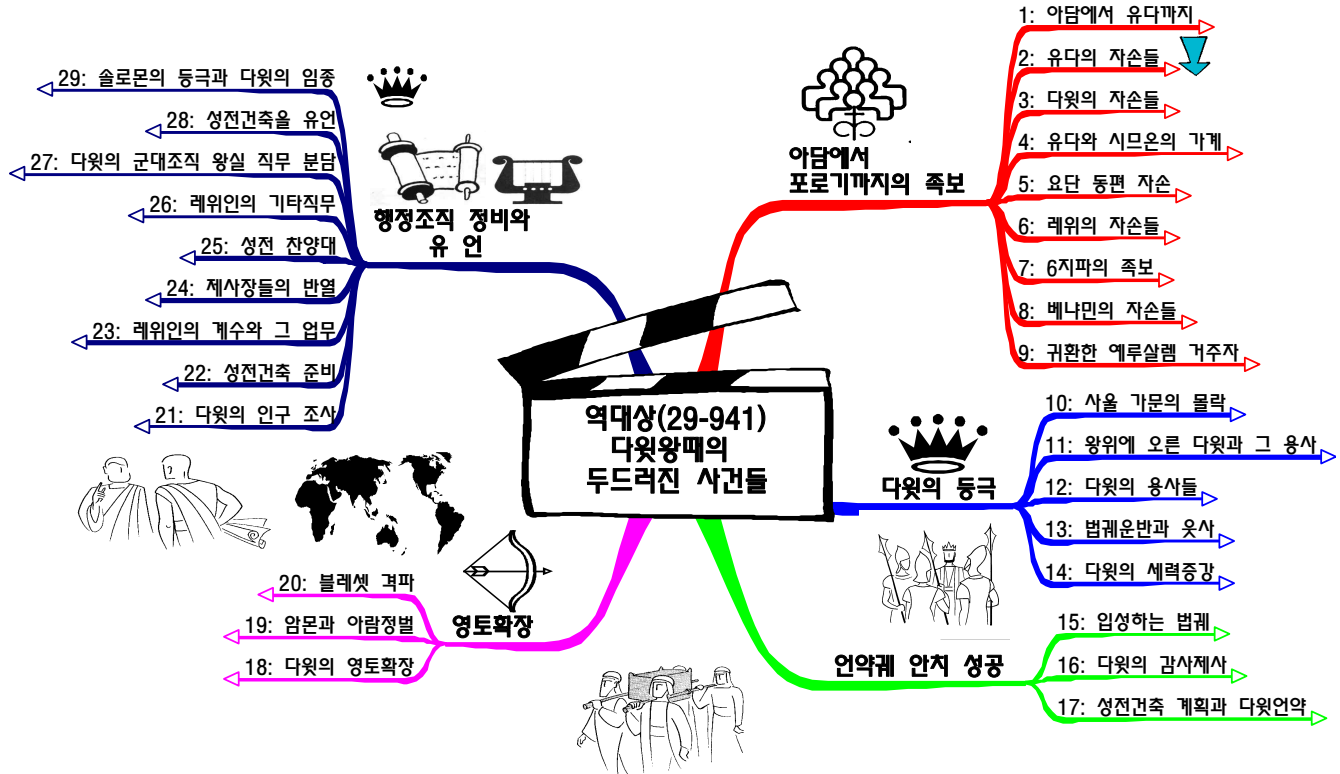
열왕기상은 솔로몬 등극 후 지혜로 재판하고 행정체계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한 후 기도응답을 받았으나 타락으로 남북이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였으며, 엘리아의 경고를 안 듣고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사했다.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진히 이루어 가는 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하여 언약을 지키는 왕과 민족은 축복하시지마는 율법에 불순종 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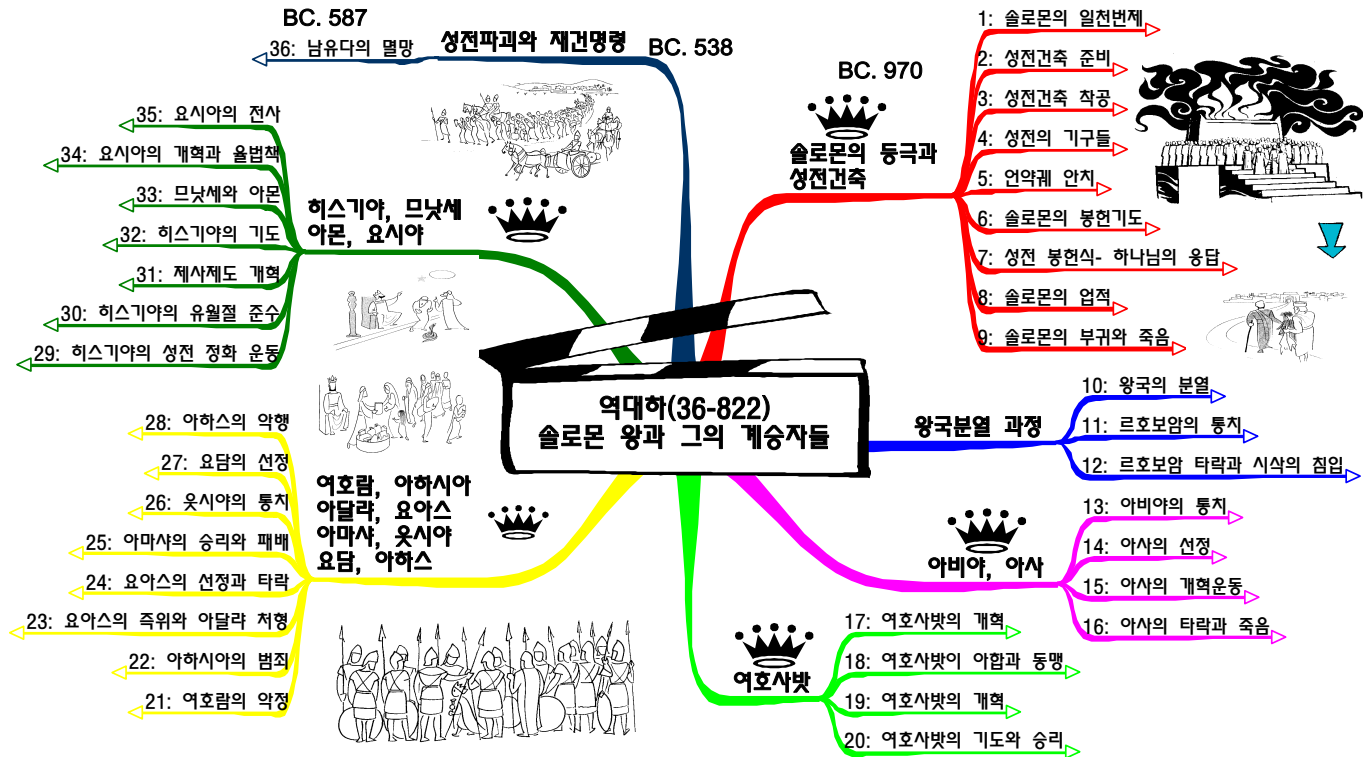


엘리사가 수념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나아만을 치료해 주고 아합군에 포위된 중 회복을 예언한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나 북 이스라엘은 호세아 때 망한다.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회유를 거절하고 생명이 연장되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나 유다는 멸망한다.

역대기는 신앙생활에 실패하여 포로생활하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를 거듭 되새기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합당한 레위인의 직무수행과 성전예배의 회복을 강조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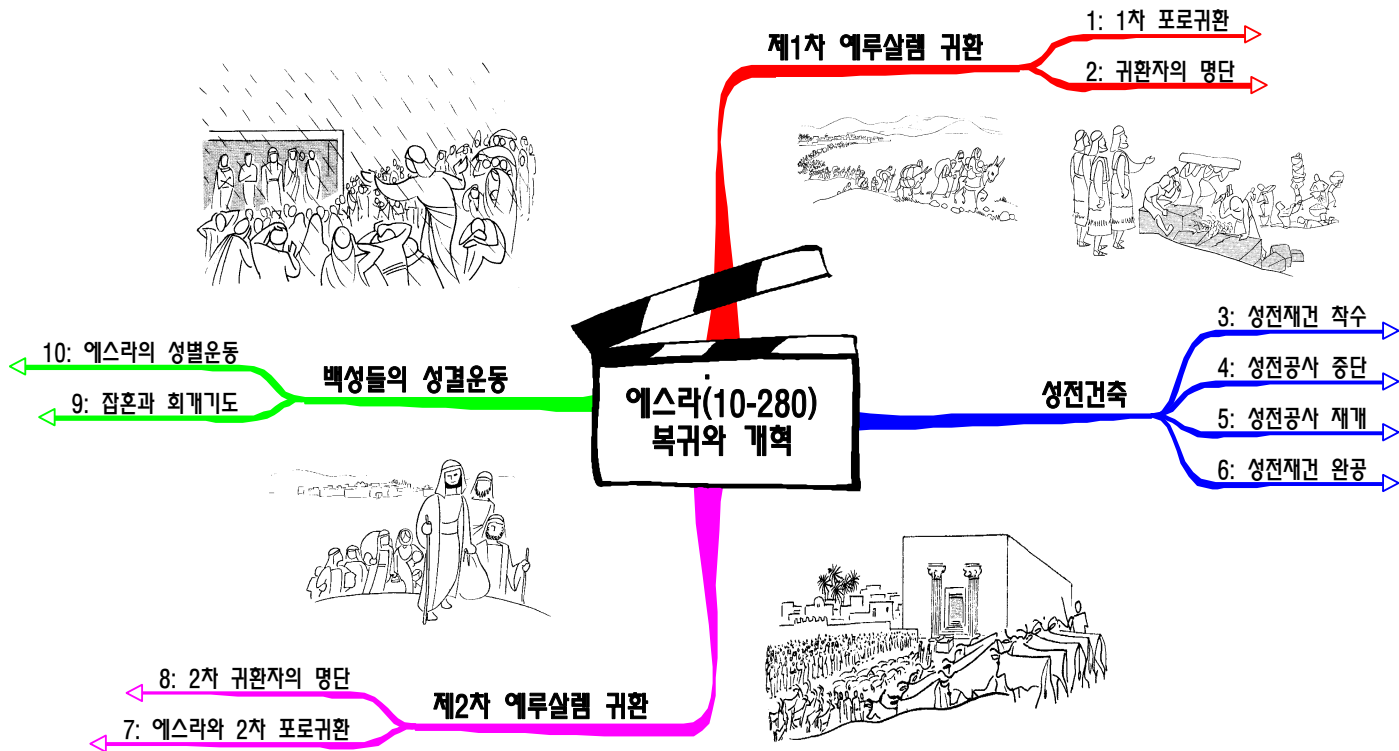


아담부터 포로귀환까지 12지파의 족보를 언급하며, 다윗이 부흥하여 법궤를 안치한 후 영토를 확장하고 인구조사한 후 솔로몬에게 성전건축을 유언한 책이다.



역대하는 솔로몬 등극 후 일천번제로 지혜를 받고 성전을 봉헌한 후 부흥하나 부패하여 왕국이 분열된다. 유다의 통치자들이 선정과 악정을 거듭하는 가운데 시드기야 때 성전이 파괴되고 고레스 때 재건명령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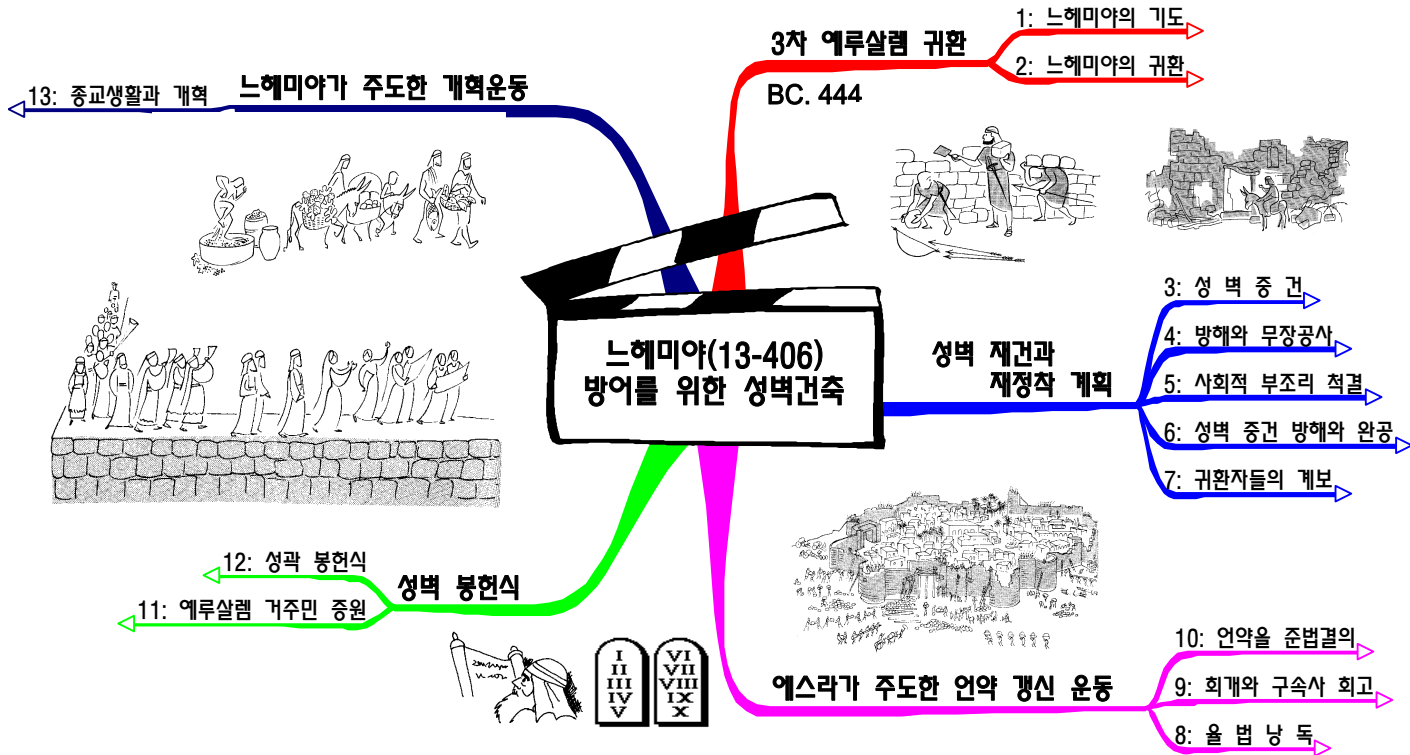
에스라는 토지가 70년의 안식을 누린 후(대하 36:11)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백성의 성전과 신앙생활의 재건을 기록한 책이다.



1차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 후 학자겸 대제사장인 에스라의 주도하에 잡혼을 회개하고 성결운동을 맹세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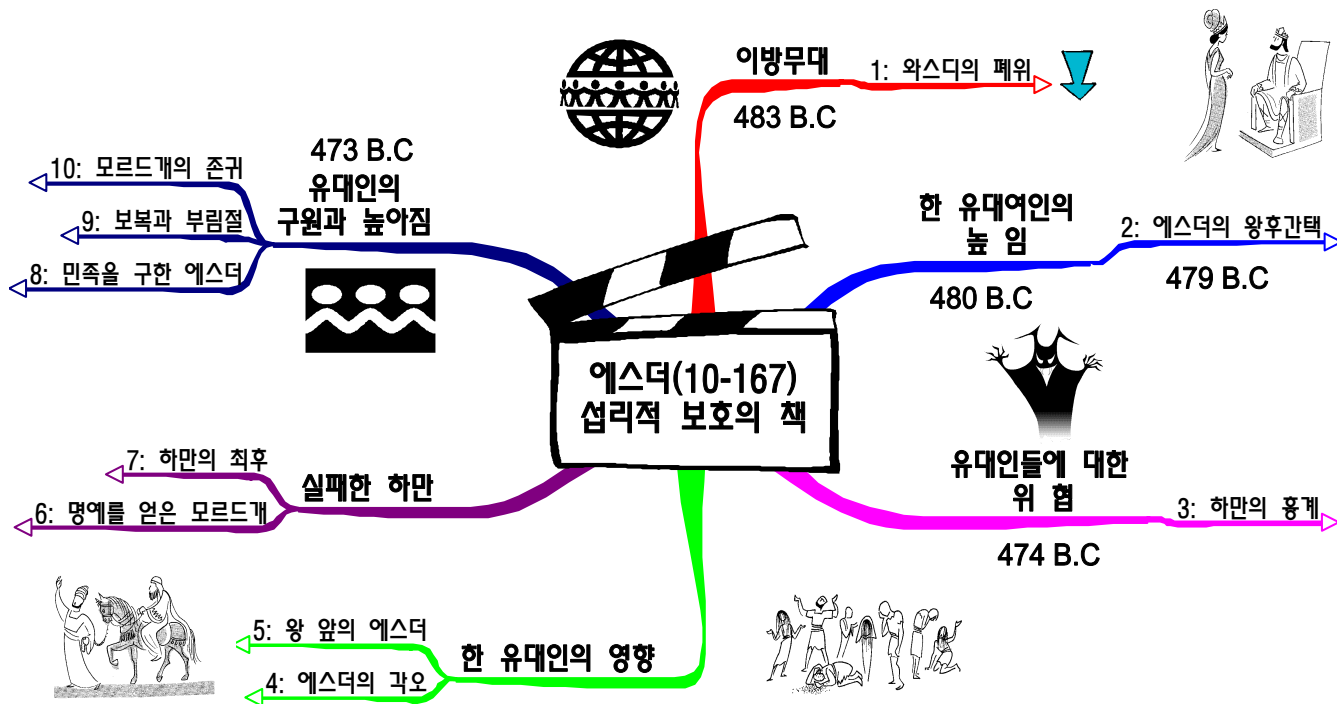
대적의 시험과 공격가운데 위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악습을 타파하고 언약을 갱신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한 책이다

복귀와 개혁 : (Ez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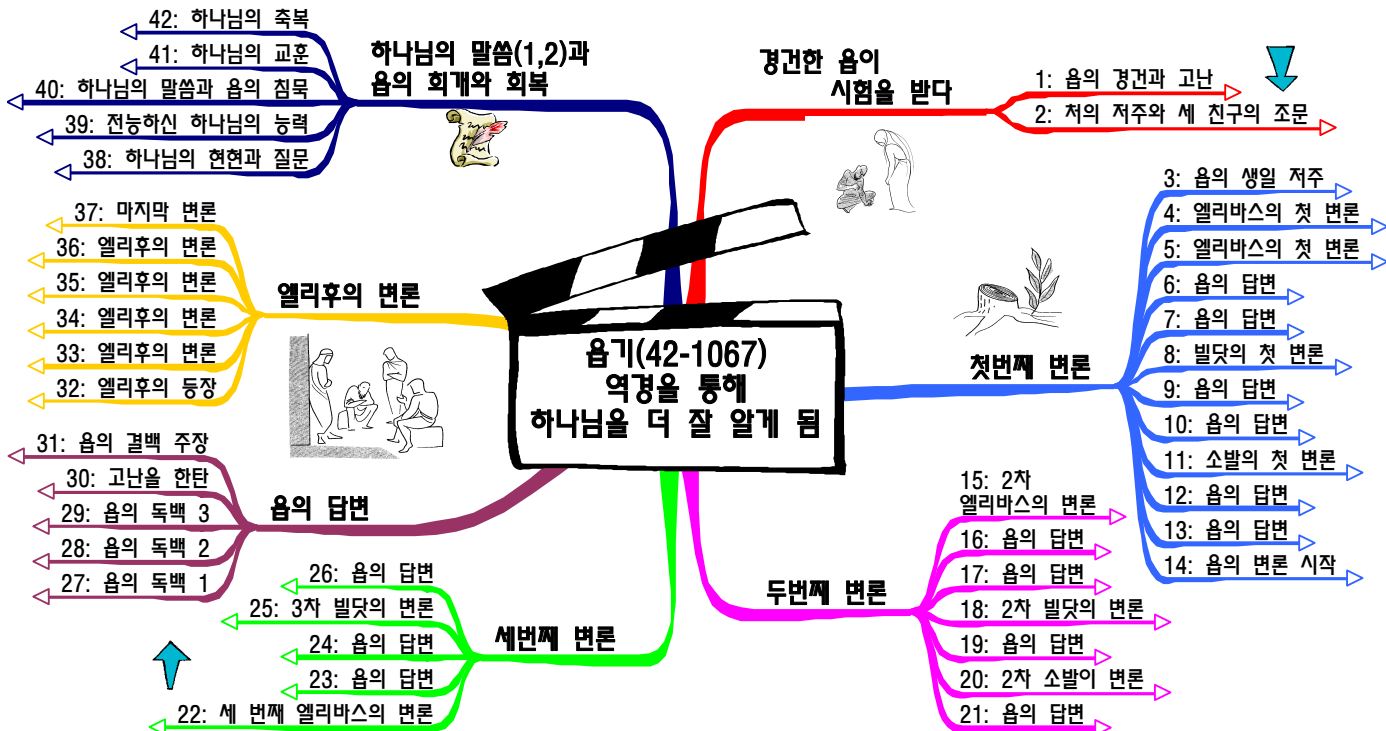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성벽을 재건하고 부조리를 척결한 후, 에스라 주도하에 언약을 갱신하고 성곽을 봉헌하며 종교생활을 개혁한 책이다.

에스더서는 포로로 잡혀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에서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은밀히 돌보시고 극적으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야래 있음을 가르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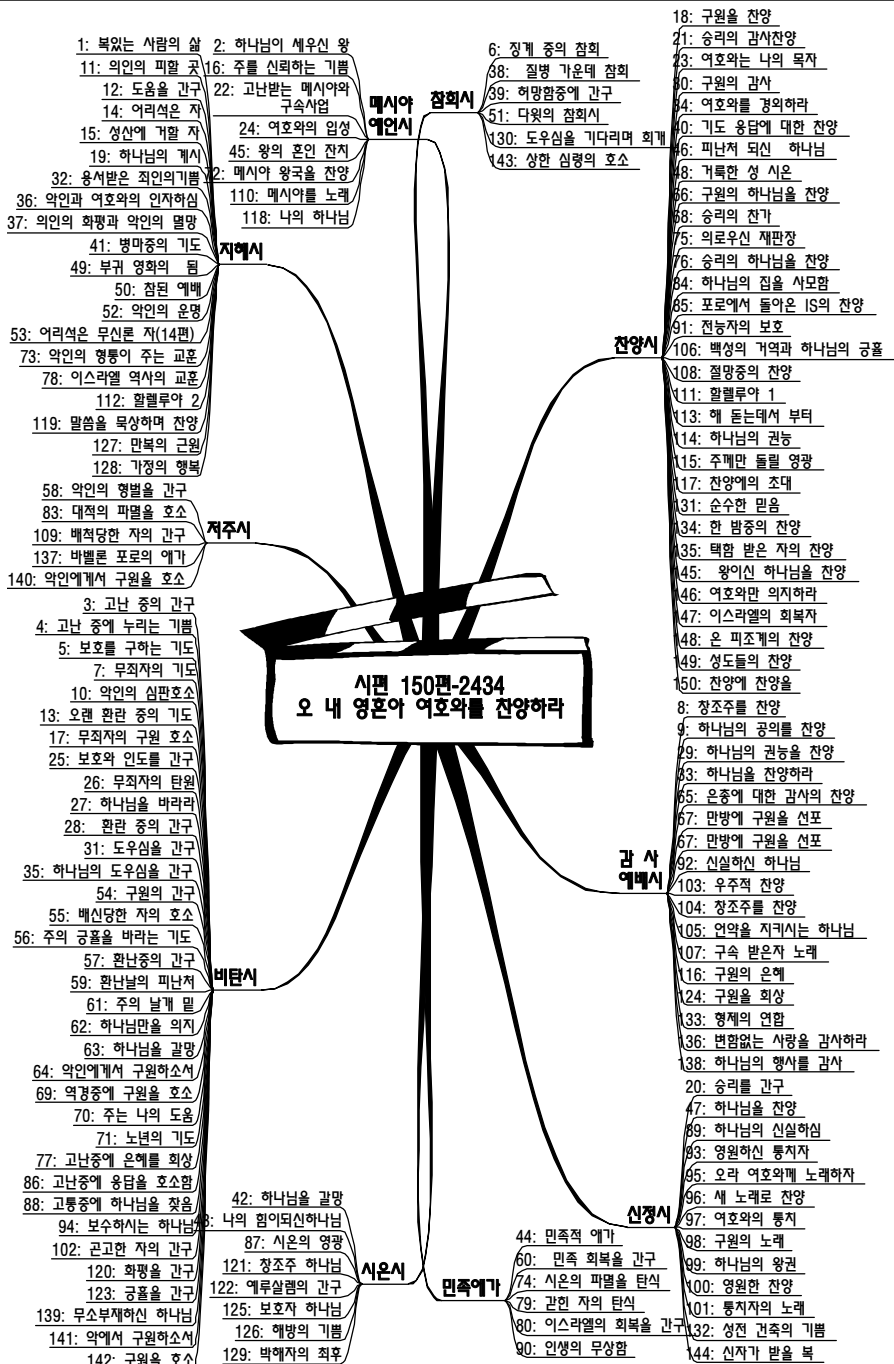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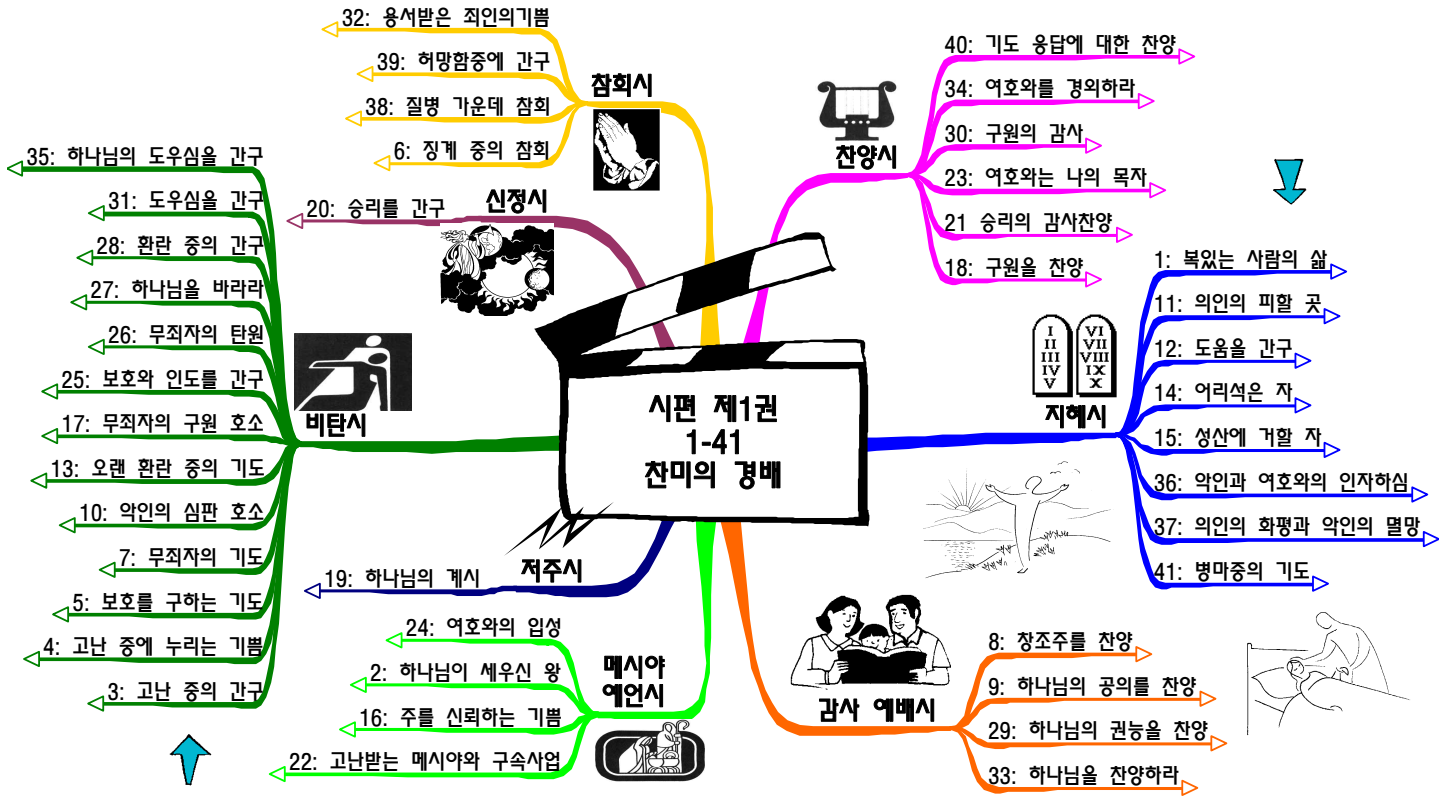
에스더는 왕후간택 후 하만의 흉계로 민족이 위기에 처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여, 모르드개 대신 하만이 죽고,
유대인은 원수를 물리친 날을 부림절로 기념하며, 모르드개는 존귀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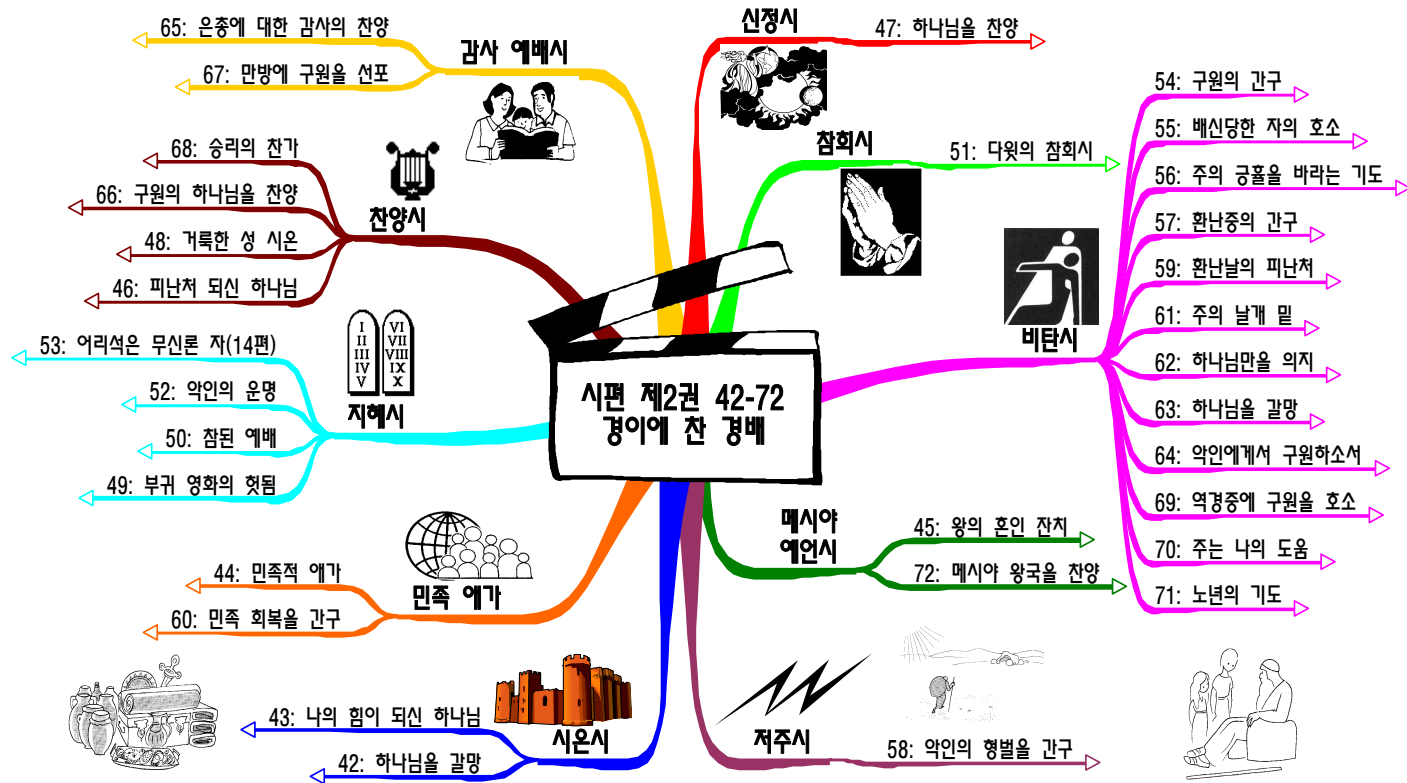
욥기는 신앙을 가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인간의 자혜라는 것을 가르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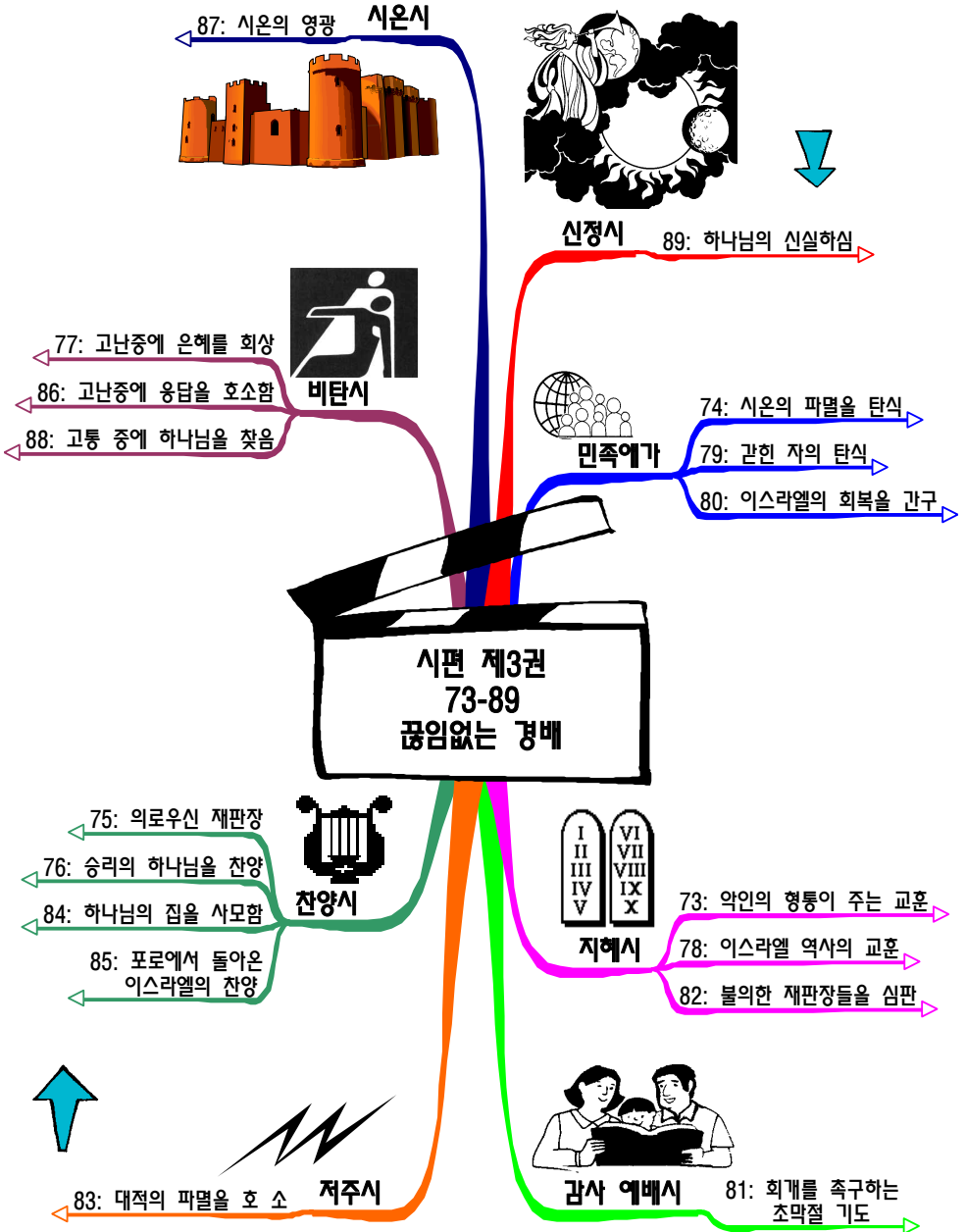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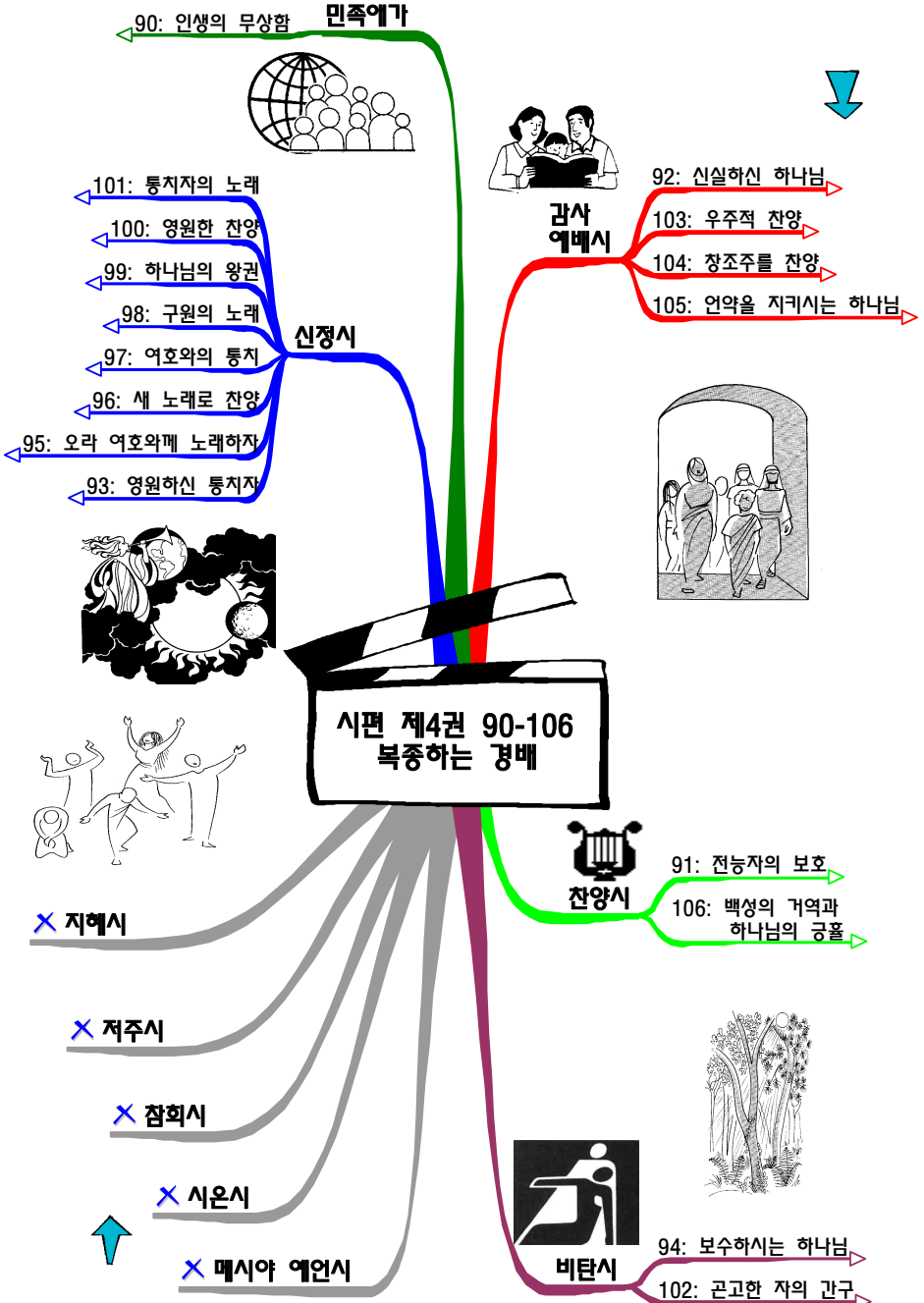
욥이 시험중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3차 변론 후 자신의 고난을 한탄하며 결백을 주장하나, 엘리후가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욥이 회개하고 두 배로 회복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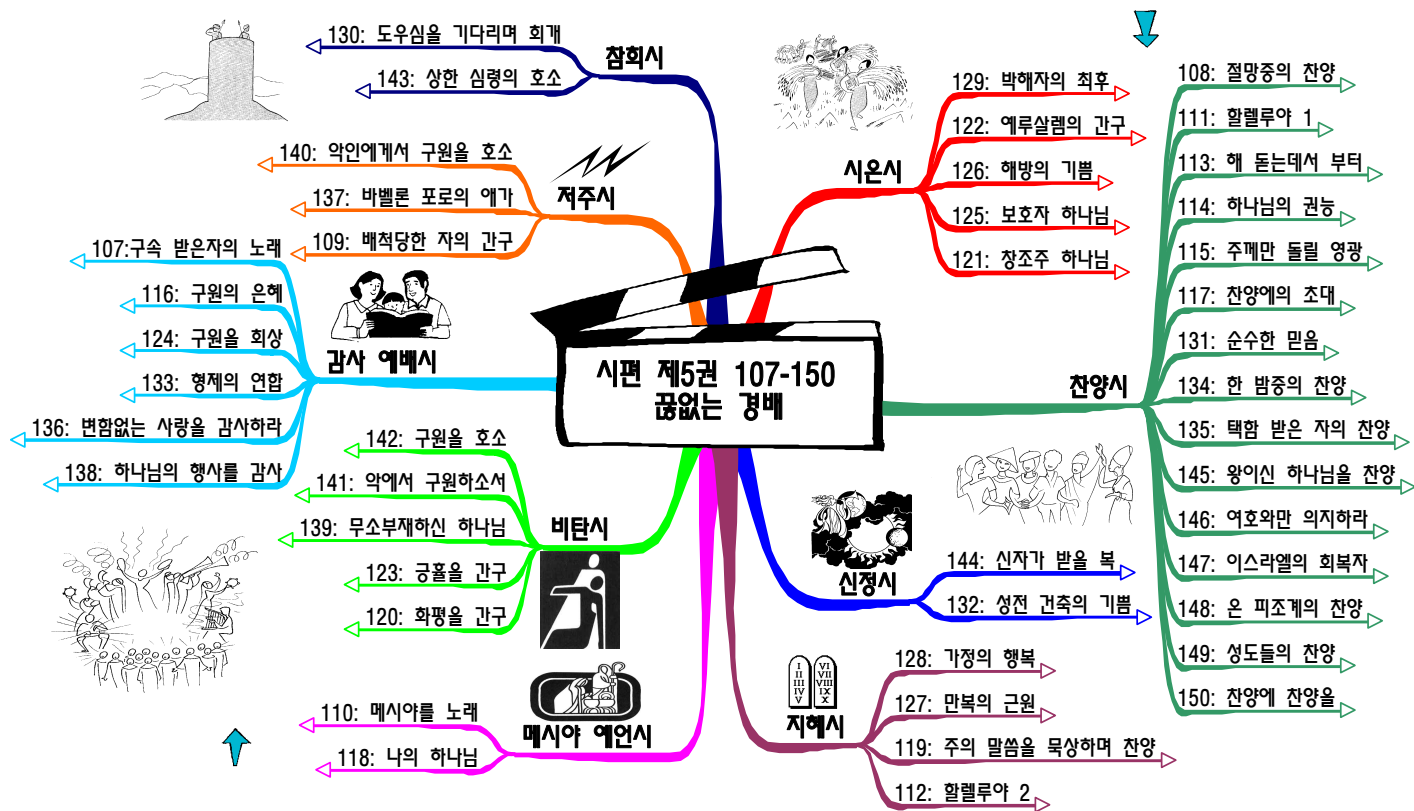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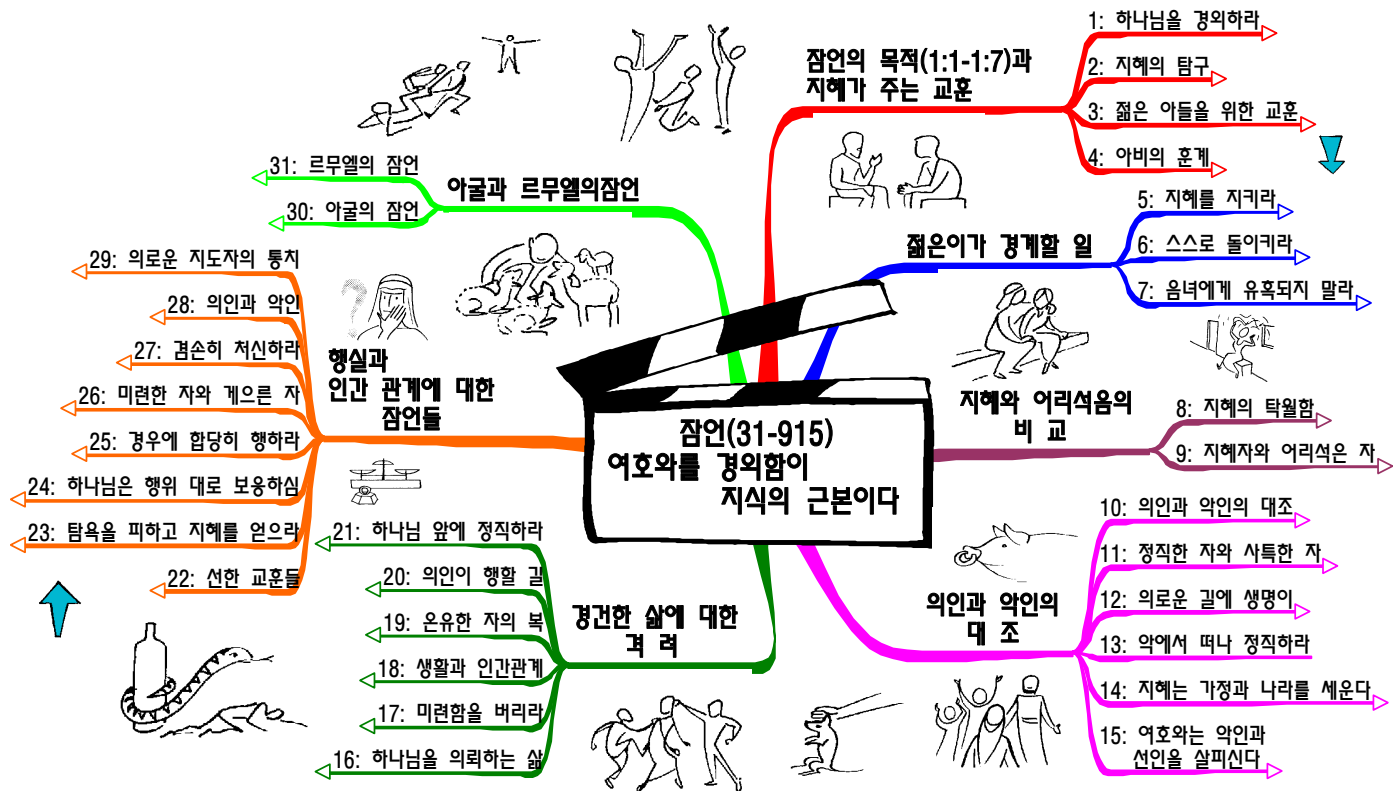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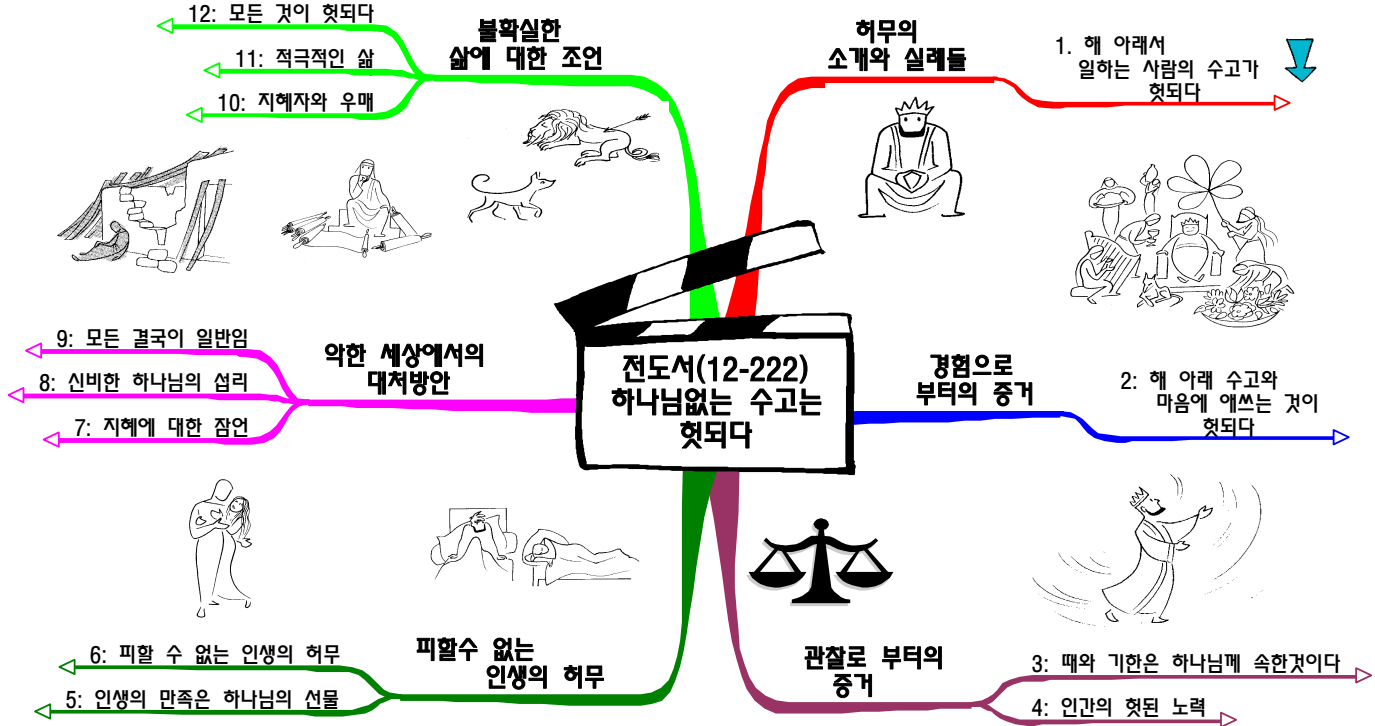


잠언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도덕적 윤리적 원리들에 대한 교훈들을 통해 가르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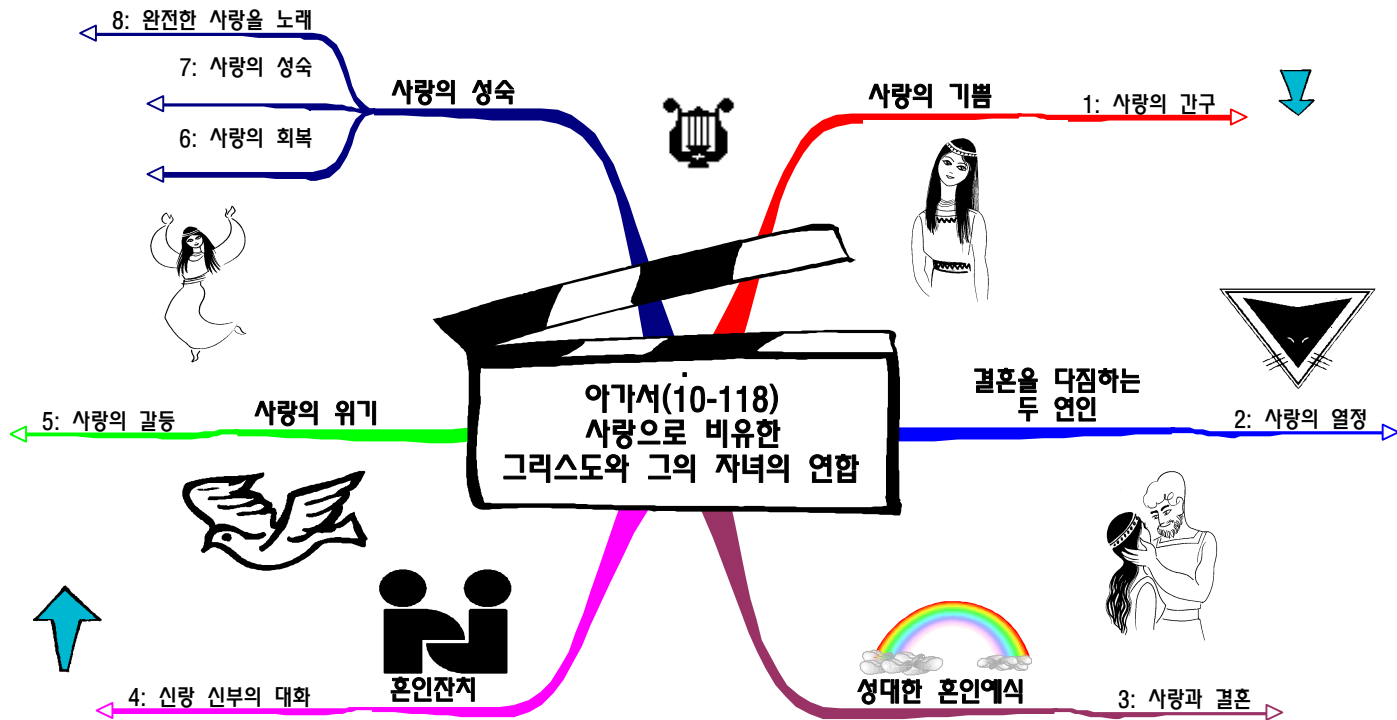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혜에 대한 교훈과 젊은이가 경계할 일,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경건한 삶을 격려하고 있다. 행실과 인간관계,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 기록되었다.

세속적인 모든 목표나 축복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불만족과 허무를 가져오며,
인생의 최고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임을 교훈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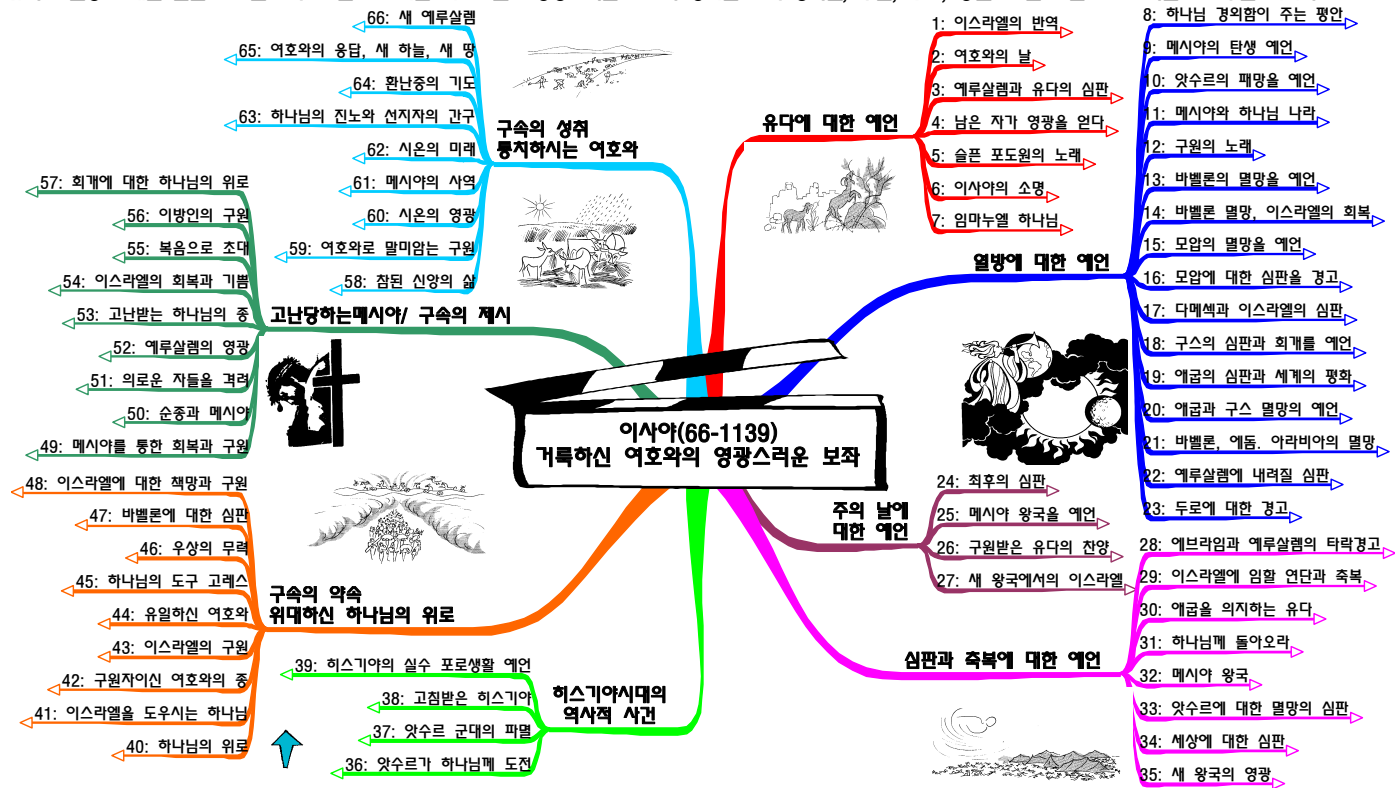
전도서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기한을 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헛되고 허무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즐거워하며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 수고하며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친 책이다.

아가서는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최고의 노래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깨달아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교훈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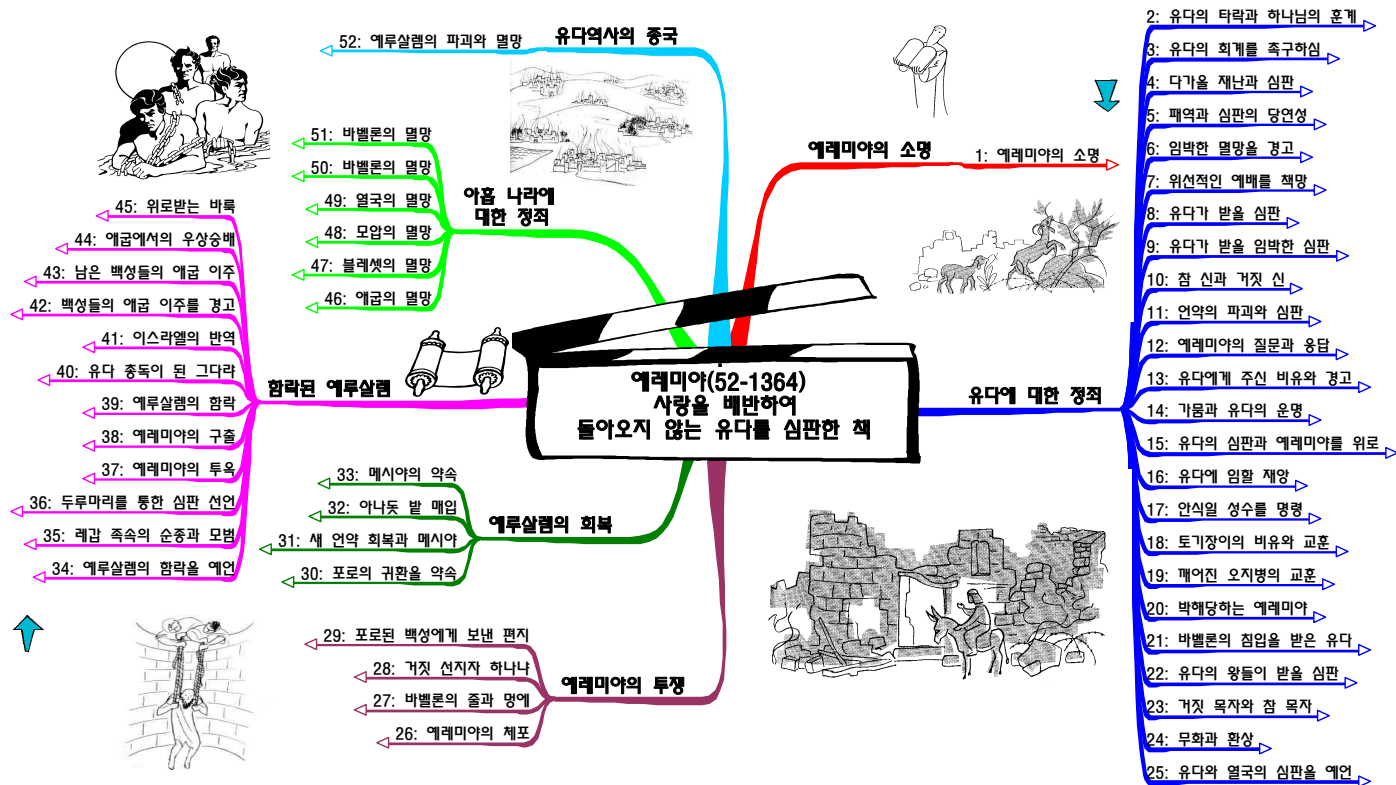
사람의 기쁨으로 두 연인이 결혼을 성대하게 치른 후 서로 화답한다. 꿈을 통해 보여진 시련에 갈등하다가
서로 만나 사랑이 회복되어 더욱 성숙해 지고 신부는 완전한 사랑을 소원하고 노래한다.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주의 날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그려 성육신, 수난, 부활, 승천하시는 고난의 메시아를 보여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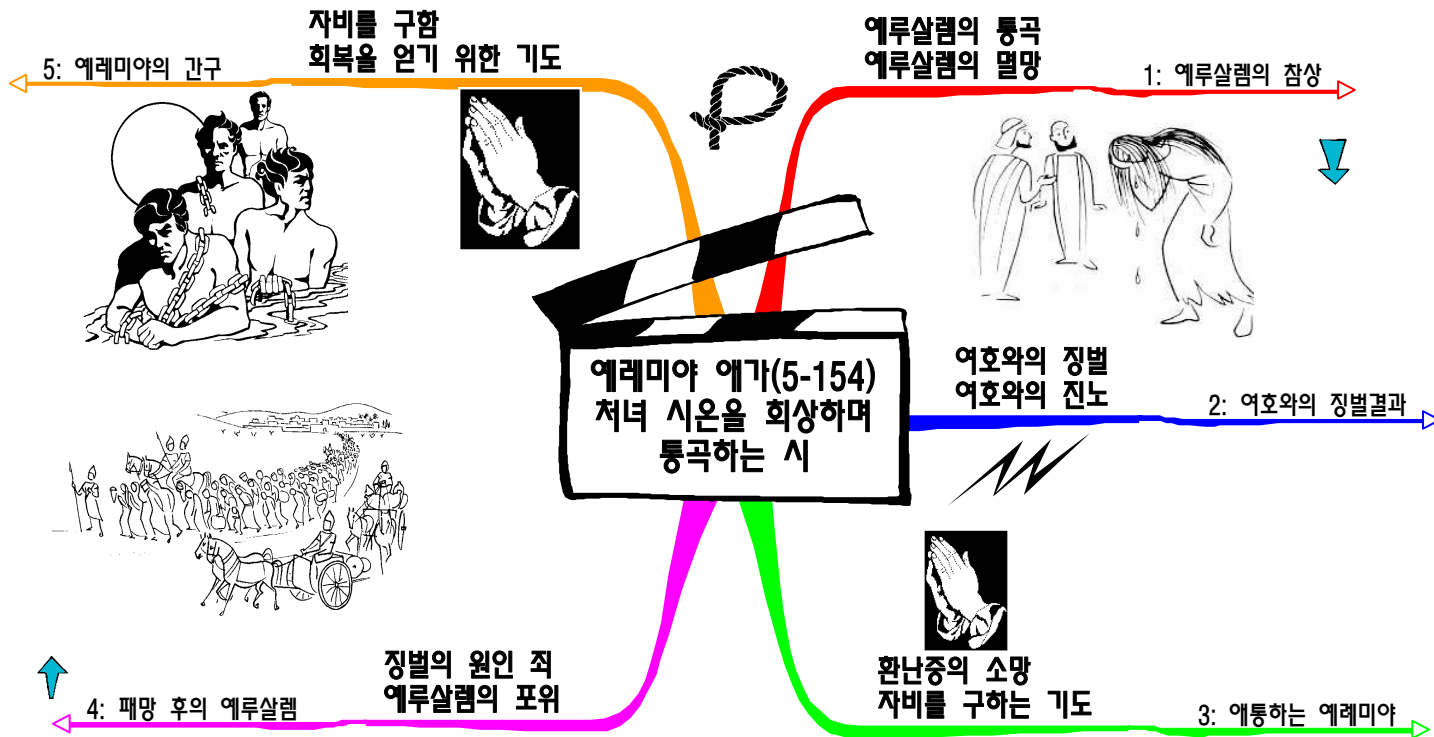
유다와 이방나라와 주의 날에 대한 예언과 히스기야 때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하며, 구원의 약속과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성취로 장차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것을 예언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됨을 확실하게 예언하여 마지막 경고를 발하며 미래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함으로써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고자 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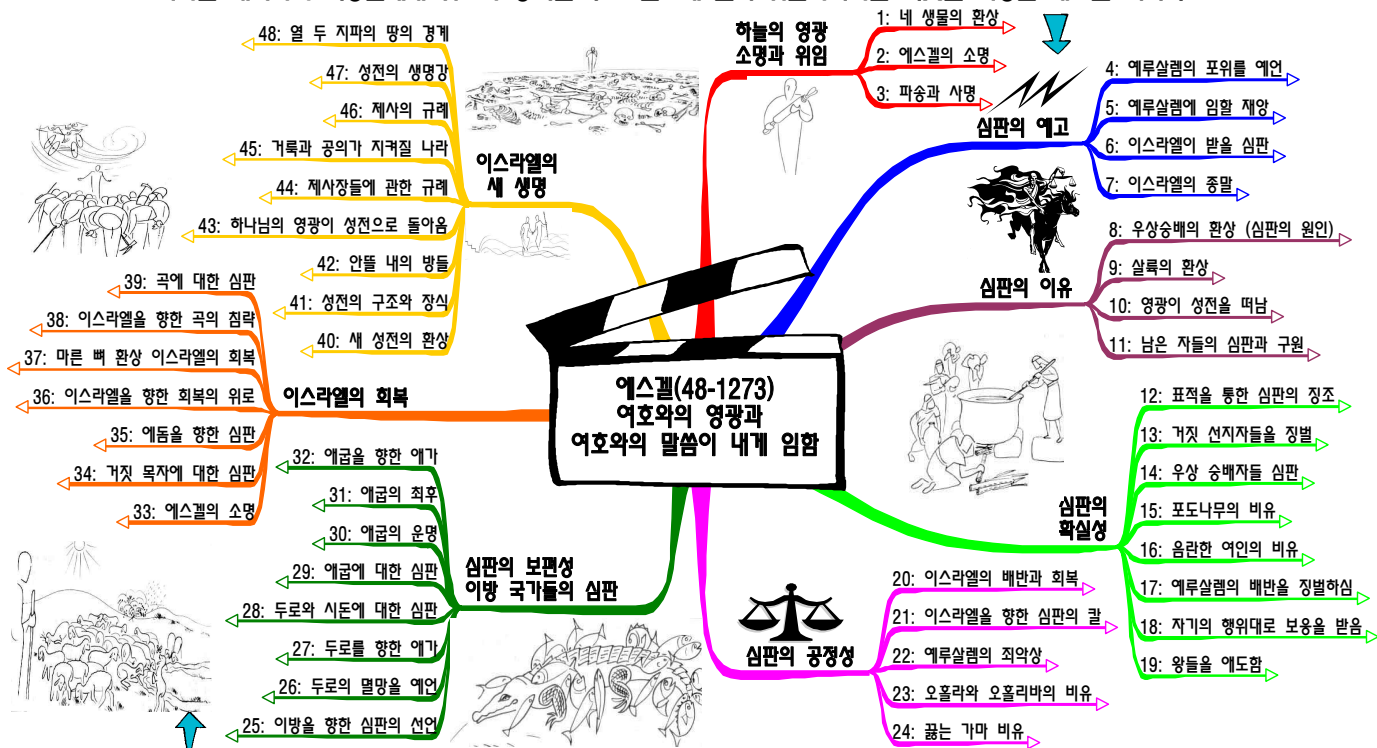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징적과 포로 될 것을 예언하다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미래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나 지금은 함락될 것과, 이웃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후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며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과 그 백성 대하여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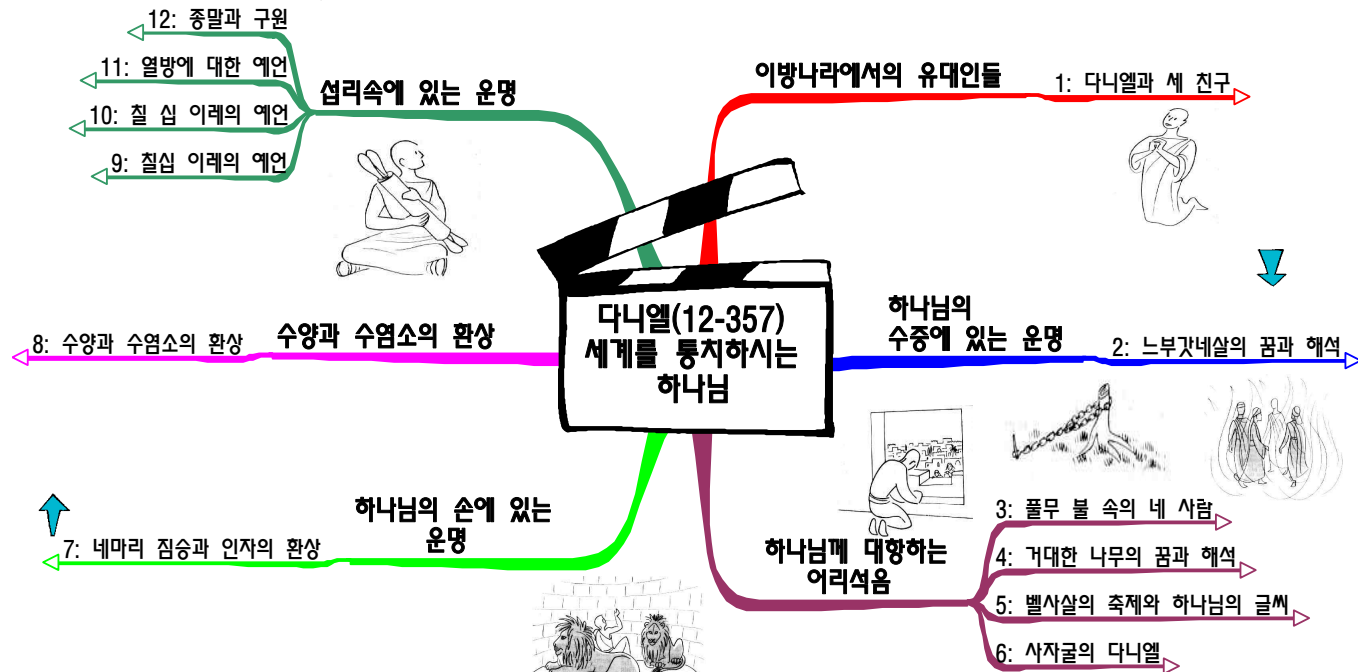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고 애곡하며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기도로 자비를 구하며 죄악들을 열거하고 기도로 회복을 간구한 책이다.

회개지 않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됨을 확실하게 예언하여 마지막 경고를 발하며 미래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함으로써 회복을 계사하여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본토에 일찍 귀환하리라는 거짓된 희망을 깨뜨린 책이다.



에스겔을 불러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며 파수군 삼으시고 대언케 하시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심판의 원인을 니열하며 예루살렘의 함락을 상징과 설교로 경고한다.

이방 국가들의 심판을 예고한 후,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환상을 통해 새 생명 얻게 될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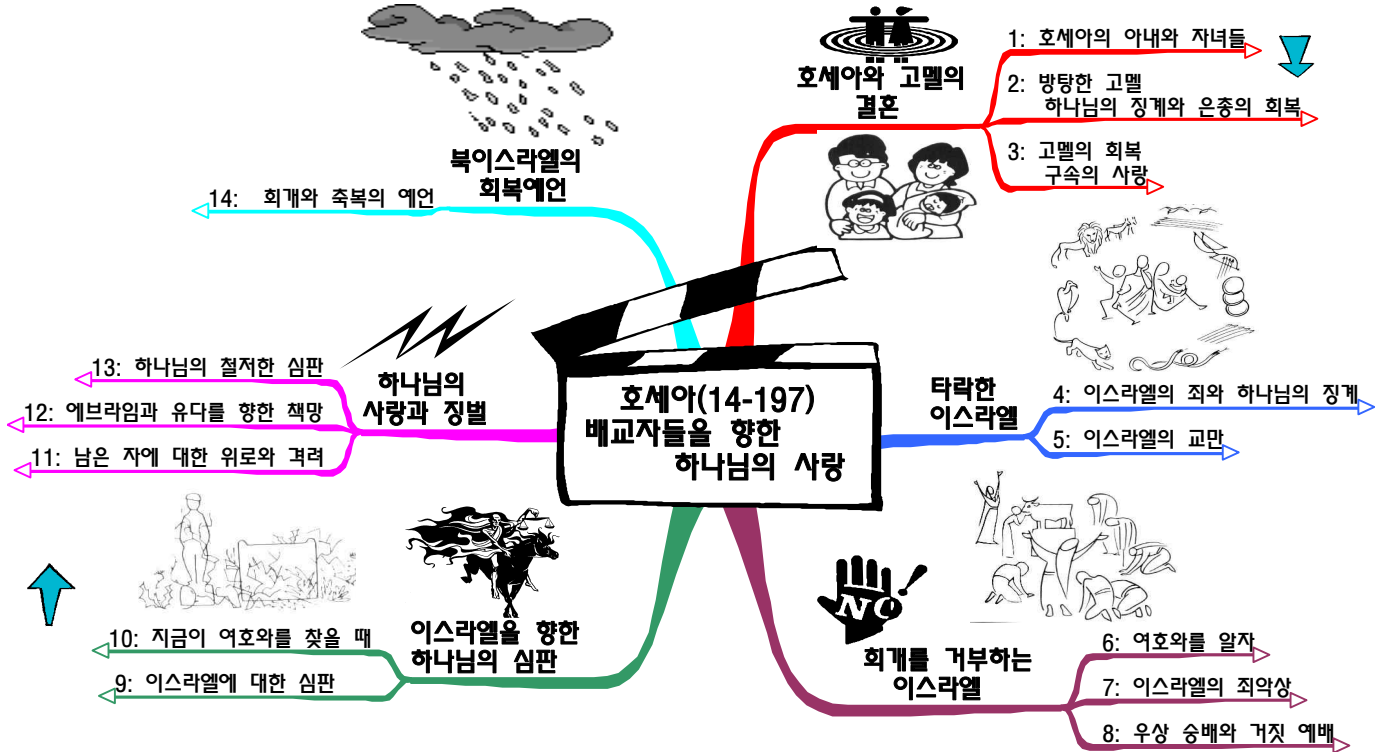
다니엘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위의 모든 인간 정부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셔서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가 회복될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한 책이다.

여섯 가지 사건과 네 가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에 되어 질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여섯 가지 사건 : 신양적 절개, 혼란된 우상, 풀무불, 큰 나무 꿈, 벽에 쓰인 글씨, 사자굴

네 가지 환상 : 네 짐승, 인자, 수 양과 수 염소, 히테겔 강의 이상. (네 짐승을 잡은 후 인자가 수염을 뽑아 히테겔 강에 버렸다)

호세아서는 정신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 위에 세워진 번영과 부흥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과, 남은 자에 대한 소망과 북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



호세아가 방탕한 고멜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듯 회개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기록하고 있다.

요엘은 심판의 날로 상징되는 여호와와 날이 오면 메뚜기 재앙으로 상징되는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항패하게 될 것과 회복의 날이 오면 열국은 심판 받고 유다는 영원히 설 것임을 예언한 책이다.



1: 메뚜기 재앙



1. 요엘에게 임한 말씀

2. 메뚜기 재앙

5.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폐허

13. 폐허가 된 이후 제사장들이 할 일

15.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참상

요엘(3-73) 여호와와 날



2: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1.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황폐

12. 진정한 회개를 촉구

18. 회개할 때 받을 축복

28. 준비된 여호와와 날

3: 약속과 구원의 성취

18. 유다의 영원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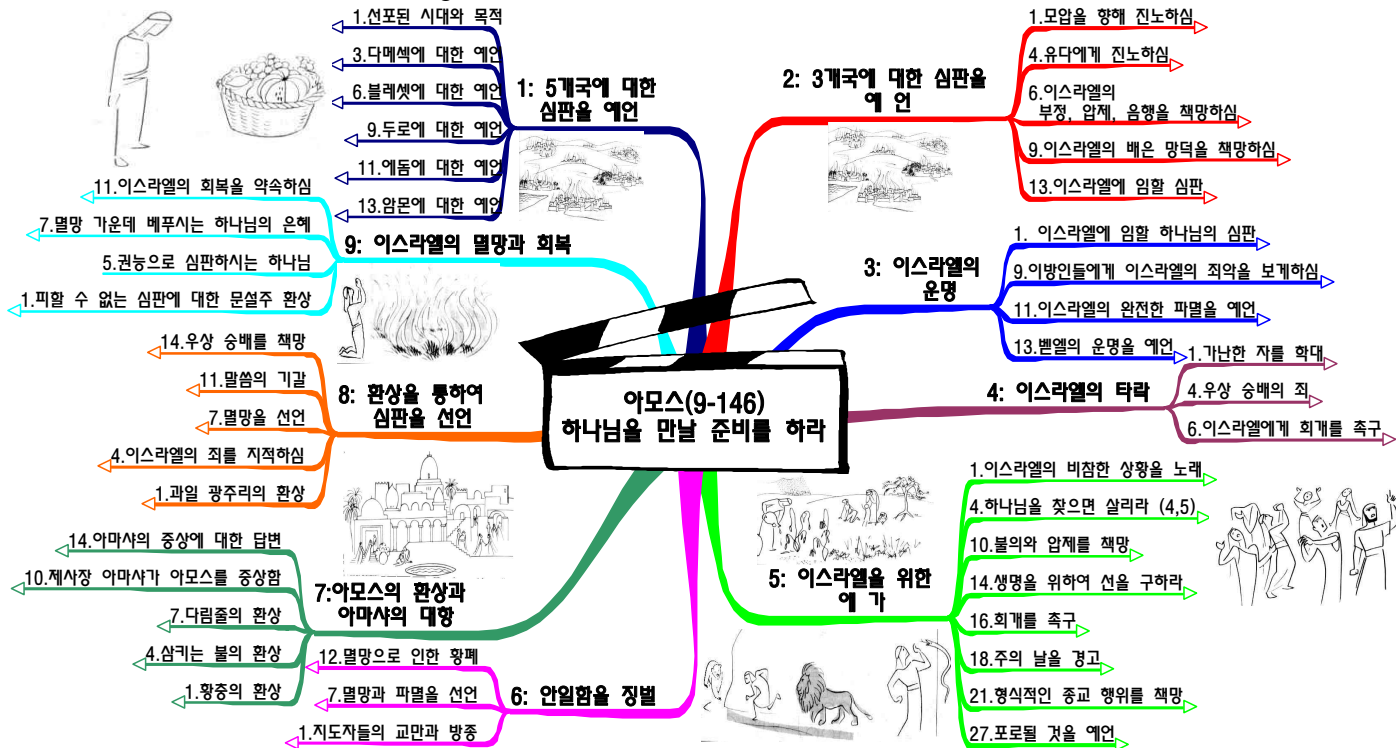
14. 여호와와 날 = 심판의 날

9. 심판의 형편

1. 열국에 대한 여호와와 날의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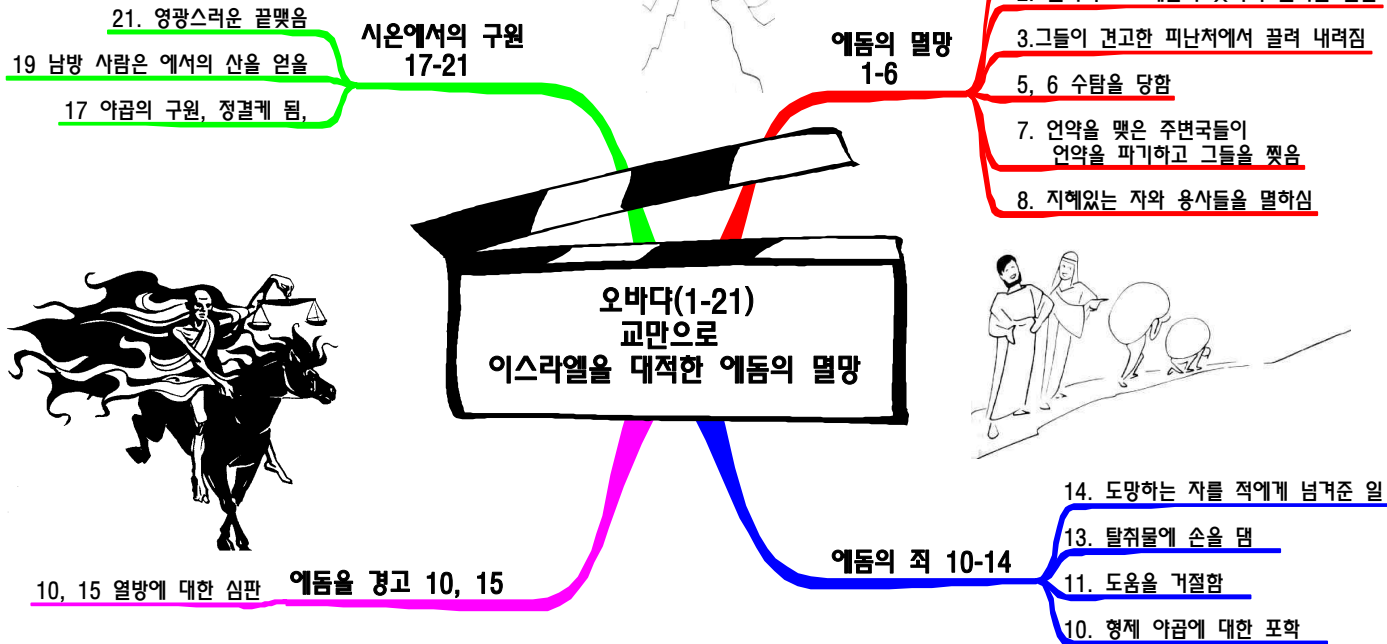
요엘서는 심판하는 여호와와 날이 임박했으니 모든 백성은 회개하고 순종하면 땅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며 대적들을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거룩해질 것을 예언한 책이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간절한 기도가 없으며 타성적인 예배로 종교생활이 무의미해 진 북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진노 가운데 공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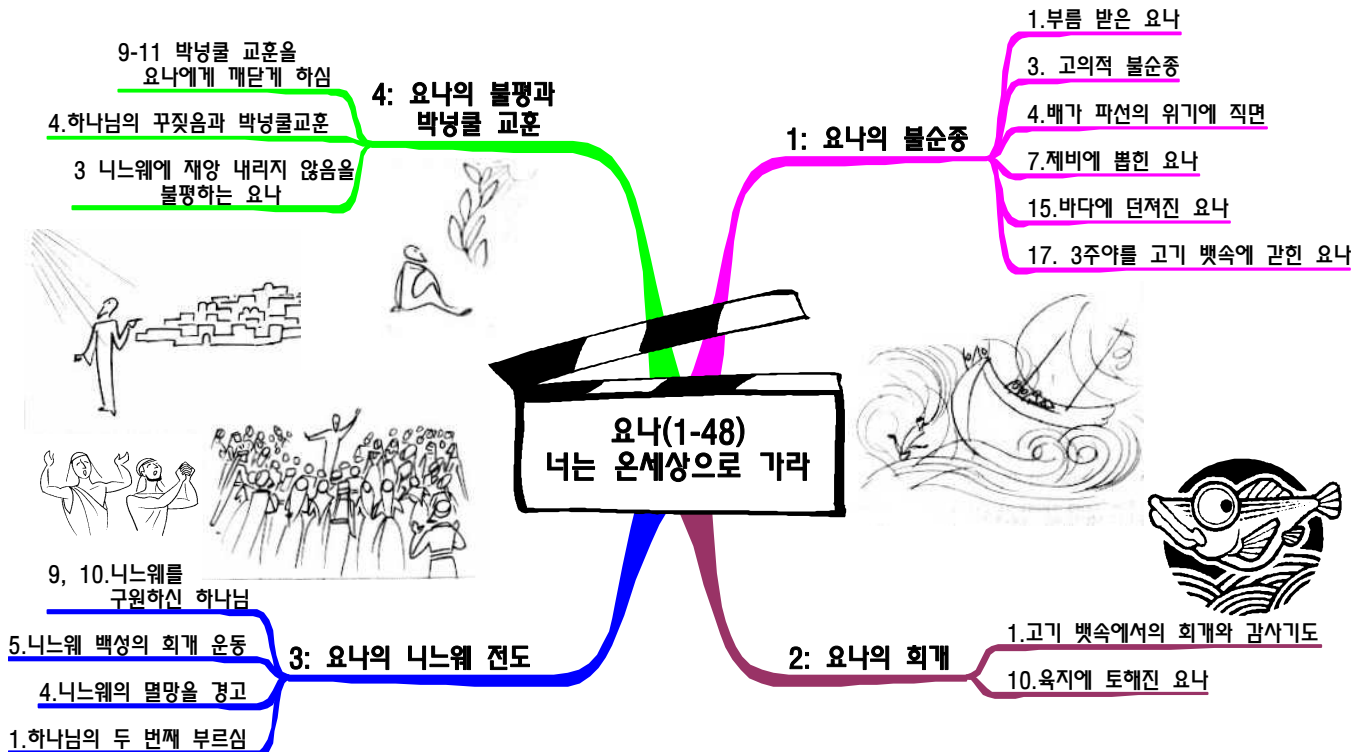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고하며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한 책이다

오바다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 및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여 예루살렘 약탈에 가담한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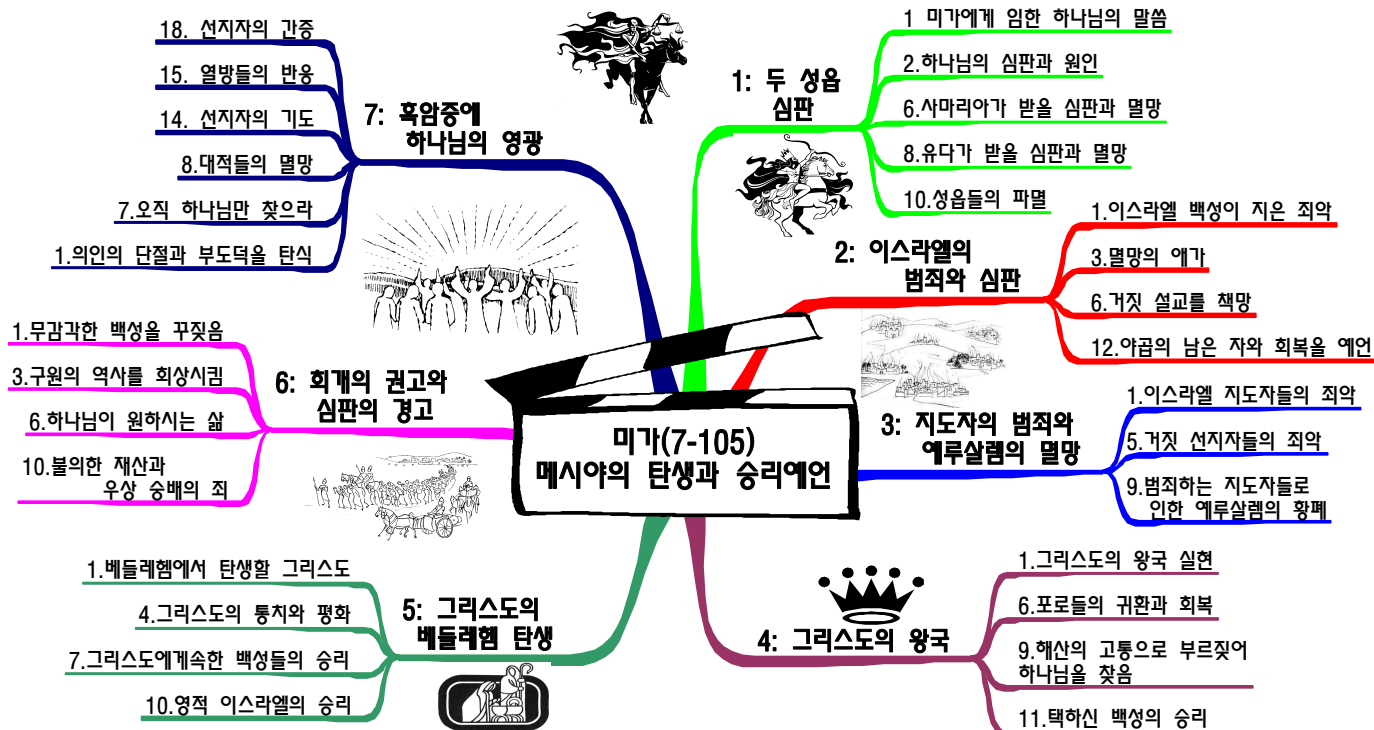
에돔이 형제 야곱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 패망을 기뻐하며 탈취물에 손을 대고 도망치는 자를 잡아서 적에게 넘겨주는 등, 그 포악함 때문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유다 백성의 교만한 선민의식과 배타적 애국주의를 꾸짖으시며,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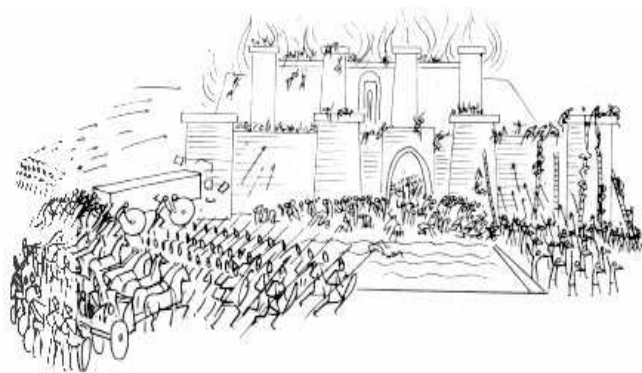
요나는 다시스로 가다 풍랑 만나 심일 밤낮을 물고기 배속에서 회개하여 토해진 후,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예고한 바, 뜻밖에 회개해서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되자 분노하며 죽기까지 가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박 영쿨을 통해 교훈을 준 책이다.

미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냉랭한 종교의식과 부자들의 탐욕과 지도자들의 횡포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왕국의 실현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삶으로 살게 하신 책이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심판 받을 것은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 때문인데 말일 왕국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한 책이다.

나훔은 주전 713년경에 히스기야 왕 14년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 유다가 앗수르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큰 성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여 유다를 위로하고자 한 책이다.



1:니느웨에 대한 경고

1.니느웨를 경고하는 나훔의 예언

2.하나님의 성품

9.유다에게는 구원을
니느웨에게는 멸망을 예언

15.구원의 선포



나훔(3-47) 화있을 진저 니느웨여!

11.니느웨의 황폐

8.에굽처럼 멸망할 니느웨

1.죄로인한 니느웨의 심판

3:니느웨의 황폐

2:니느웨의 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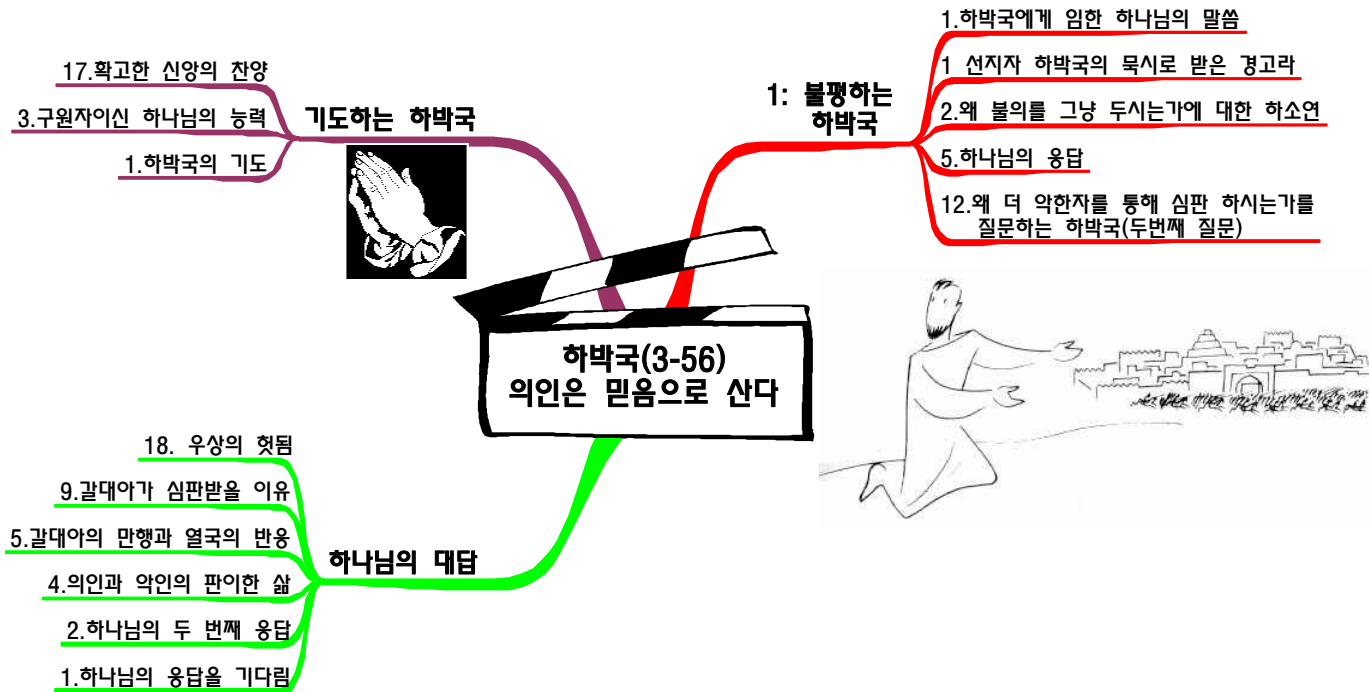
1.유다의 회복과
니느웨를 정복하기 위해
달려오는 군대

6.약탈당하는 니느웨 성

11.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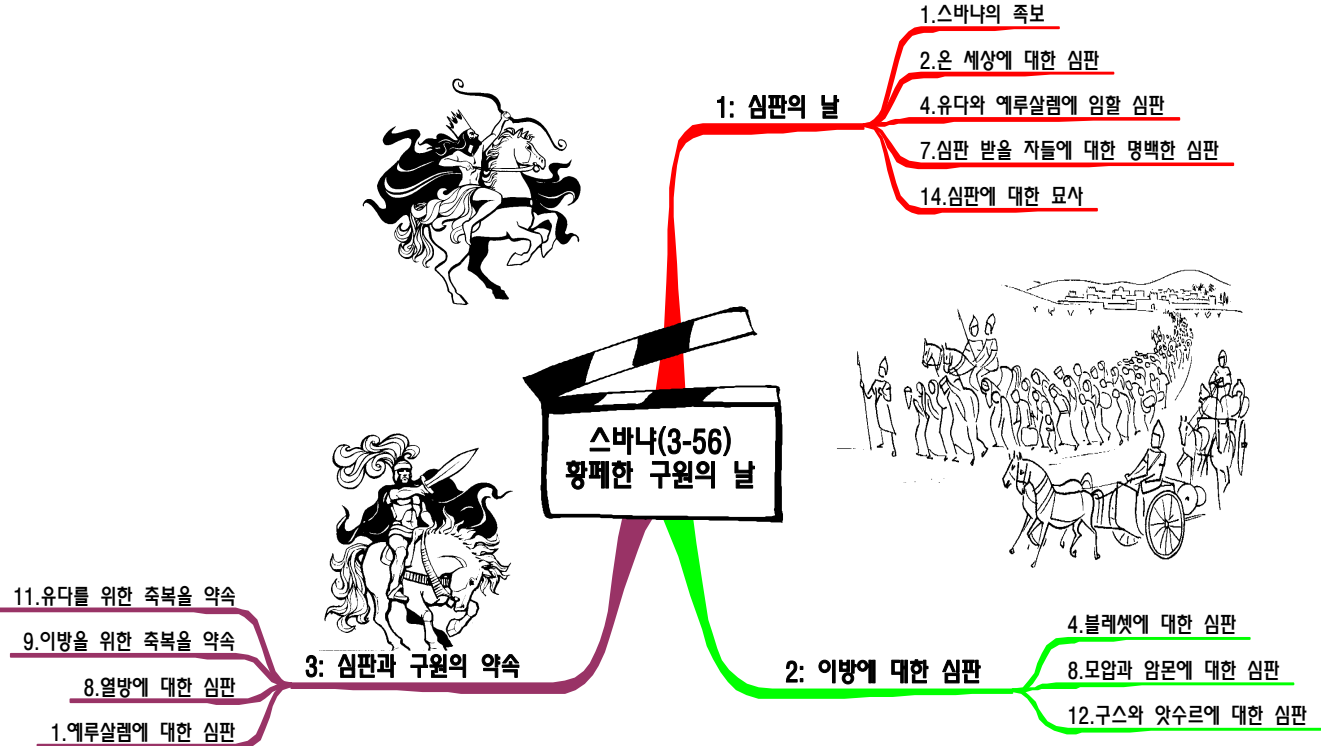
나훔은 유다의 구원과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한 후 유다의 회복과 니느웨를 정복하기 위해 달려오는 군대를 묘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황폐된 니느웨를 그린 책이다.

하박국은 악한 갈대인을 심판하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유다의 신실한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성도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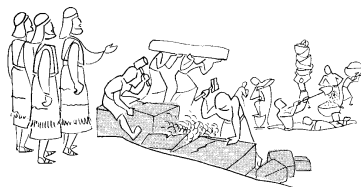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왜 불의를 그냥 두시고 더 악한 자를 통해 심판하시는 가’ 질문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는 답을 얻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책이다.

스바나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이 침략하여 열국과 유다에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여 회개를 촉구하면서
장차 다가 올 구원을 예언하며 유다의 회복을 약속한 책이다.



스바나는 여호와의 날에 지면에 모든 것을 멸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니 그 전에 회개하라 권고하고
이방 나라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유다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학개는 주전 536년 2월 성전재건 공사를 시작하나 대적들의 방해로 14년간 중단하게 되어 이에 낙담하거나 우선순위를 상실한 백성들을 권고하여 성전공사를 완료하도록 격려한 책이다.



1. 성전재건을 촉구

1. 예언의 배경

1:2 성전을 돌보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

1:7 성전 재건을 촉구

1:12 성전 재건의 결단과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

1:14 성전 재건에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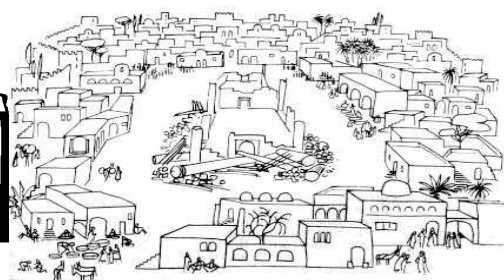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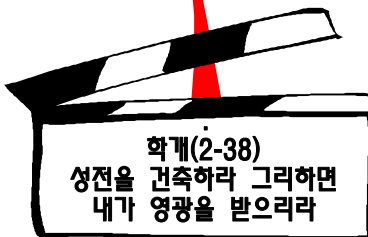


2:1 새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

2:10 백성들의 죄로 지연되는 성전 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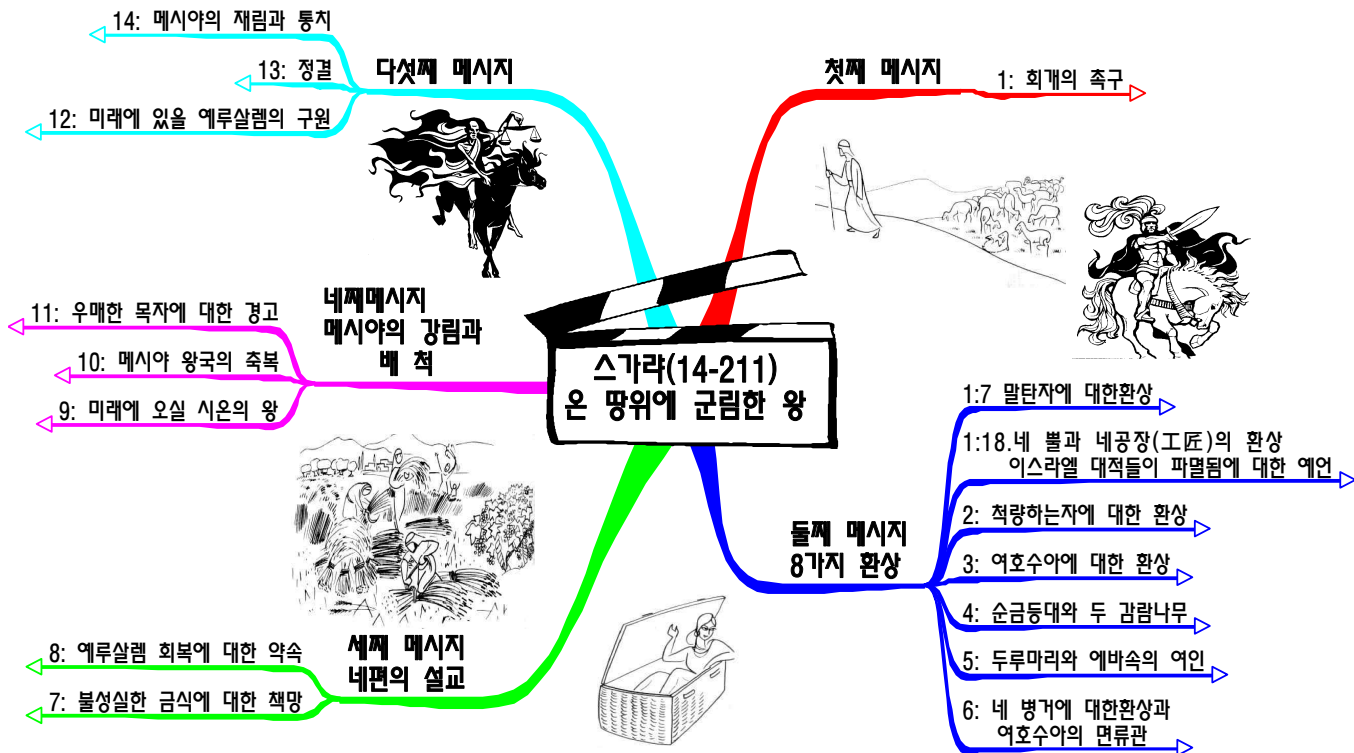
2:20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신임과 영광을 얻음

2. 새 성전의 영광과 축복



학개는 성전건축 중단을 책망하고 새 성전의 더 큰 영광을 약속하며 공사를 중단하던 때부터 (2:15) 소출이 없었으나 이제는 소출의 복을 주고 열국의 보좌를 얹고 열방의 세력을 멸하여 여호와의 임위하심을 보이리라 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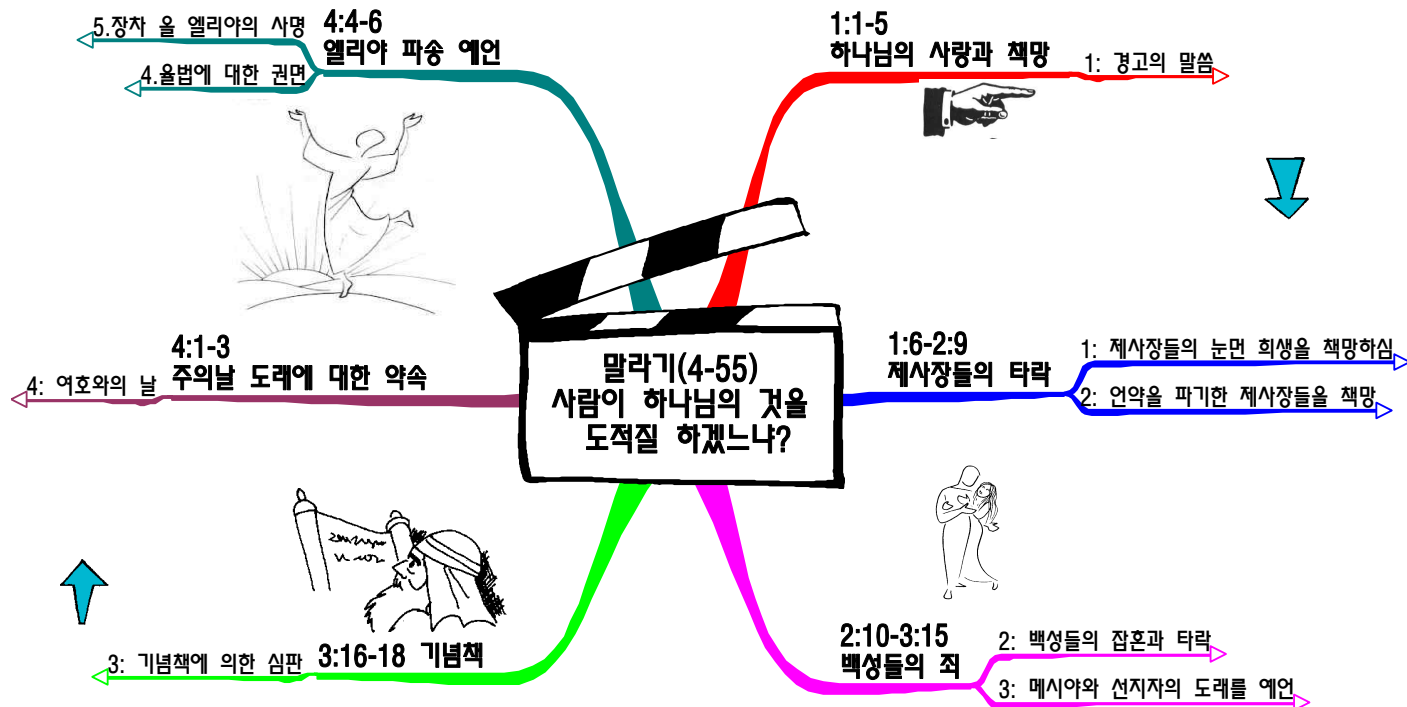
스기라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참다운 여호와와 종교를 회복하고 학개와 함께 성전재건을 촉구하며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섭리자이시며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상기시키고 있다.



스기라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여덟 개의 환상을 통해 성전건축을 권면하고 불성실한 금식을 책망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고, 나귀타고 입성하실 메시아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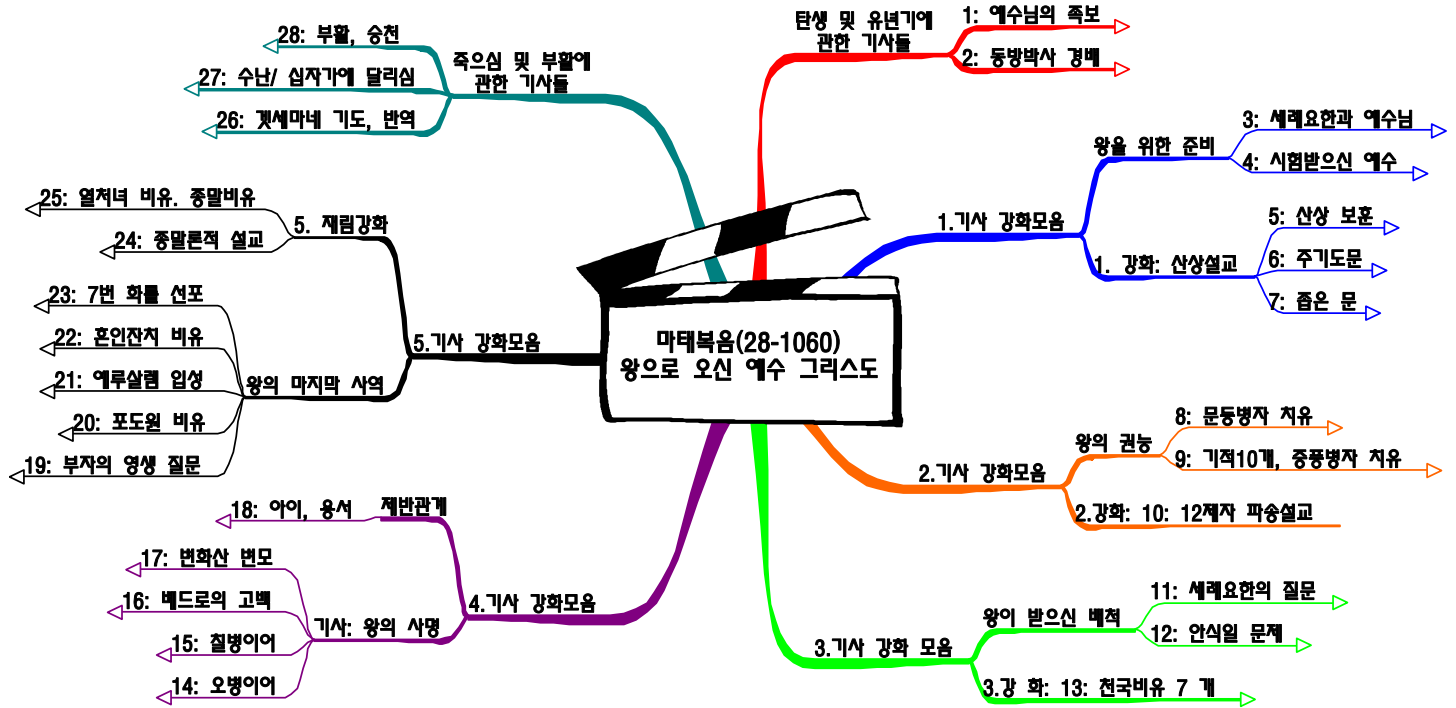
온 땅위에 군림한 왕 : (Zechariah)

말라기는 성전재건 세대가 지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성전에 무관심하며 신앙과 도덕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경고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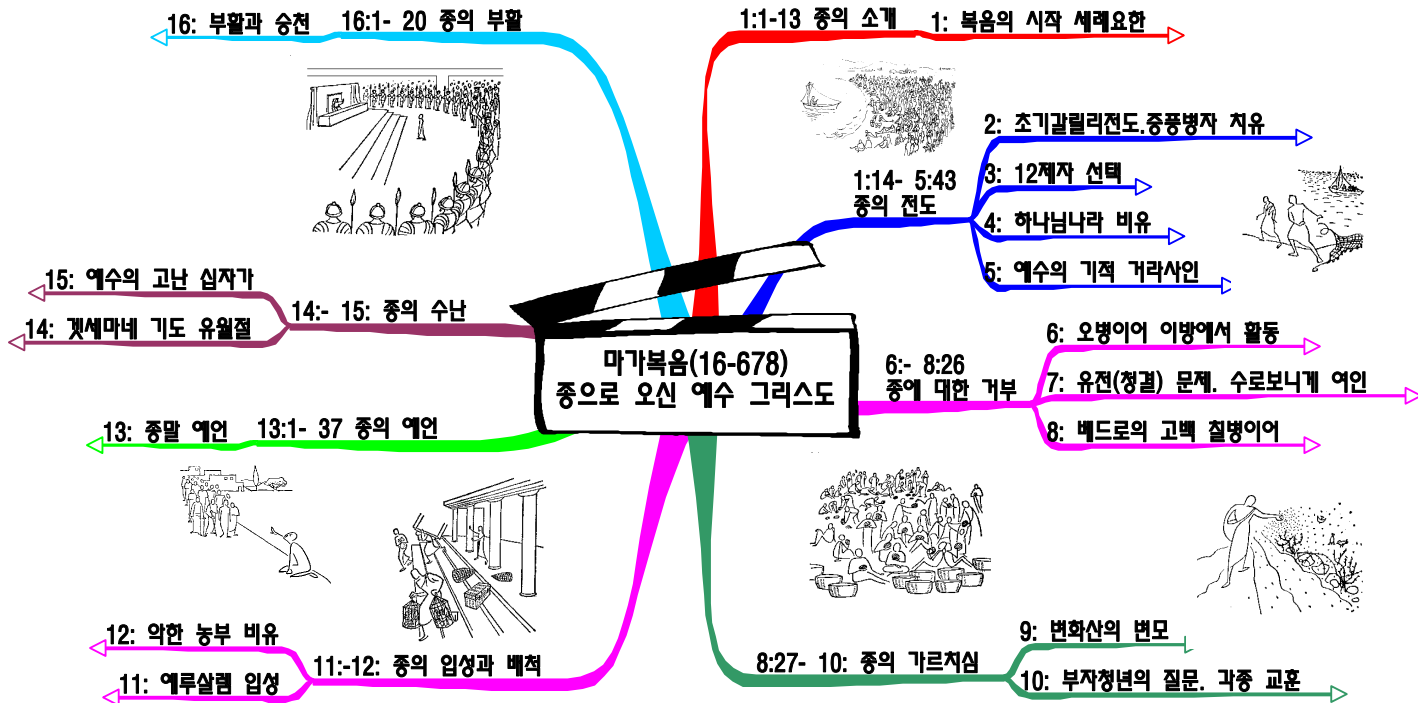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되고 제사장은 눈 먼 희생을 드리며 문란한 결혼 생활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메시아 도래와 십일조 교훈 뒤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 백성들을 돌아키리라 하셨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것과,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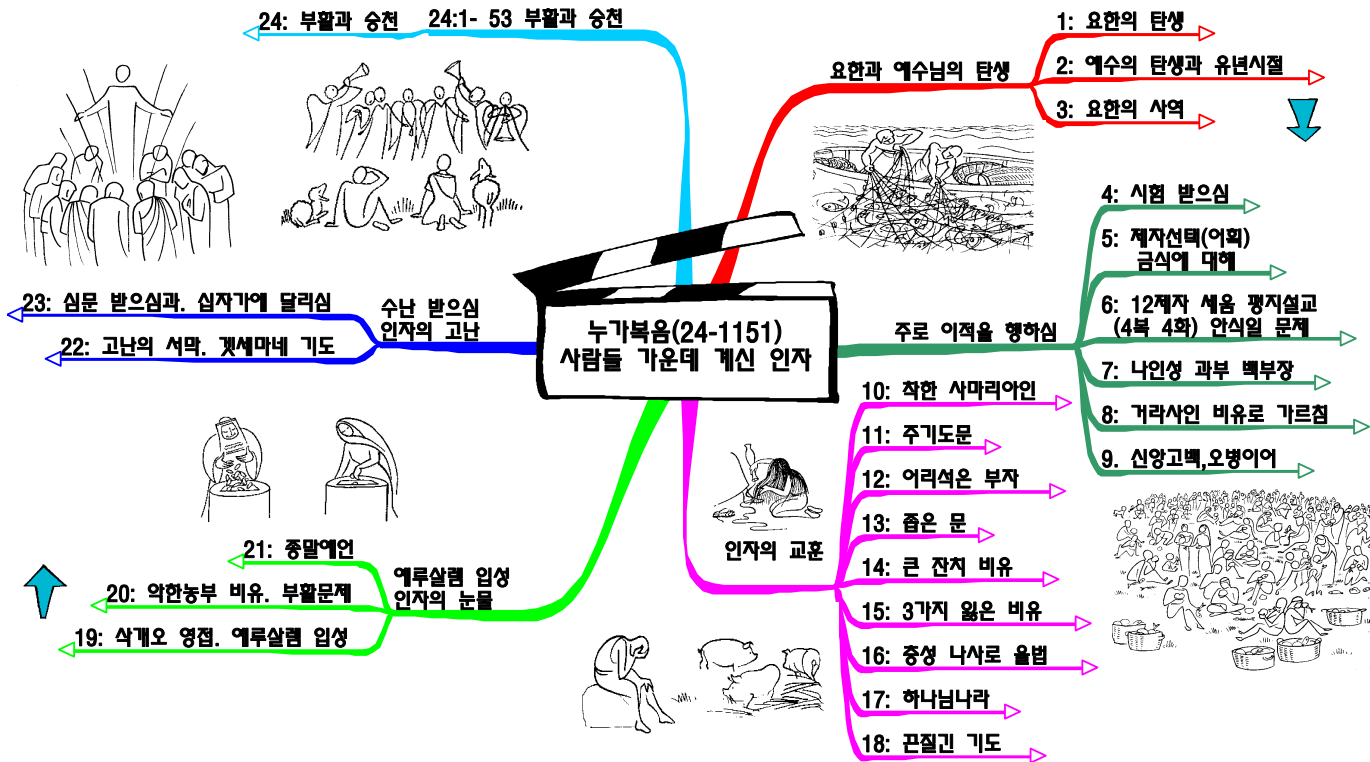
예수님 탄생 후 세례, 시험 받으시고 산상보훈을 선포하신 후 10개의 기적과 12제자 파송 7개의 천국비유를 하신 후 오병, 질병어이의 기적과 베드로의 신앙고백, 변화산 사건 후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7화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겟세마네기도 후, 수난, 부활, 승천하셨다.

전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과 부활의 대속적 성격을 기술한 책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술하여 전도를 중심으로(1:-10)한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대속적 성격을(11-16)기술함



세례요한의 전도로 시작, 초기 갈릴리 전도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 5병2어의 기적, 장로의 유전 문제 뒤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다.
 7병2어, 변화산, 부자 청년의 질문 뒤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종말을 예언하고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기도 후, 수난, 부활, 승천하시다.

누가복음은 구세주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였으며,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고 생명과 희망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기적과 비유 및 교훈과 활동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려는 의지와 품성과 목적을 밝혀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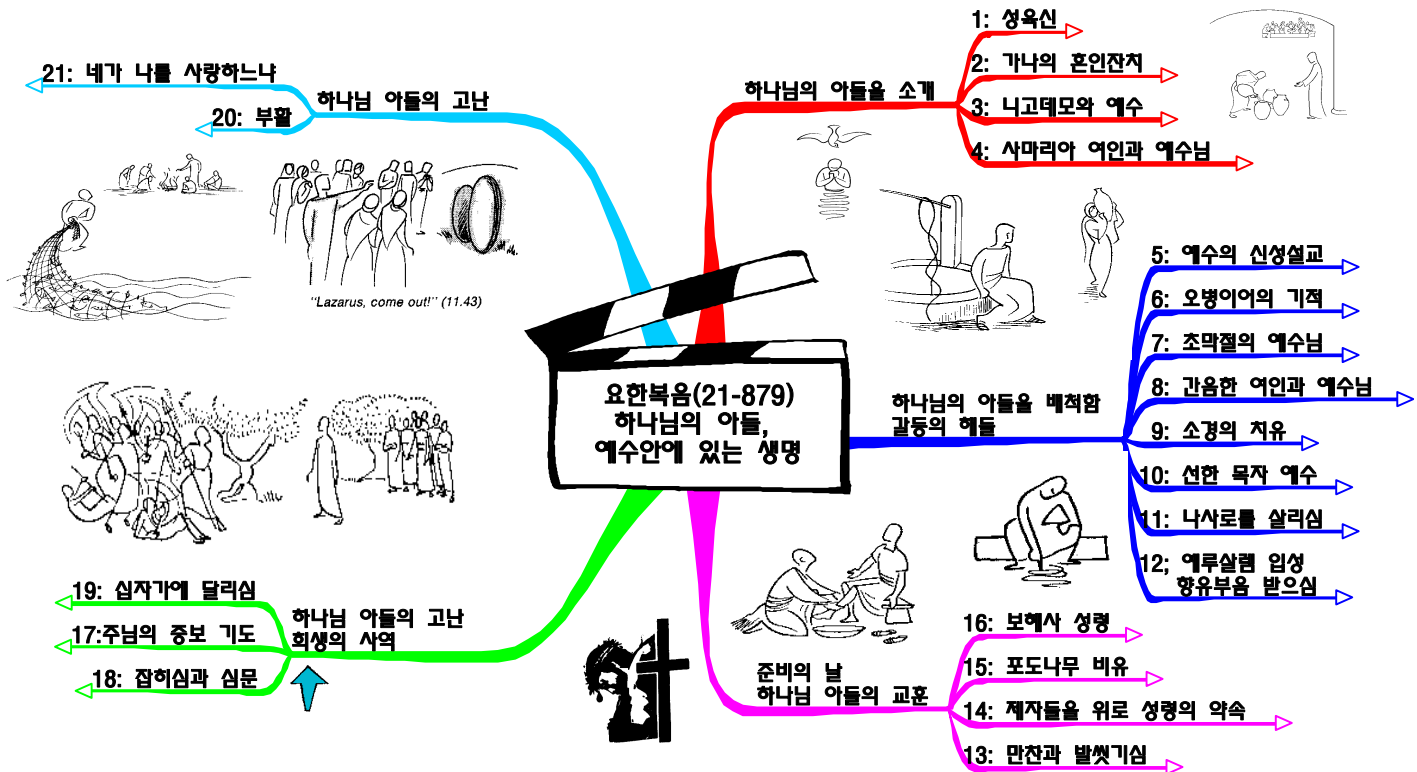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금식 후 시험 받으시고 12제자를 세우시며, 70인을 파송하고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 좁은 문, 큰잔치 비유,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입성 후 겔세마네 기도 후, 수난, 부활, 승천하시다.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안에 있는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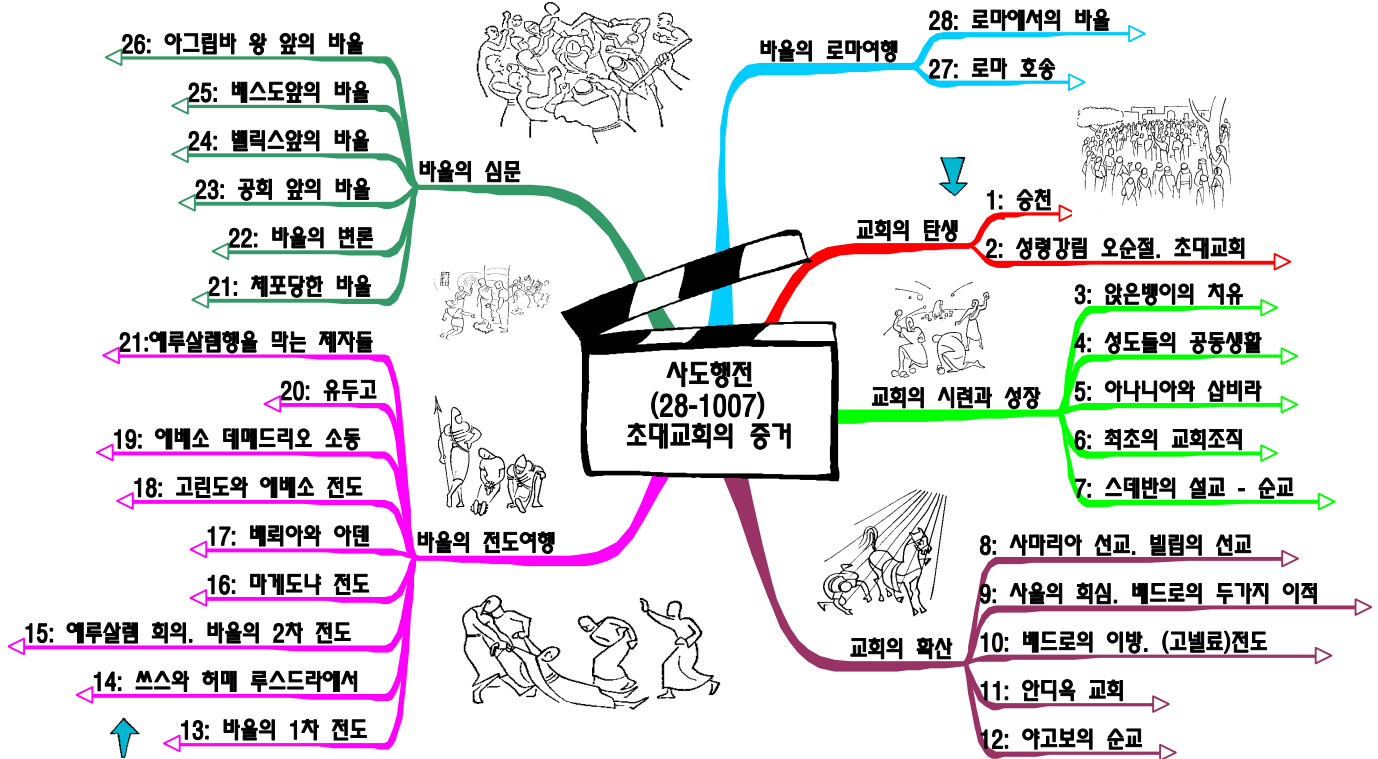
(John)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메시야의 표적과 이적을 기술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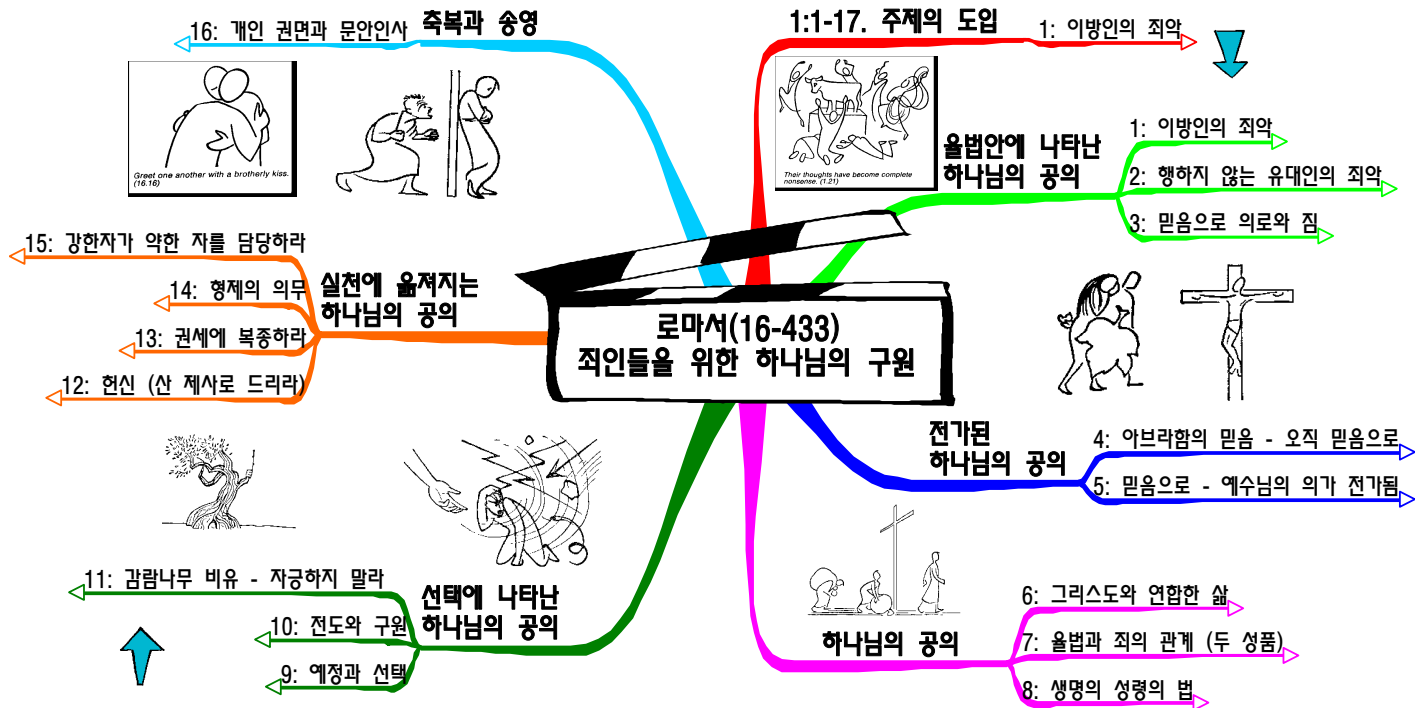
성육신하신 후 가나 혼인잔치, 성전청결,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후 38년 된 병자, 간음한 여인, 소경을 치유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만찬과 세족식 후 성령을 약속하고 중보기도를 드린 후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신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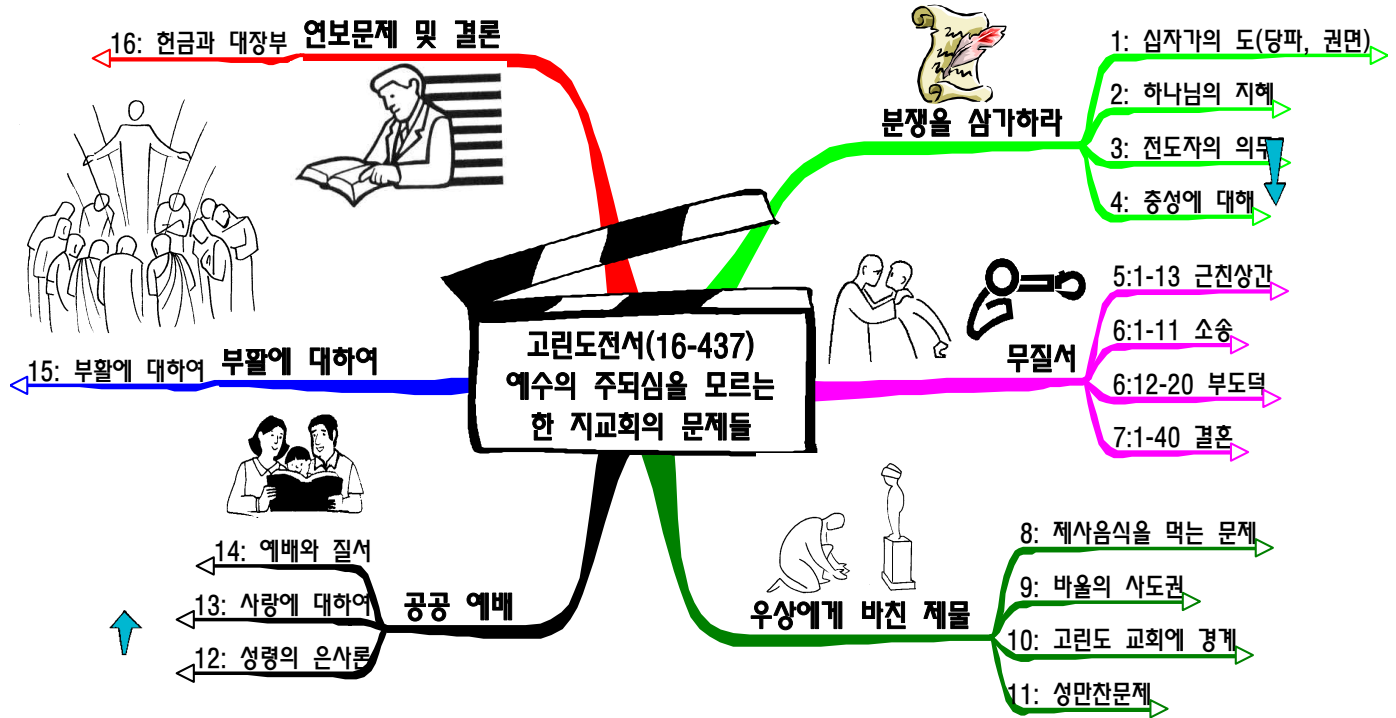
예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여 교회의 탄생과 스테반의 순교와 박해로 몰아진 교회 확산, 아고보 순교와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를 다루고 있다. 바울의 1차 전도 중 루스드라에서 얏은병이 고치고 2차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3차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잡힌 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책이다.

로마에 있는 일단의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장 조직적이고 교리적으로 써서 보낸 서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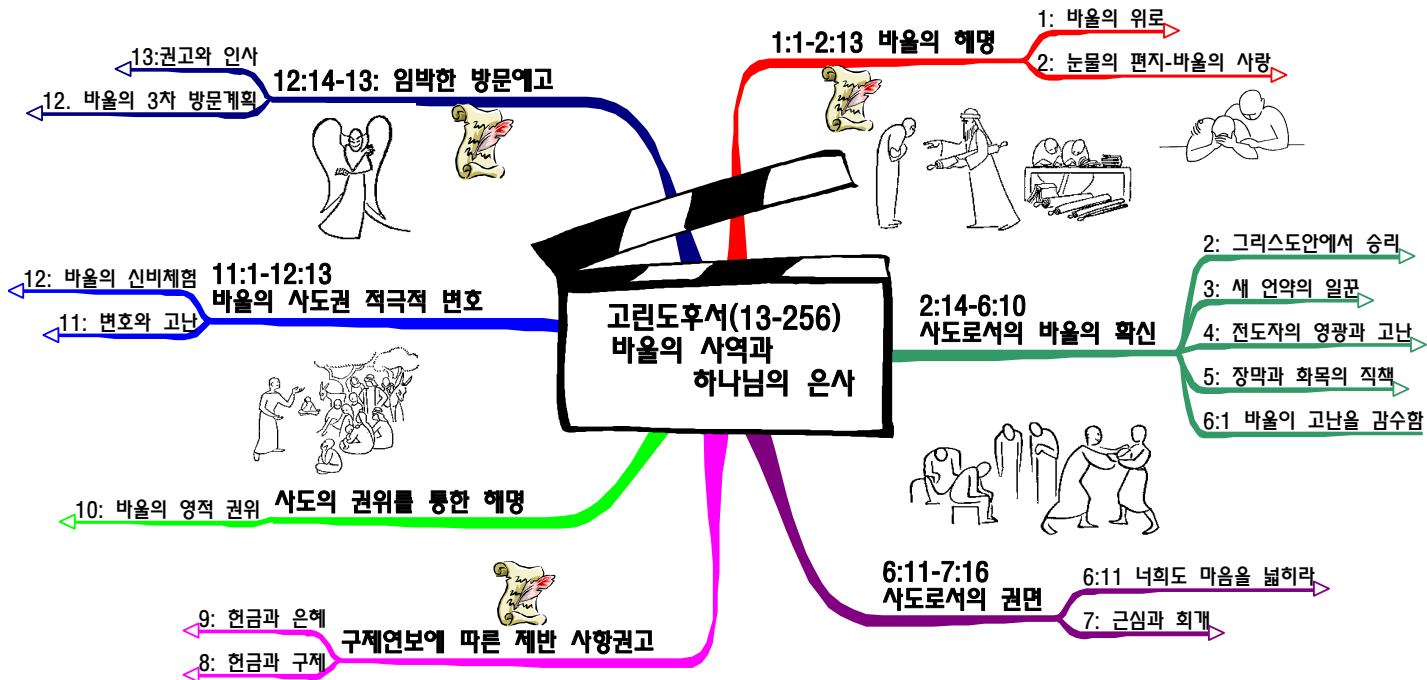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악을 열거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와 연합함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며 율법에서 해방되어 오직 성령의 법으로 살 것을 말한다. 장차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것과 신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고 권세에 복종하고 형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권하며 개인적인 권면으로 마친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의 분쟁, 유대주의 자들의 준동, 성적문란과 성찬, 우상의 제물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고와 경계에 대한 서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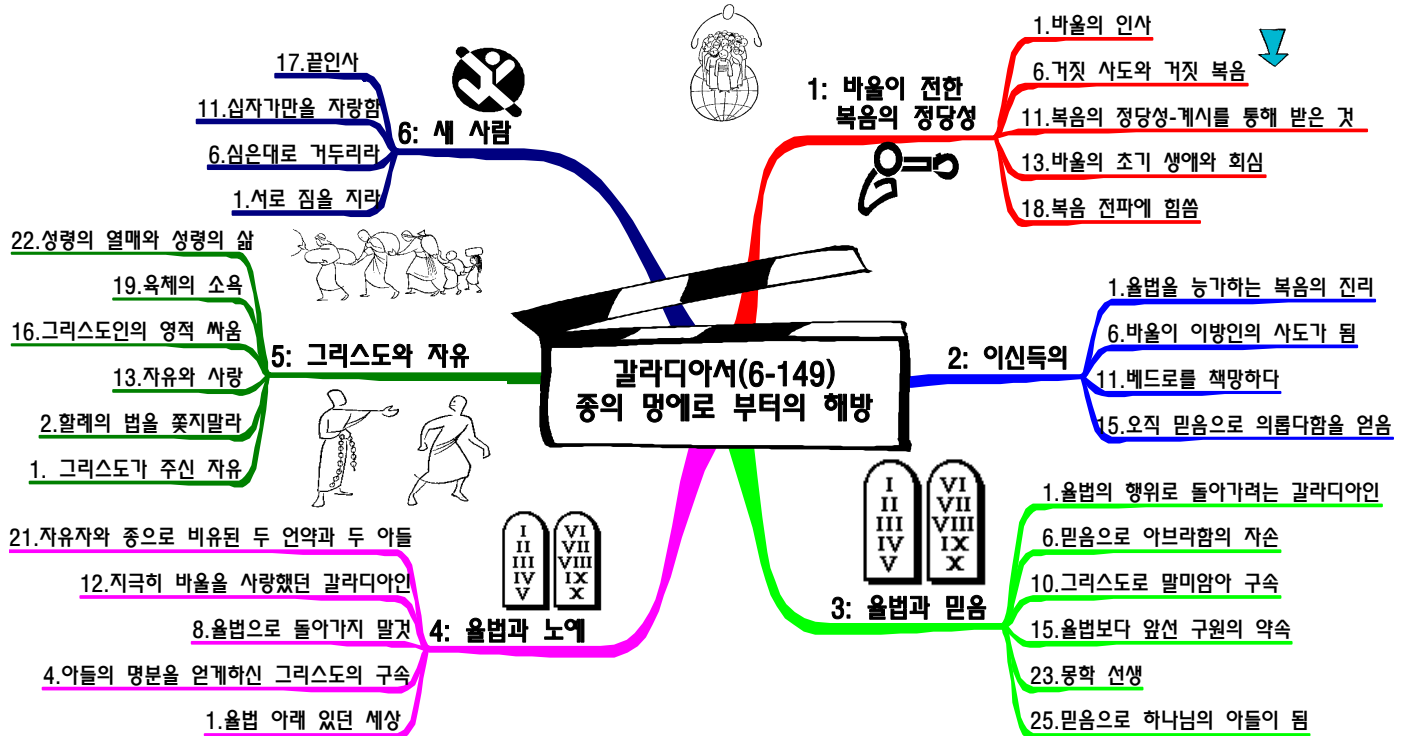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하되 충성하라 권고한 후 음행과 혼인문제 우상의 제물문제를 경고하고 성찬과 성령의 은사를 사랑으로 행할 것과 예배 가운데 방언과 예언을 질서 있게 사용하고 부활을 준비하며 예루살렘 성도를 위하여 헌금할 것을 당부한다.

고린도후서는 전편에 편지를 읽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 감사와, 부담을 느끼고 근심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권하며, 바울의 사도직과 개인적인 증말론을 중심으로 기술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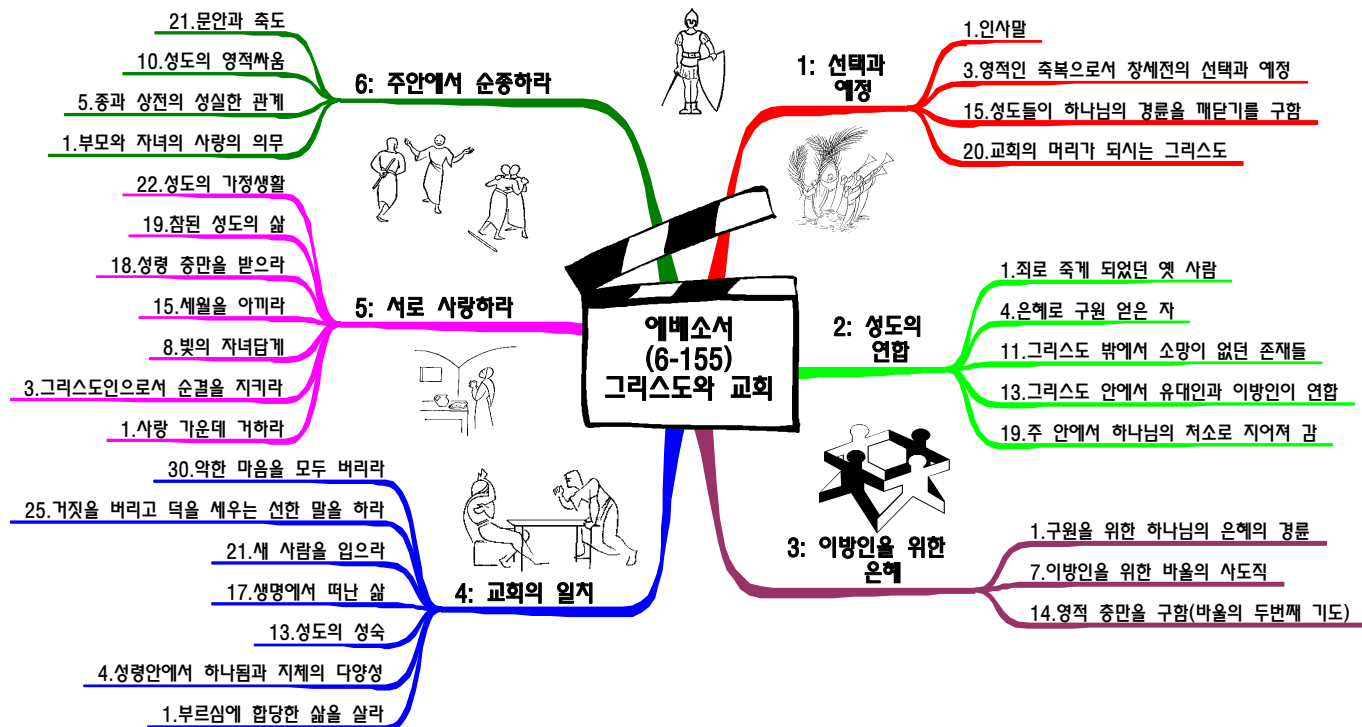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 그리스도안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자각하게 하고, 헌금과 구제, 바울의 사도직과 신비 체험, 3차 방문계획을 밝히고 회개를 권고하는 책이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식적 율법 준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자유를 강조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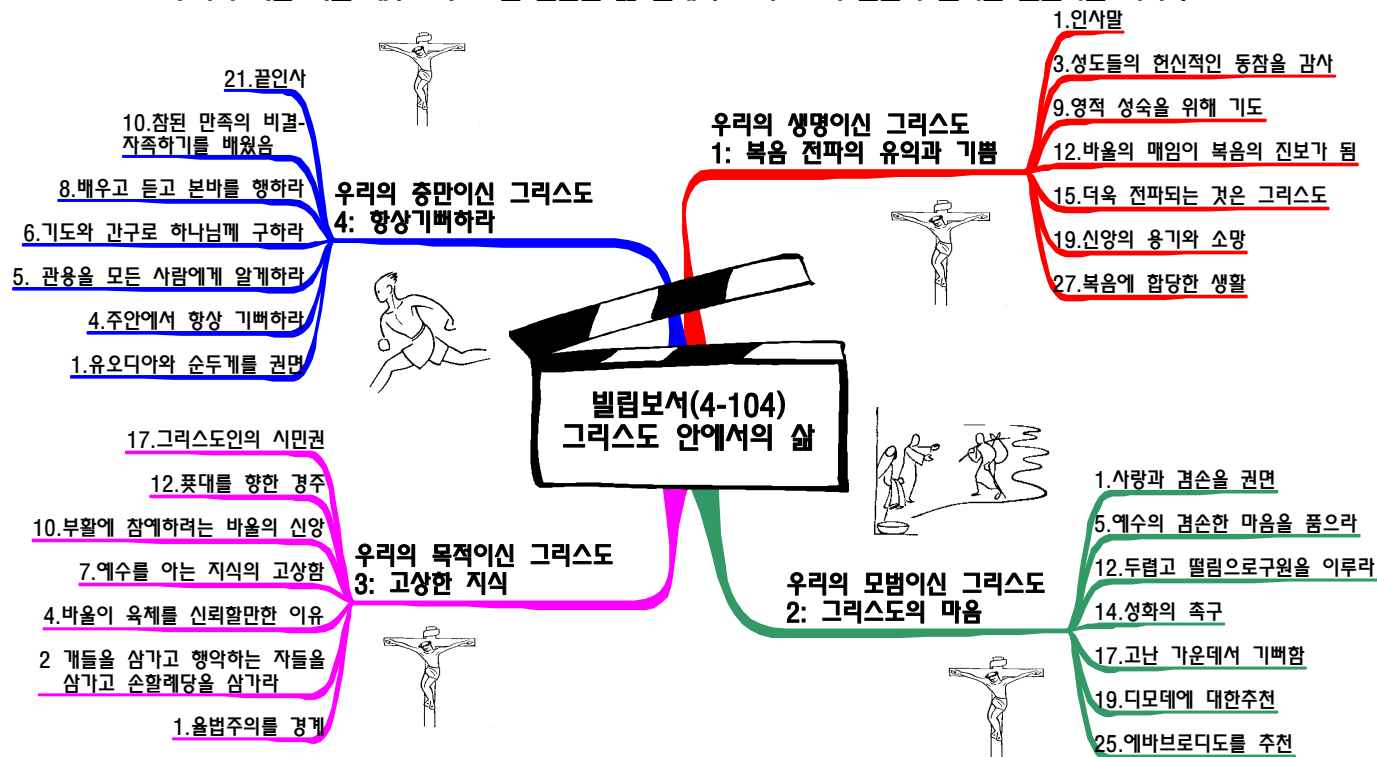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기에 정당하며,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도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악하고 천한 초등학교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기에, 그리스도의 자유로 살고 성령으로 살라고 강조하는 책이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모퉁이 돌 되신다는 것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쓰고 새 사람을 입으며 빛의 자녀답게 성령충만한 삶을 살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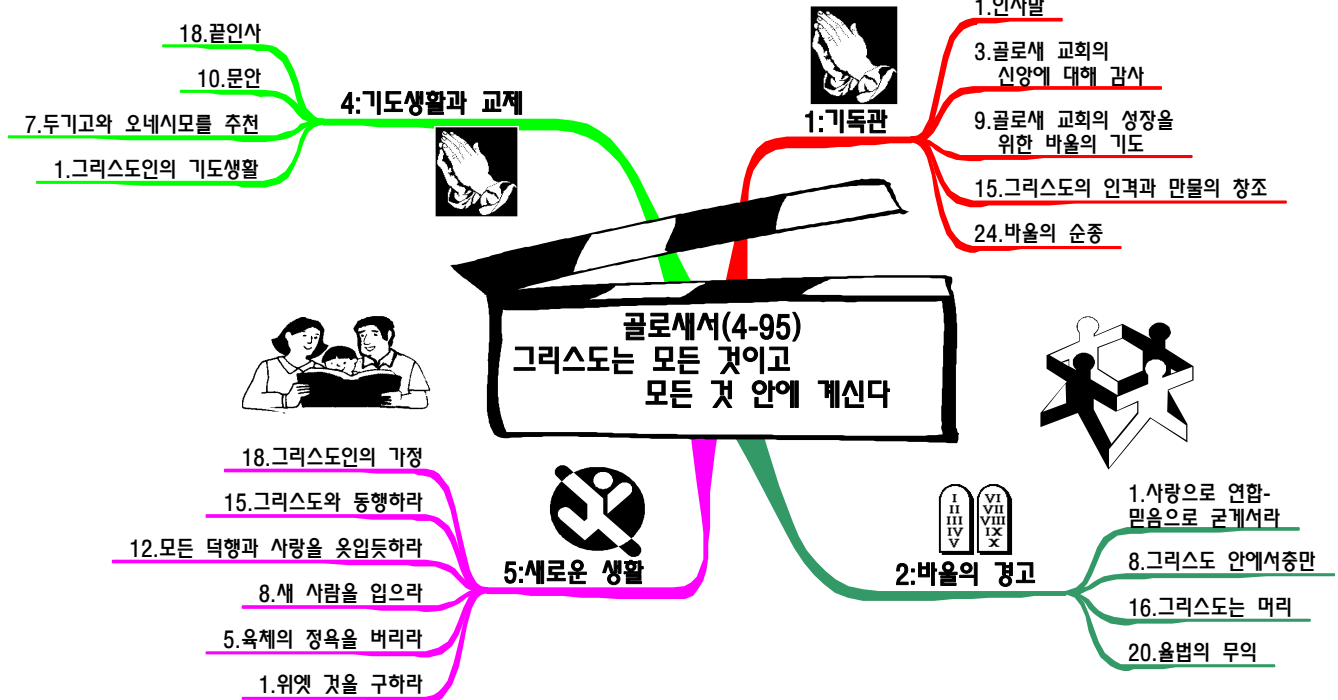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모퉁이 돌 되신다는 것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쓰고 새 사람을 입으며 빛의 자녀답게 성령충만한 삶을 살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책이다.

빌립보서는 매임 받은(감옥) 바울을 위해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기쁨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일치를 권면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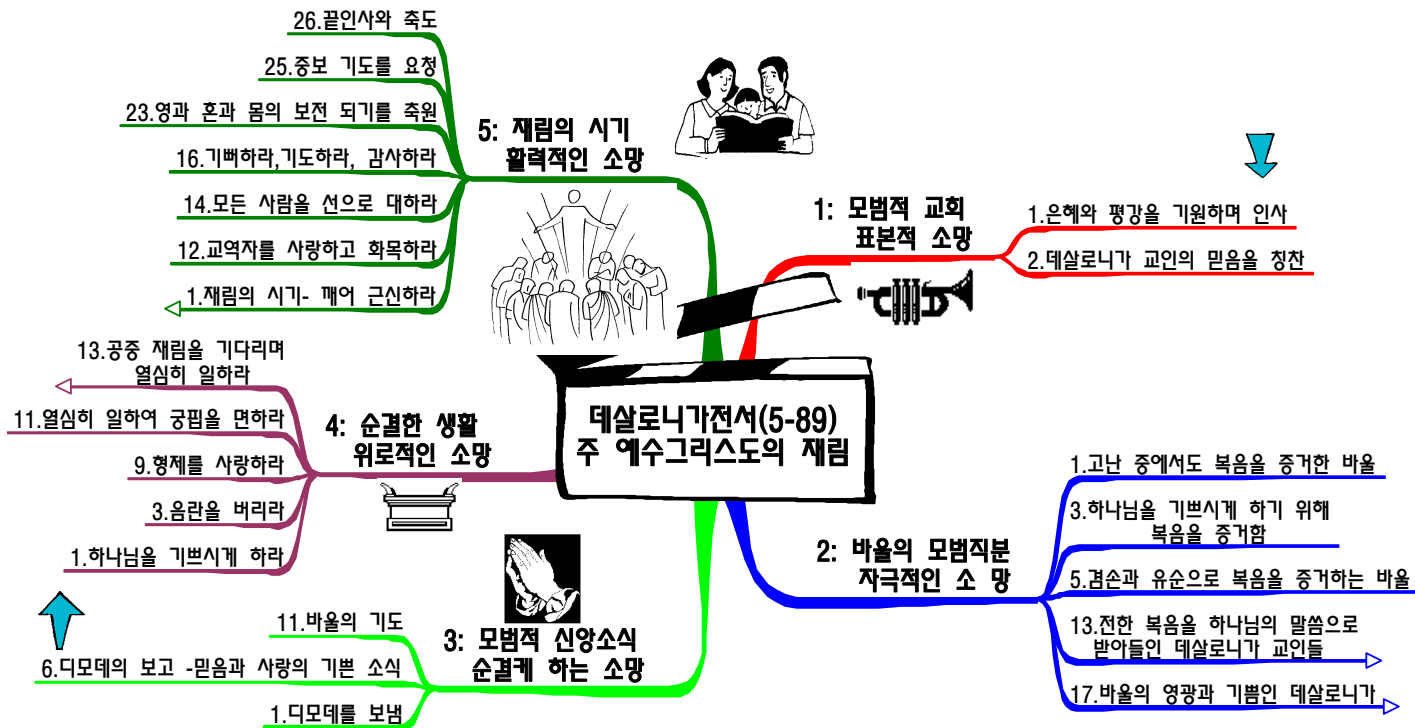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과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권면한 후,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관용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한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신성에 중만을 육체로 나타내시고 교회의 머리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화해자이며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의 중만으로 와 계시어 우리의 구원과 삶이 예수 한 분 만으로 충분하다고 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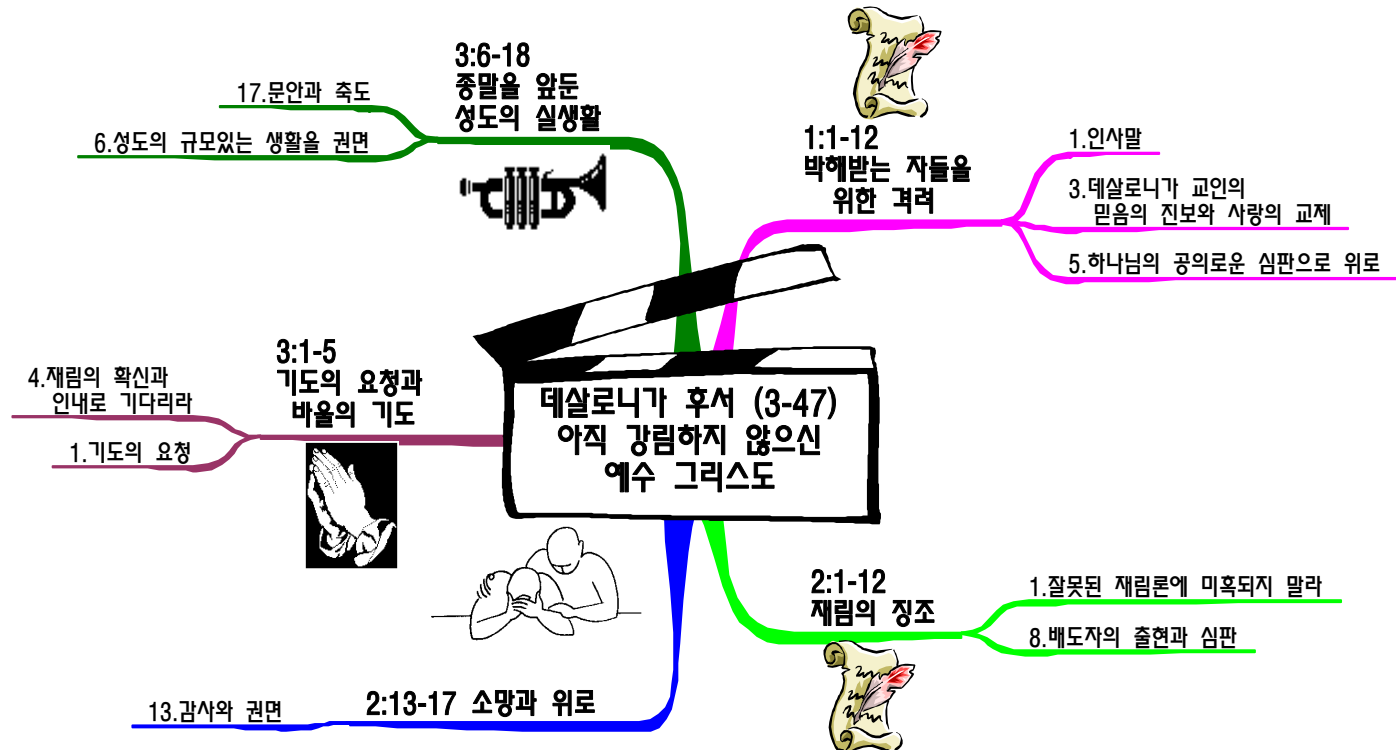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한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중만하시고, 모든 것의 중심되시는 분이시기에 위엿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자체를 죽여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덕으로 살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한 책이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견고케 하고 성적타락과 다툼과 분쟁의 위험에 관해 경고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생활태도를 가르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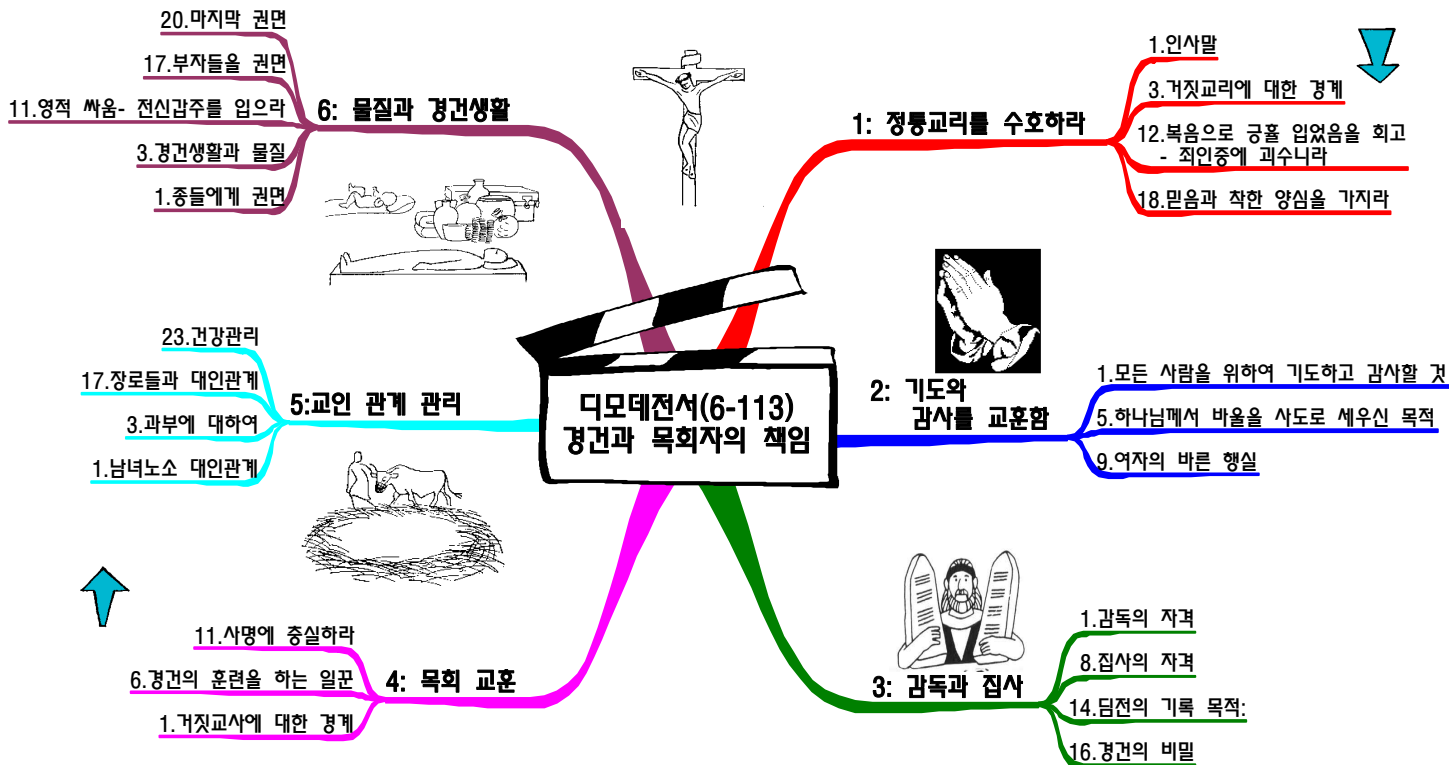
데살로니가전서는 많은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주를 본받는 것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디모테를 통해 들은 교회의 소식에 안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주 예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근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한 책이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재림사에 일어난 사건과, 멸망의 아들에 관한 심판의 전말을 밝히고 규모있는 성도의 생활을 권면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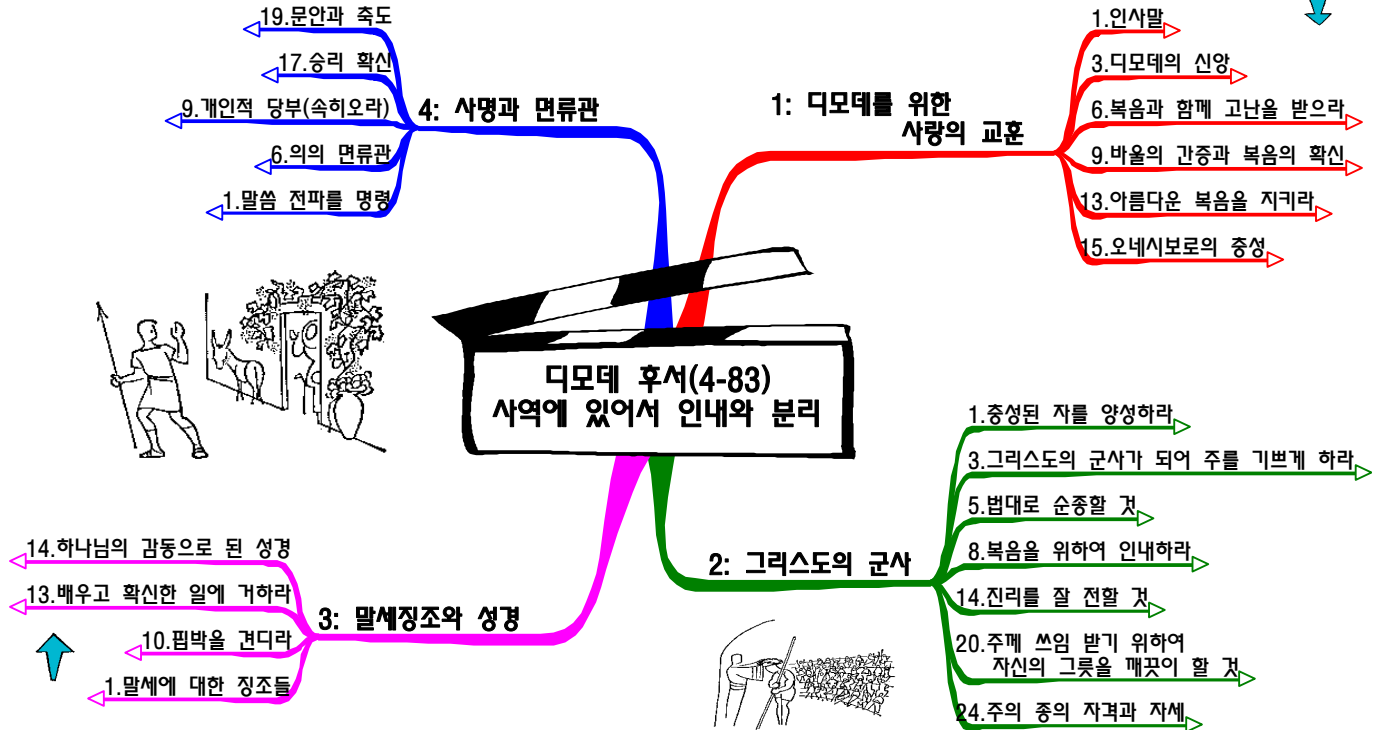
데살로니가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사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니 잘못된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며, 불법한 자를 주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리니 불의한 일에 유혹되지 말며, 주께서 너희를 굳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악하고 게으른 자를 사귀지 말라 권면한 책이다.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향하여 가져야 할 목회자의 자세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과 자격을 밝히며, 교회의 사명과 목회자의 처사에 관해 권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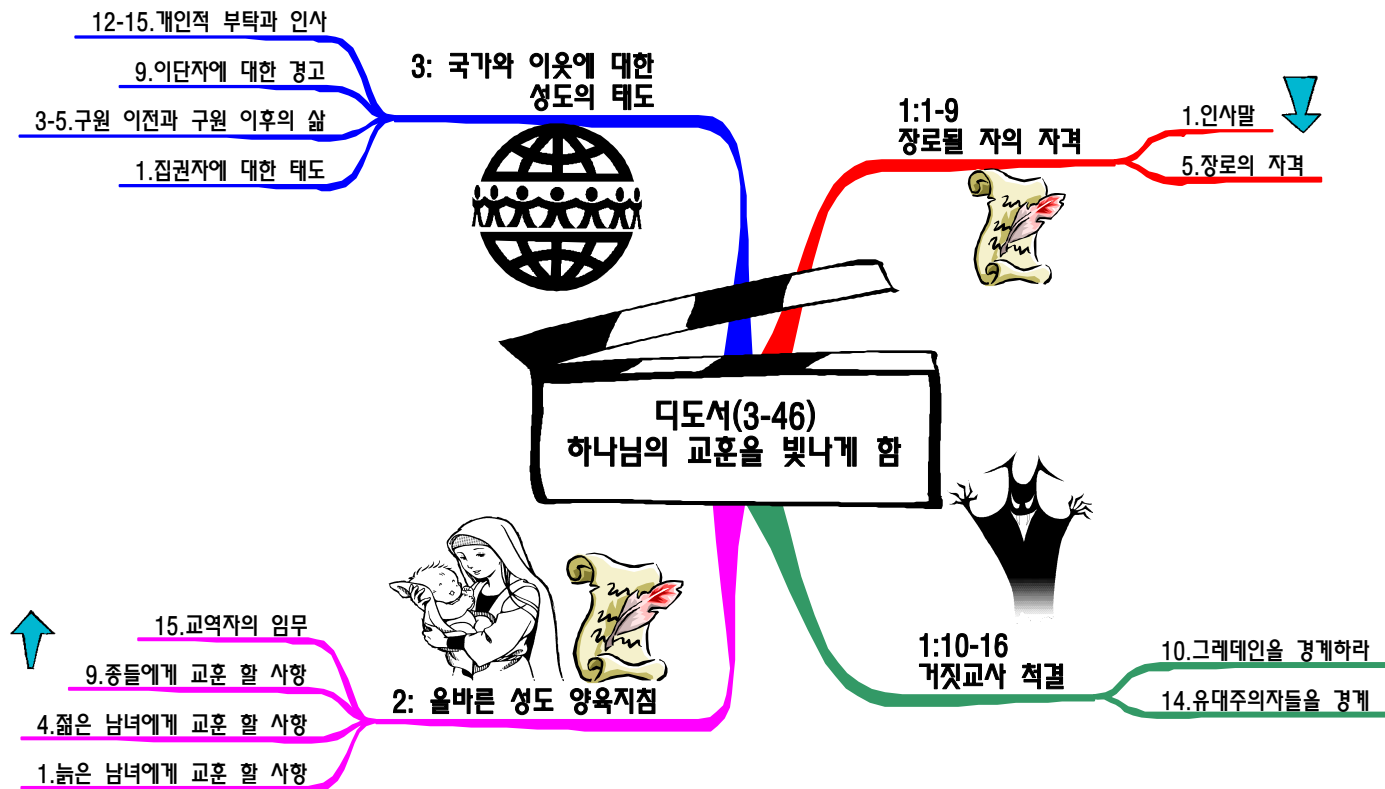
디모데전서는 거짓 교리를 경계하며 충성되어 여거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과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가르치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며 교회내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한 책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며 죽기 전에 속히 올 것을 당부한 책이다.



디모데후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교회 가운데 중성된 사람을 세우고, 주께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깨끗이 하며, 말세의 징조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온전케 되며, 늘 말씀을 전파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라 권면하면서 죽기 전에 올 것을 당부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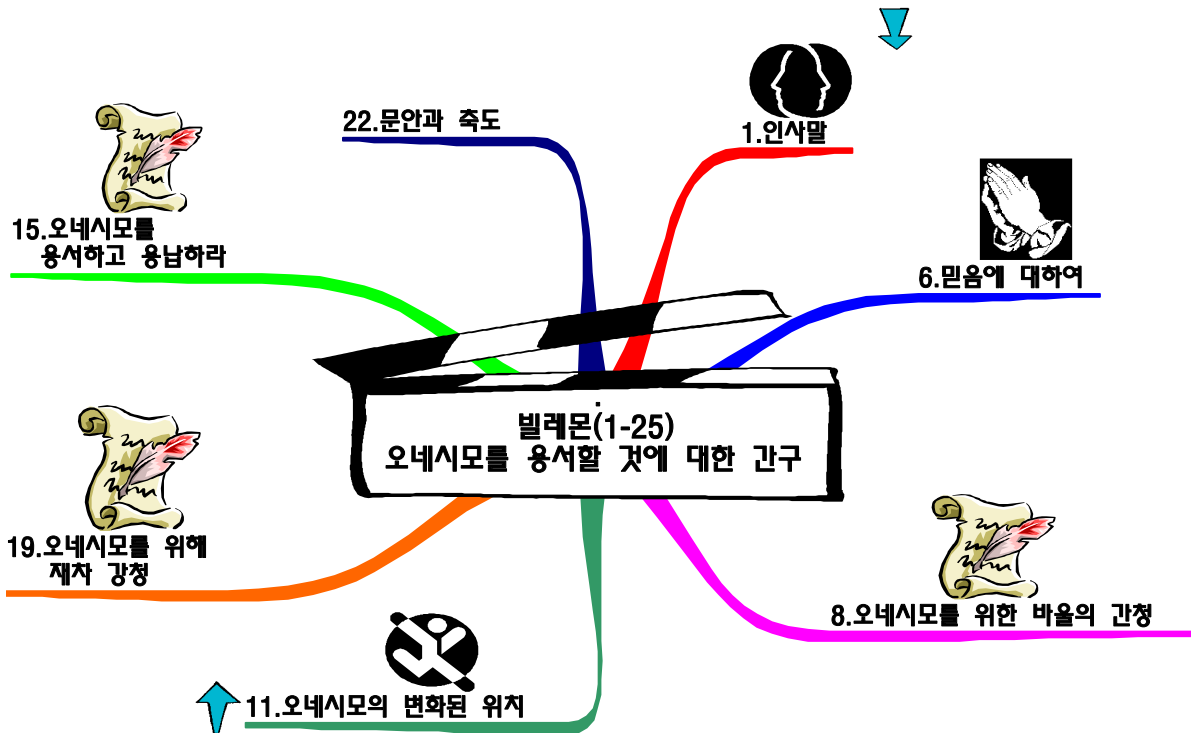
디도서는 장로의 자격과 교회의 각 계층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교역자의 임무를 가르치는 목회 서신이다.



디도서는 자격 있는 장로를 세우고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각 계층별로 합당한 교훈을 주고 선행을 가르치며, 무익한 변론을 피하고 이단을 경계하며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권면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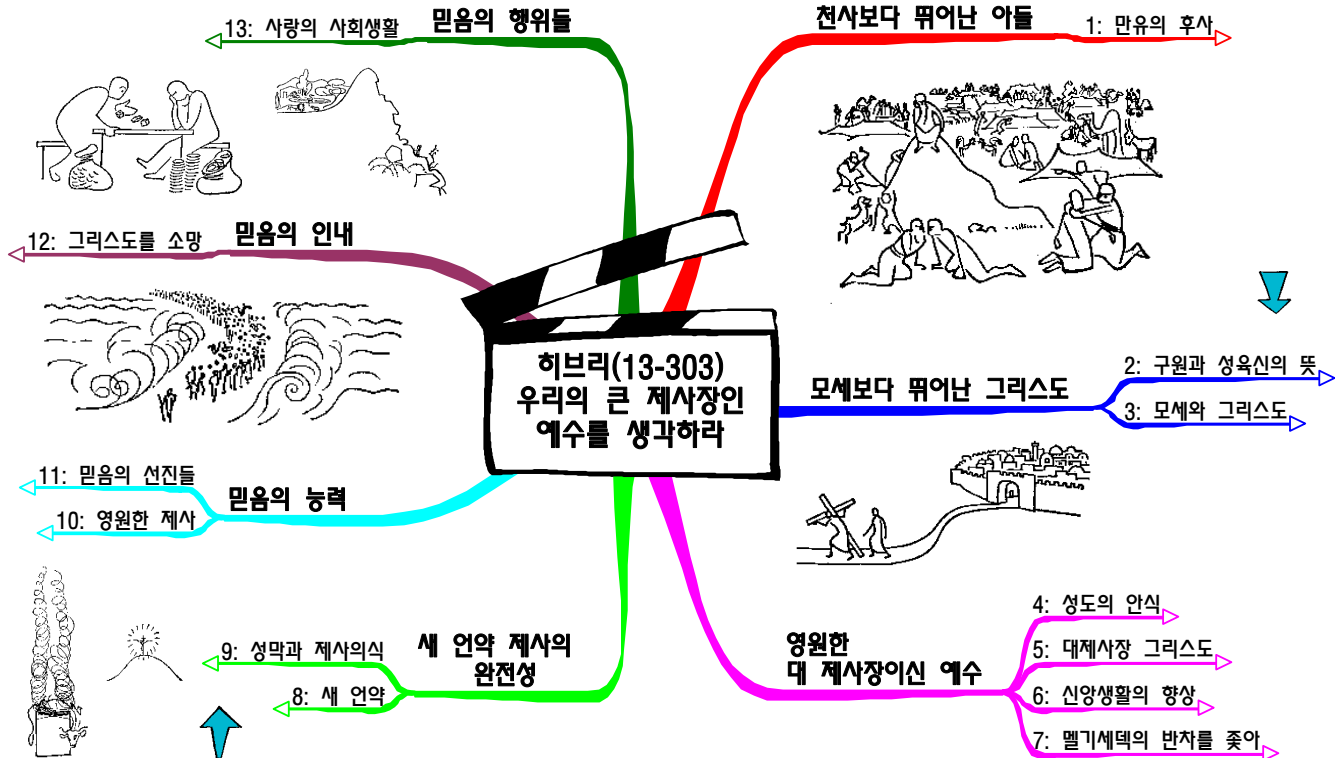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함 ; (Titus)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개종시켜 보내니 저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하라고 부탁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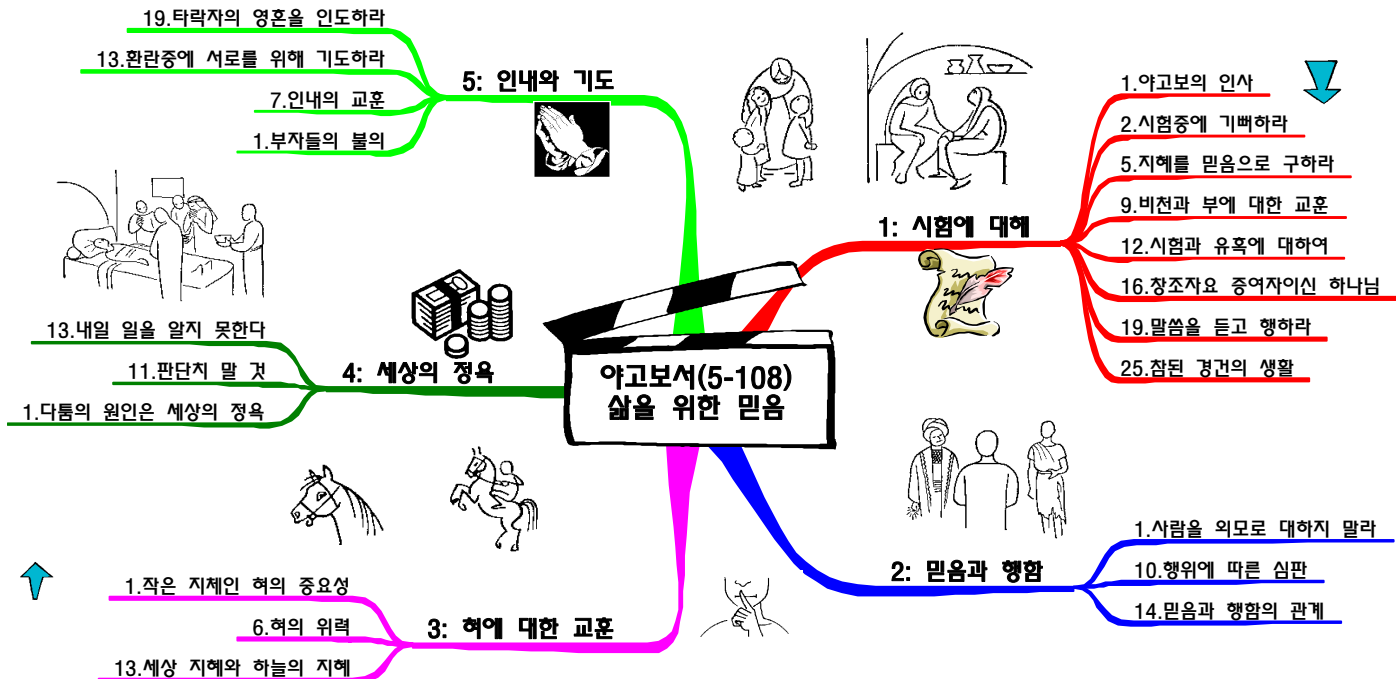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믿음을 칭찬한 후에 도망친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돌려보내는 대로 저를 용서하고 형제로 영접하여 나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라 강하게 부탁한 글이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는 천사와 모세와 아론보다 더 뛰어 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변증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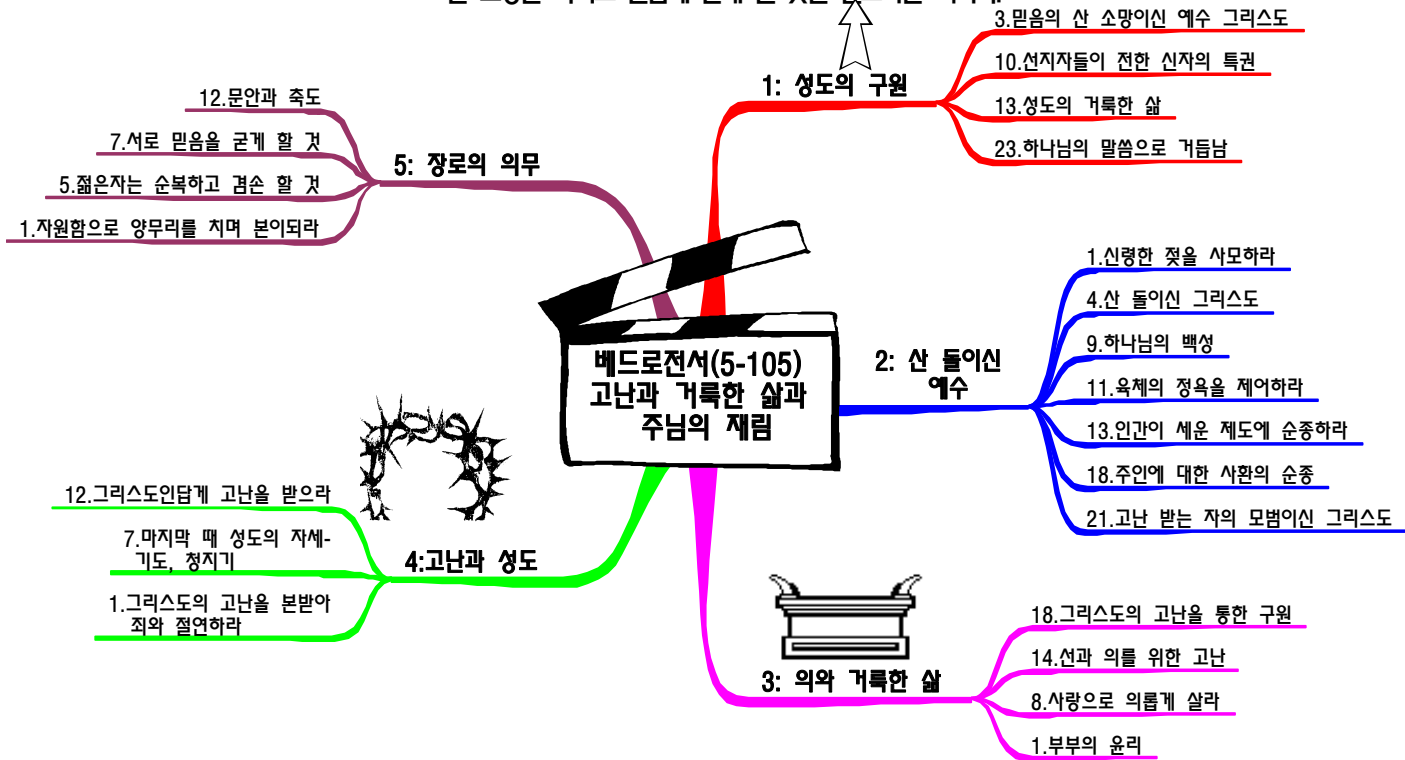
계시의 완성인 예수그리스도는 천사와 모세와 아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우리의 큰 제사장 되시는 분으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셨으니 민음의 선진들을 따라 인내로서 민음의 경주를 하라.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 비판하고 죄에 대한 회개의 교리를 전파하고자 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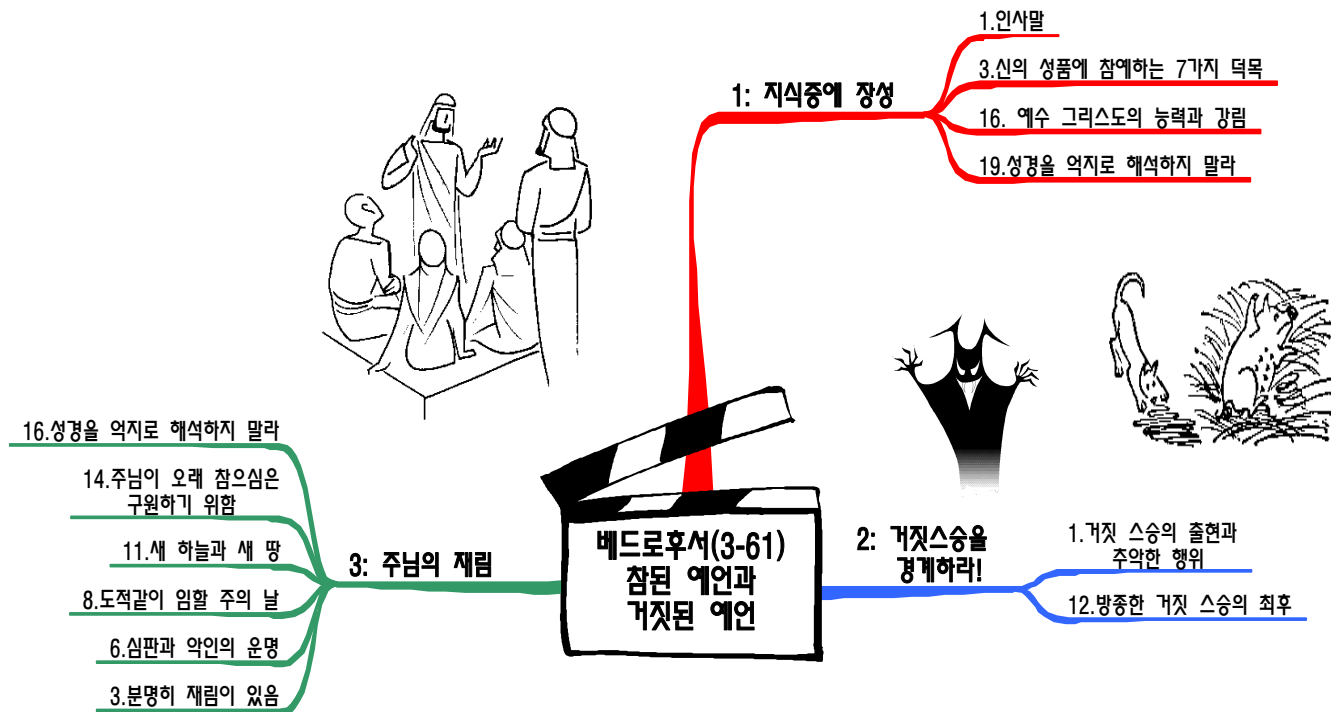
야고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혀를 잘 사용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며, 세상의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주의 강림하기까지 같이 잡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한 책이다.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다섯 지방에 흩어져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말고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고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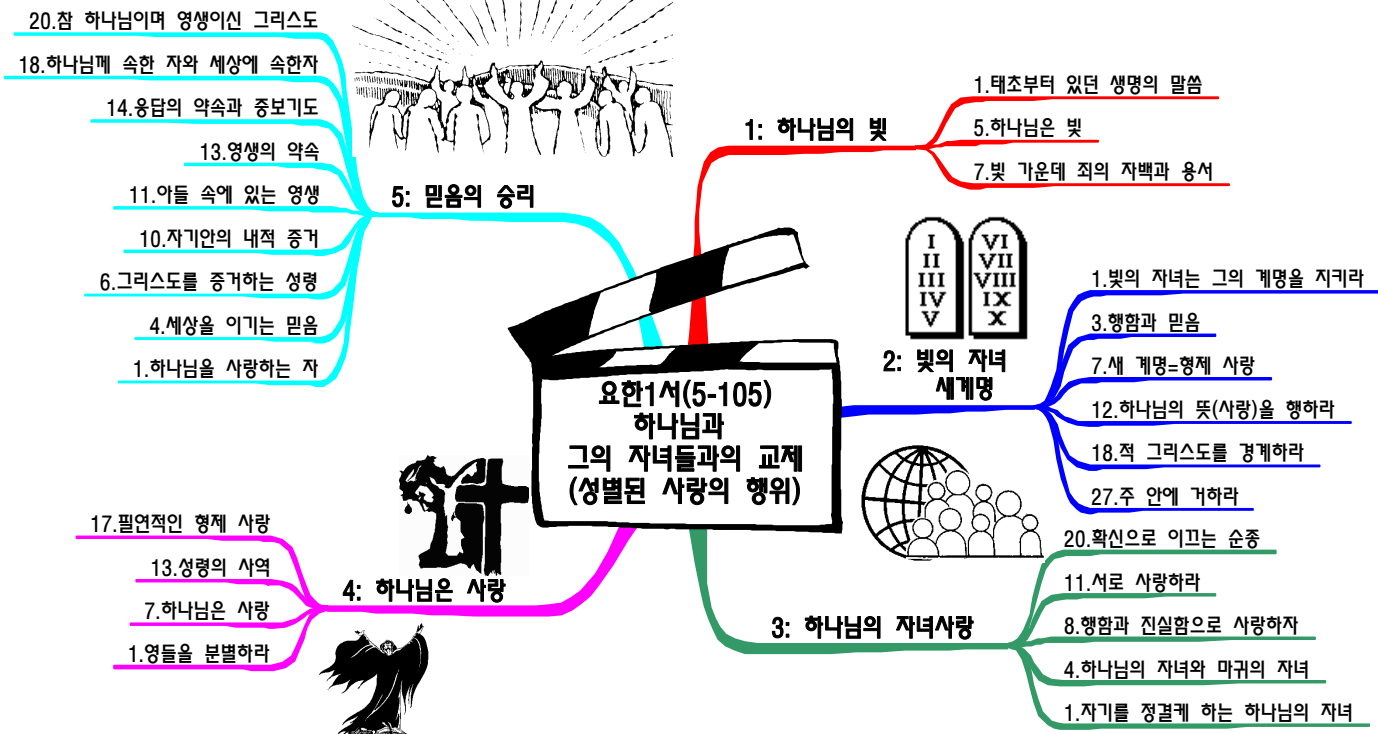
베드로전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믿음의 산 소망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부부간의 도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받아 죄를 끊고 살라, 불시험 당할 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권한 책이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여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권면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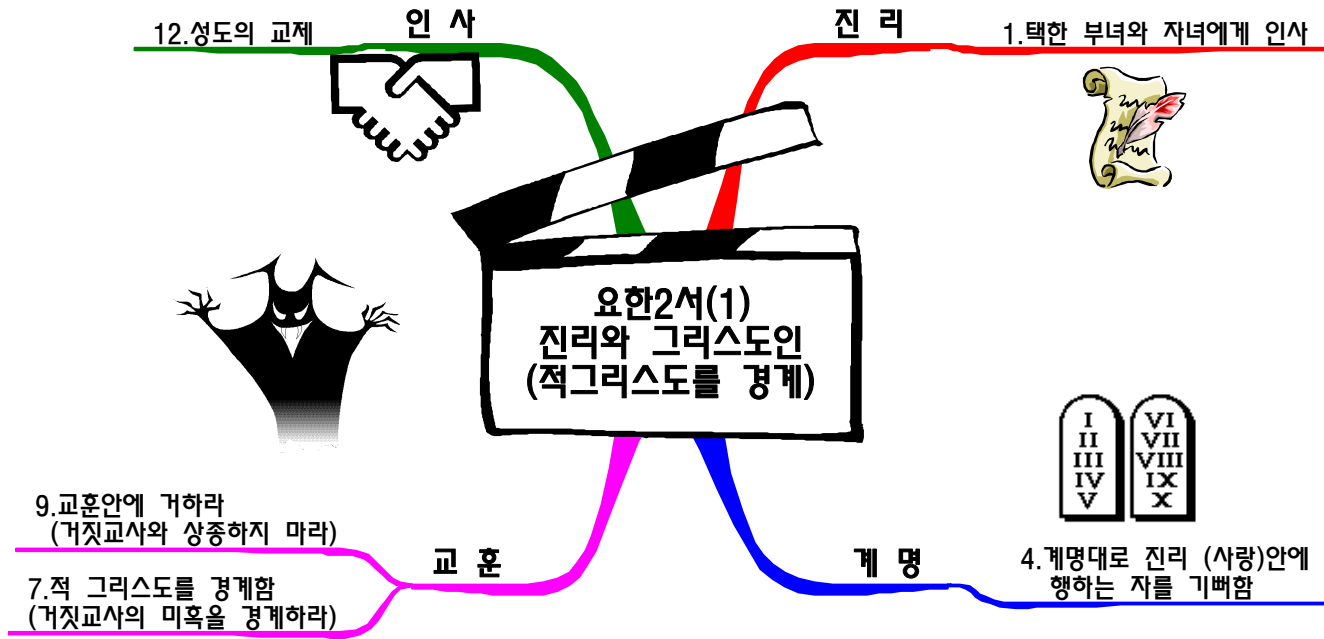
베드로후서는 더욱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며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된 거짓 스승들을 좇지 말고 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신 것을 기억하며 재림의 확실성을 믿고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하신 책이다.

요한일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 부인하는 자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권고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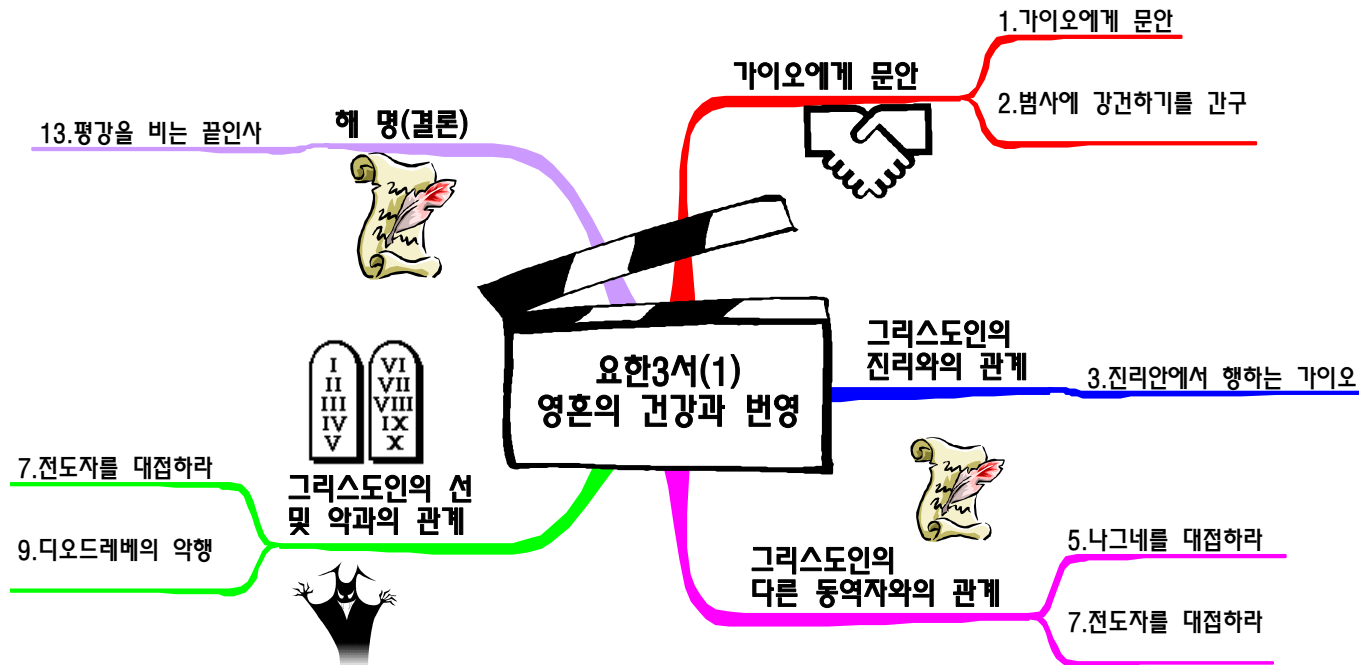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는 미혹케 하는 자이니 속지 말며,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라. 성육신을 부인하며 세상의 교리를 전하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라 하신 책이다.

요한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경계하며 자신의 방문객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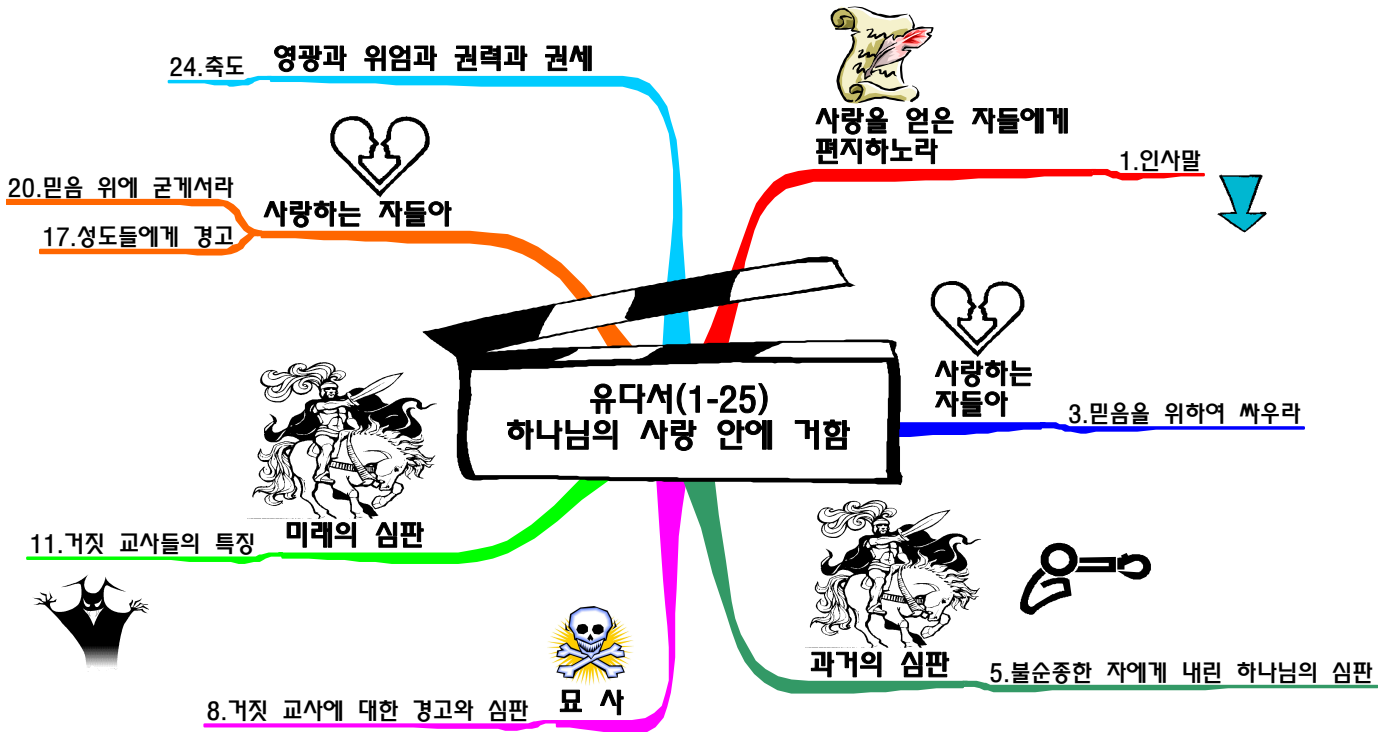
요한이서는 택한 부녀와 자녀를 문안한 후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상종치도 말라 권면하는 책이다.

요한삼서는 가이오의 관대함을 칭찬하고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책망하며 데메드리오의 모범을 칭찬하면서
성도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권고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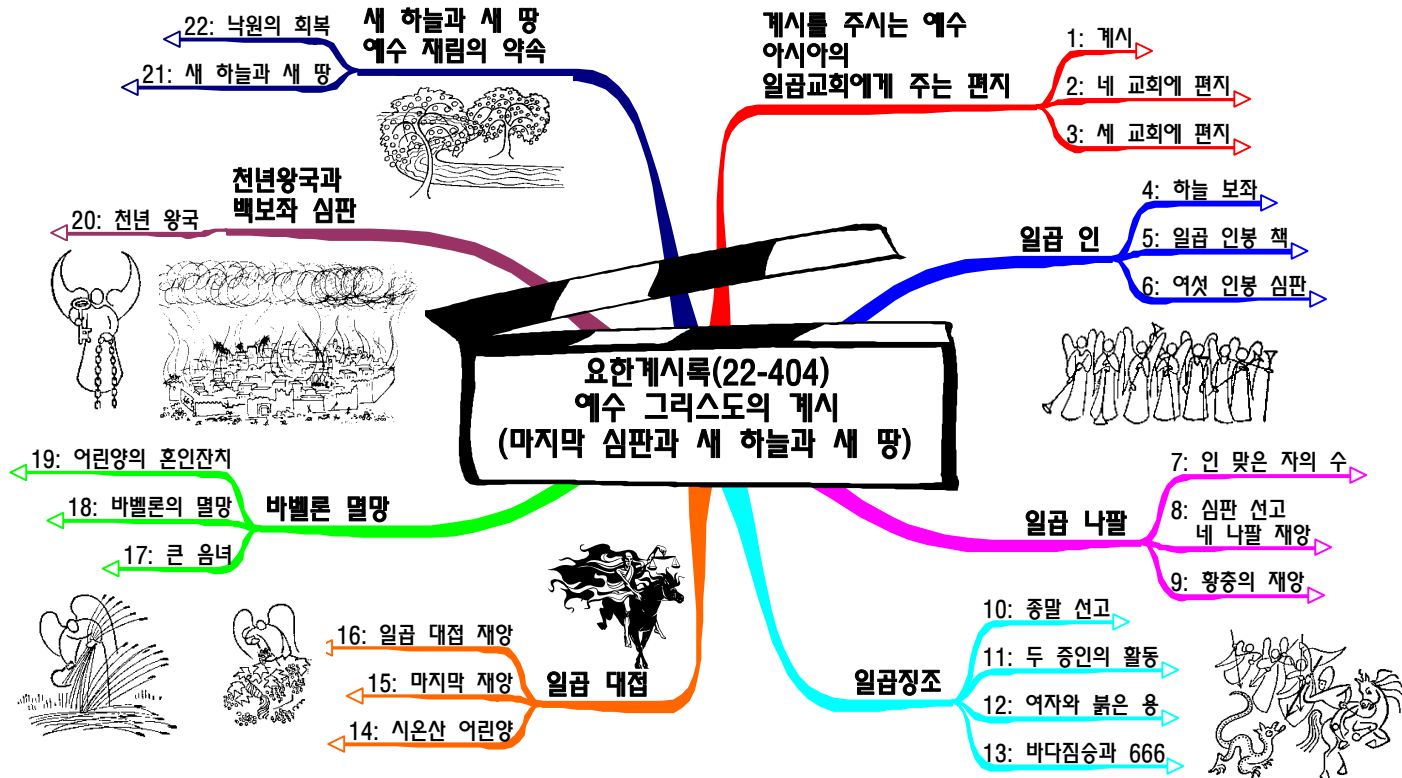
요한삼서는 사랑하는 가이오가 진리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즐거워하며, 교회내 말썽이 되고 있는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책망하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본을 따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책이다.

유다서는 이단인 영지주의자들과 거짓교사들을 경고하면서, 이들에게 동요되지 말고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는 책이다.



유다서는 이단인 영지주의를 경고하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애버리며 영광을 휘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면서 성도들은 믿음위에 굳게 서서 예수그리스도의 공훈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주제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악의 세력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므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의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시겠다고 선포하신 뜻을 사탄이 계속 방해하지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징조, 일곱 대접 제앙으로 결국에는 악의 세력이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수립될 것을 예언한 책이다.

성경 각권에 대한 개요와 맥락 지침서

성경 66권에 대한 통시적인 이해와 구조적인 파악을 위해 최대한 간단하게 **개요**를 작성하고, 아울러 전체의 내용과 흐름, 중심주제와 중요 줄거리들을 최대한 압축 요약하여 **맥락**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개요를 읽고 외운 다음, 맥락을 읽고 외우면 해당되는 성경의 전체 흐름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두 세 줄로 압축 요약 했지만 이렇게 하기까지 각 권에 대해 수 십 번을 읽고 관련서적을 참고하며 내용을 요약해 낸 것입니다.

개요와 맥락속에는 10-15개 정도의 중요 주제나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정도만 기억한다면 성경 66권에 대한 **중요 내용과 흐름**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 내용과 흐름을 알면 성경 각권에 대한 구조가 쉽게 파악되고 해석이 더 정확하고 더 새롭습니다. 특별히 귀납적 성경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외우기 쉽게 각 내용들을 연결했지만 모두가 연결한 조사의 내용대로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내용전개의 순서대로 연결시킨 것이지만 적절하게 조사를 사용하여 의미가 왜곡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외울 때 단순 반복식으로 외운다는 데에 목표를 두지 말고 책의 중심 줄거리들을 요약하여 **그 의미들을 심상으로 떠올리면서** 외워야 효과적입니다. 만일 의미들이 심상으로 떠올라오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기억해야 합니다.

내용을 텍스트와 MP3로 녹음해서 사이트로 올려놓았습니다. 들으면서 외우면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모든 파일은 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CD로 제공할려고 했지만 CD로 제작할 경우 책 단가가 높아져서 결국 책을 사는 사람이 그것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1. 구약, 신약 마인드맵 파일 - 해당 프로그램만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위해 2차 가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한글에 삽입된 형식의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경우 맵 이미지는 확대 축소함에 따라 글씨도 연동되어 크기가 변하기에 한글에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3.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파워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PPT 화일로도 올려놓았습니다. 교회내에서 성경공부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죄와 구원문제에 관여하신다는 사실과,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죄와 구원 문제에 관여하신다는 사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후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케 한 책이다.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 홍해건너 광야에서 구원찬송 부르게 한 후, 율법과 성막을 주어 거룩한 생활과 성막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케 한 책이다.

레위기는 제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생활규례로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친 책이다.

희생제사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거룩한 생활 규례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친 책이다.

민수기는 시내산 인구조사이후 37년 11개월간의 광야여정과 , 2차 인구조사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9개월 10일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인구조사 후 유월절 지키고, 가데스로 가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압에서 발람이 끼여든 후, 2차 인구조사하고 과업을 마무리한 책이다.

신명기는 39년 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재해석하며 적용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기 한 달 전 모압땅에서 기록한 책이다.

호렙에서 요단동편 정복까지를 회고하고, 십계명과 관련법을 강론한 후, 순종하여 복 받을 것을 권면한 다음,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책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로 얻게 된 지파들간의 실제적인 기업을 기록한 책이다.

가나안을 정탐한 후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한 후 31왕을 결산하다. 각 지파의 기업과 레위지파의 성읍을 분배하고 동쪽지파 귀환 후 고별사를 한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저버렸을 때 그 대적들 아래서의 비참함 패배와, 부르짖을 때 14명의 사사들을 통해 구원한 역사서이다.

사사기 기억법: 웃니가 예쁜 여자를 삼가 바라보라. 기도의 아비 둘라가 아이 입싼 놈아 열린 입에 있는 돈을 입다물고 손으로 주워라! (웃니엘, 에훗, 삼갈, 기드온, 드보라,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입다, 삼손)+ 엘리, 사무엘(14명)

룯기는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이방 여인 룯이 그녀를 구해준 보아스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되었으며, 거룩한 기업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룯이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와 시어머니를 봉양하려 이사를 줍다가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된다. 시어미의 말에 순종하여 결혼하여 오벧을 낳았는데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

사무엘상은 엘리에서부터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의 이스라엘왕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초기 왕정의 역사를 도덕적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하여 부패한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다.

사무엘 탄생이후 왕이 된 사울은 말씀에 거역하여 버림받았으나, 다윗은 기름부음 받은 후 사울의 음모로 도피생활하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 요나단과 함께 죽은 것을 기록한 책이다.

사무엘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윗에게로 왕권이 옮기는 과정과 다윗의 즉위에서 말년에 이르는 생애와 사역을 기르는데,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케 하실 약속과 장차올 메시아 왕국의 모델로서 묘사하며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법케 옮겨오다 옷사가 죽고 성전건축하려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한 후 밋세바를 취하여 책망 받고 압살롬과 세바가 반역한 후 기브온 핏값 치르고 인구조사 후 온역을 겪고 회개했다.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친히 이루어 가는 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하여 언약을 지키는 왕과 민족은 축복하시지마는 율법에 불순종 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등극 후 지혜로 재판하고 행정체계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한 후 기도응답을 받았으나 타락으로 남북이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다 엘리야의 경고를 안 듣고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사했다.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수넵 여인을 살리고 나아만을 치료해 주고 아합군에 포위된 중 회복을 예언한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다 호세아 때 북 이스라엘이 망한다.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회유를 거절하고 생명이 연장되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나 유다는 멸망한다.

역대기는 신앙생활에 실패하여 포로생활하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를 거듭 되새기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합당한 레위인의 직무수행과 성전예배의 회복을 강조한 책이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포로귀환까지 12지파의 족보를 언급하며 다윗이 부흥하여 법케를 안치한 후 영토를 확장하고 인구조사한 후 솔로몬에게 성전건축을 유언한 책이다.

역대하는 솔로몬 등극 후 일천번제로 지혜를 받고 성전을 봉헌한 후 부흥하나 부패하여 왕국이 분열된다. 유다의 통치자들이 선정과 악정을 거듭하는 가운데 시드기야 때 성전이 파괴되고 고레스 때 재건명령을 받는다.

남유다 왕들 기억법

르호보암의 아비 아사가 여호 여호 부르다가 아카시아에 찢려 아파가 소리쳤다. 요아래 아파 엉덩이가 찢린 것 같아 웃었시야! 요담에는 아 파스를 갖고 와야겠다. 히프에 머났네! 눈에 들어간 아몬드때문인지 요 시야가 가려 여하인지 여김인지 여긴인지 시비를 못가리겠다.

에스라서는 토지가 70년의 안식을 누린 후(대하 36:11)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백성의 성전과 신앙생활의 재건을 기록한 책이다.

1차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 후 학자겸 대제사장인 에스라의 주도하에 잡혼을 회개하고 성결운동을 맹세한 책이다.

느헤미아서는 대적의 시험과 공격가운데 위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악습을 타파하고 언약을 갱신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한 책이다.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아의 주도하에 성벽을 재건하고 부조리를 척결한 후 에스라 주도하에 언약을 갱신하고 성곽을 봉헌하며 종교생활을 개혁한 책이다.

에스더서는 포로로 잡혀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에서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은밀히 돌보시고 극적으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아래 있음을 가르친 책이다.

(에스더서는)왕후간택 후 하만의 흉계로 민족이 위기에 처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여 모르드개 대신 하만이 죽고 유다인은 원수를 물리친 날을 기념하여 부림절로 기념하고 모르드개는 존귀해 진다.

욥기는 신앙을 가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을 가르친 책이다.

시험 중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3차 변론 후 자신의 고난을 한탄하며 결백을 주장하나, 엘리후가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욥이 회개하고 두 배로 회복된 책이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신앙공동체(민족, 족속)와 개인이 겪는 다양한 경험과 영적인 체험들이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정을 통과하여 시의 형태로 기록된 책이다.

시편은 감사예배시, 찬양시, 비탄시, 민족애가시, 신정시, 시온시, 참회시, 저주시, 예언시, 지혜시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시편 분류 기억법 감사 찬양 하자 비참한 시민도 신발 끈을 메시고 악을 저지하자고 일어섰다.

잠언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도덕적 윤리적 원리들에 대한 교훈들을 통해 가르치는 책이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혜에 대한 교훈과 젊은이가 경계할 일,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경건한 삶을 격려하고 있다. 행실과 인간관계,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 기록되었다.

전도서는 세속적인 모든 목표나 축복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불만족과 허무를 가져오며, 인생의 최고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임을 교훈하는 책이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기한을 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헛되고 허무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즐거워하며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 수고하며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친 책이다.

잠언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기한을 정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즐거워하며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 수고하며,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치는 책이다.

아가서는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최고의 노래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깨달아 점점 성숙해 갈수 있도록 교훈한 책이다.

사람의 기쁨으로 두 연인이 결혼을 성대하게 치른 후 서로 화답한다. 꿈을 통해 보여진 시련에 갈등하다 서로 만나 사랑이 회복되어 더욱 성숙해 지고 신부는 완전한 사랑을 소원하고 노래한다.

이사야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주의 날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그려 성육신 하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고난의 메시아를 보여주는 책이다.

유다와 이방나라와 주의 날에 대한 예언과 히스기야 때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하며, 구원의 약속과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성취로 장차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것을 기록한 책이다.

예레미야는 회개치 않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됨을 확실하게 예언하여 마지막 경고를 발하며 미래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함으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고자 한 책이다.

유다에 대한 정죄와 포로 될 것을 예언하다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미래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나 지금은 함락될 것과, 아홉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후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며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과 그 백성에 대하여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고 애곡하며 여호와와 진노 가운데 기도로 자비를 구하며 죄악들을 열거하고 기도로 회복을 간구한 책이다.

에스겔은 (자기 민족에게 다가온 칠혹 같은 운명을 예시하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뒤에 오는 열방의 심판을 예고하되, 장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완전한 회복을 계시하여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본토에 일찍 귀환하리라는 거짓된 희망을 깨뜨린 책이다.

에스겔을 불러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며 파수군 삼으시고 대언케 하시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심판의 원인을 나열하며 예루살렘의 함락을 상징과 설교로 경고한다. 이방 국가들의 심판을 예고한 후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환상을 통해 새 생명 얻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

다니엘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위의 모든 인간 정부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셔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가 회복될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한 책이다.

여섯 가지 사건과 네 가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에 되어 질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여섯 가지 사건 : 신앙적 절개, 혼합된 우상, 풀무불, 큰 나무 꿈, 벽에 쓰인 글씨, 사자굴.

네 가지 환상 : 네 짐승, 인자, 수 양과 수 염소, 히테겔 강의 이상.

(네 짐승을 잡은 후 인자가 수염을 뽑아 히테겔 강에 버렸다)

호세아서는 정신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 위에 세워진 번영과 부흥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과, 남은 자에 대한 소망과 북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

호세아가 방탕한 고멜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듯 회개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기록하고 있다.

요엘은 심판의 날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 메뚜기 재앙으로 상징되는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과 회복의 날이 오면 열국은 심판 받고 유다는 영원히 설 것임을 예언한 책이다.

요엘서는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모든 백성은 회개하고 순종하면 땅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며 대적들을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거룩해질 것을 예언한 책이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간절한 기도가 없으며 타성적인 예배로 종교생활이 무의미해진 북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책이다.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고하며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한 책이다.

다섯 가지 환상 : 황충의 환상, 삼키는 불, 다림줄, 과일광주리, 문설주

(문설주에 다림줄로 과일 광주리를 달아놨더니 황충이 불같이 덤벼들었다.)

오바다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 및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여 예루살렘 약탈에 가담한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는 책이다.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도움을 거절하고 그 패망을 기뻐하며 탈취물에 손을 대고 도망치는 자를 잡아서 적에게 넘겨주는 등, 그 포악함 때문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유다 백성의 교만한 선민의식과 배타적 애국주의를 꾸짖으시며,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책이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다 풍랑 만나 삼일 밤낮을 물고기 배속에서 회개하고 토해진 후,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예고하나, 모두 회개해서 재앙이 내리지 않아 분노하며 죽기를 청하자, 박 념쿨을 통해 교훈을 준 책이다.

미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냉랭한 종교의식과 부자들의 탐욕과 지도자들의 횡포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왕국의 실현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삶으로 살게 하신 책이다.

미가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심판 받을 것은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 때문인데 말일 왕국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한 책이다.

나훔은 주전 713년경에 히스기야 왕 14년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 유다가 앗수르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큰 성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여 유다를 위로하고자 한 책이다.

나훔은 유다의 구원과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한 후 유다의 회복과 니느웨를 정복하기 위해 달려오는 군대를 묘사하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황폐된 니느웨를 그린 책이다.

하박국은 악한 갈대인을 심판하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유다의 신실한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성도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왜 불의를 그냥 두시고 더 악한 자를 통해 심판하시는가 질문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답을 얻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책이다.

스바냐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이 침략하여 열국과 유다에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여 회개를 촉구하면서 장차 다가 올 구원을 예언하며 유다의 회복을 약속한 책이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지면에 모든 것을 멸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니 그 전에 회개하라 권고하고 이방 나라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유다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학개는 주전 536년 2월 성전재건 공사를 시작하나 대적들의 방해로 14년간 중단하게 되어 이에 낙담하거나 우선순위를 상실한 백성들을 권고하여 성전공사를 완료하도록 격려한 책이다.

학개는 성전건축 중단을 책망하고 새 성전의 더 큰 영광을 약속하며 공사를 중단하던 때부터 (2:15) 소출이 없었으나 이제는 소출의 복을 주고 열국의 보좌를 엮고 열방의 세력을 멸하여 여호와의 엄위하심을 보이리라 한 책이다.

스가라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참다운 여호와의 종교를 회복하고 학개와 함께 성전재건을 촉구하며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섭리자이시며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상기시키고 있다.

스가라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여덟 개의 환상을 통해 성전건축을 권면하고 불성실한 금식을 책망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고, 나귀타고 입성하실 메시아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록한 책이다.

여덟 가지 환상 : 홍마 탄 자, 네 뿔과 네 공장, 척량하는 자, 여호수아 환상,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속의 여인, 네 병거.

말라기는 성전재건 세대가 지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성전에 무관심하며 신앙과 도덕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경고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되고 제사장은 눈 먼 희생을 드리며 문란한 결혼 생활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메시아 도래와 십일조 교훈 뒤에 여호와와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 백성들을 돌이키리라 하셨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것과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

예수님 탄생 후 세례, 시험 받으시고 산상보훈을 선포하신 후 10개의 기적과 12제자 파송 7개의 천국비유를 하신 후 오병, 칠병이여의 기적과 베드로의 신앙고백, 변화산 사건 후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7화와 열쳐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겐세마네기도 후, 수난, 부활, 승천하셨다.

마가복음은 전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고난의 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과 부활의 대속적 성격을 기술한 책이다.

세례요한의 전도로 시작, 초기 갈릴리 전도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 5병2어의 기적, 장로의 유전 문제 뒤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다. 7병2어, 변화산, 부자 청년의 질문 뒤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종말을 예언하고 최후의 만찬 후에 겐세마네기도 후, 수난, 부활, 승천하시다.

누가복음은 구세주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예수의 생애를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였으며,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고 생명과 희망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기적과 비유 및 교훈과 활동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려는 의지와 품성과 목적을 밝혀 주고 있다.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금식 후 시험 받으시고 12제자를 세우시며, 70인을 파송하고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 좁은 문, 큰잔치 비유,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입성 후 겐세마네기도 후 수난, 부활, 승천하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메시아의 표적과 이적을 기술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성육신하신 후 가나 혼인잔치, 성전청결,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병 2어의 기적을 보여 주신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소경을 치유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만찬과 세족식 후 성령을 약속하고 중보기도를 드린 후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신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다.

예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여 교회의 탄생과 스테반의 순교와 박해로 흩어진 교회 확산, 야고보 순교와 베드로의 고넬로 전도를 다루고 있다. 바울의 1차 전도 중 루스드라에서 앓은병이 고치고 2차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3차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체포당한 후 공회 앞에서 변론 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책이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일단의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장 조직적이고 교리적으로 써서 보낸 서신이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악을 열거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와 연합함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며 율법에서 해방되어 오직 성령의 법으로 살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옮겨 갔으나 장차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것과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고 권세에 복종하고 형제 의무를 다할 것을 권하며 개인적인 권면으로 마친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에 관한 소식과 유대주의자들의 준동, 성적문란과 성찬, 우상의 제물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고와 경계에 대한 서신이다.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하되 충성하라 권고한 후 음행과 혼인문제 우상의 제물문제를 경고하고 성찬과 성령의 은사를 사랑으로 행할 것과 예배 가운데 방언과 예언을 질서 있게 사용하고 부활을 준비하며 예루살렘 성도를 위하여 헌금할 것을 당부한다.

고린도후서는 전편에 편지를 읽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 감사와 부담을 느끼고 근심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권하며 바울의 사도직과 개인적인 종말론을 중심으로 기술한 책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 그리스도안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헌금과 구제, 바울의 사도직과 신비 체험, 3차 방문객을 밝히고 회개를 권고하는 책이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식적 율법 준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자유를 강조하는 책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기에 지극히 정당하고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도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 이기에 그리스도의 자유로 살고 성령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머리는 그리스도란 사실을 강조한다. 창세전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까지 구속목적의 일관된 흐름으로 보여 주며 성경 전체를 간결한 메시지로 집약한 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되시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모퉁이 돌 되신다는 것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고 새 사람을 입으며 빛의 자녀답게 성령충만한 삶을 살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책이다.

빌립보서는 매임 받은(감옥) 바울을 위해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기쁨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일치를 권면하는 책.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과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하여 두려움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권면한 후,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관용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한 책이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신성에 충만을 육체로 나타내시고 교회의 머리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화해자이며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의 충만으로 와 계셔서 우리의 구원과 삶이 예수 한 분 만으로 충분하다고 한 책이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한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충만하시고, 모든 것의 중심되시는 분이시기에 위엿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덕으로 살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한 책이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견고케 하고 성적타락과 다툼과 분쟁의 위험에 관해 경고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생활태도를 가르치는 책이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많은 환란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주를 본받는 것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디모데를 통해 전해들은 교회의 소식에 안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주 예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근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한 책이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재림시에 일어난 사건과, 멸망의 아들에 관한 심판의 전말을 밝히고 규모있는 성도의 생활을 권면한 책

데살로니가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니 잘못된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며 불법한 자를 주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리니 불의한 일에 유혹되지 말며 주께서 너희를 굳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악하고 게으른 자를 사귀지 말라 권면한 책이다.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향하여 가져야 할 목회자의 자세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과 자격을 밝히며, 교회의 사명과 목회자의 처신에 관해 권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책이다.

디모데전서는 거짓 교리를 경계하며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과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가르치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며 교회내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한 책이다.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며 죽기 전에 속히 올 것을 당부한 책이다.

디모데후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교회 가운데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주께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깨끗이 하며, 말세의 징조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온전케 되며, 늘 말씀을 전파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라 권면하면서 죽기 전에 올 것을 당부한 말이다.

디도서는 장로의 자격과 교회의 각 계층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교역자의 임무를 가르치는 목회 서신이다.

디도서는 자격 있는 장로를 세우고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각 계층별로 합당한 교훈을 주고 선행을 가르치며, 무익한 변론을 피하고 이단을 경계하며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권면한 책이다.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개종시켜 보내니 저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하라고 부탁한 책이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믿음을 칭찬한 후에 도망친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돌려보내는 대로 저를 용서하고 형제로 영접하여 나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라 강하게 부탁한 글이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는 천사와 모세와 이론보다 더 뛰어 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게시의 완성이신 예수그리스도는 천사와 모세와 이론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우리의 큰 제사장 되시는 분으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셨으니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권하는 책이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 비판하고 죄에 대한 회개의 교리를 전파하고자 한 책이다.

야고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혀를 잘 사용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며, 세상의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다섯 지방에 흩어져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말고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고하는 책이다.

베드로전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믿음의 산 소망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부부간의 도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받아 죄를 끊고 살라, 불시험 당할 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권한 책이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여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권면하는 책이다.

베드로후서는 더욱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며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된 거짓 스승들을 쫓지 말고 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신 것을 기억하며 재림의 확실성을 믿고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하신 책이다.

요한일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 부인하는 자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권고한 책이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는 미혹케 하는 자이니 속지 말며,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라. 성육신을 부인하며 세상의 교리를 전하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라 하신 책이다.

요한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고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경계하며 자신의 방문객을 밝히고 있다.

요한이서는 택한 부녀와 자녀를 문안한 후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상종치도 말라 권면하는 책이다.

요한삼서는 가이오의 관대함을 칭찬하고 디오트레베의 악행을 책망하며 데메드리오의 모범을 칭찬하면서 성도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권고하는 책이다.

요한삼서는 사랑하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즐거워하며, 교회내 말썽이 되고 있는 디오트레베의 악행을 책망하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본을 따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책이다.

유다서는 이단인 영지주의자들과 거짓교사들을 경고하면서, 이들에게 동요되지 말고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는 책이다.

유다서는 이단인 영지주의를 경고하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신여기며 영광을 휘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면서 성도들은 믿음위에 굳게 서서 예수그리스도의 공회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주제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악의 세력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므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의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시겠다고 선포하신 뜻을 사탄이 계속 방해하지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징조, 일곱 대접 재앙으로 결국에는 악의 세력이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수립될 것을 예언한 책이다.